

주체91(2002)년

6.15주간

6.15Weekly

제35호 (2월 15일~2월21일)

노작 -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적 발전과 완전자주독립을 위하여

부쉬야 손떼라

21세기 태양이시며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이신 김정일동지께
6.15공동선언이행을 차단시킨 부시행정부의 죄악백서

21세기 태양이시며 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주체 91년 청년주체주의자대오의 10대 맹약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공동기조보고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결의문

6.15주간 편집부

6.15주간

6.15WEEKLY

제35호 (2.15~2.21)



3 주석님 노작 -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적 발전과 완전자주독립을 위하여

6 세기와 더불어 - 혁명전우 장울화(1)

9 조국통일의 구성 -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 백두산밀영지구에서 개막

특집 - 부쉬야 손떼라

10 날이 갈수록 규탄배격받는 부시망발
11 미국이야말로 악의 제국이다
14 북 미사일 해법, 경제 보상에 달렸다
15 ≪선 무기포기≫는 제네바합의 위배
17 부시는 전쟁 부르는 ≪죽음의 상인≫
18 최근 여론조사 결과로 본 국민들 반미감정
20 전국 9개도시, ≪부시방한반대≫ 한 목소리
22 10개사회단체 부시방한반대 농성돌입
23 한반도 평화염원 ≪700인 선언≫ 발표
24 민주당 송석찬 의원, ≪부시는 ≪악의 화신≫≫
26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부시에 공개서한
27 새해맞이 준비위, 부시방한 관련 성명 발표
28 국회서 ≪부시행정부와 햇볕정책≫ 토론회
29 부시방한 이틀째, 서울시내 곳곳 반미시위로 들끓어
31 한미 정상회담 각계 반응 ≪햇볕정책 지지는 말뿐≫
32 떠난 부시, 끝나지 않은 분노
33 미국의 ≪미 상의 점거 테러규정≫ 규탄 한총련 성명
33 미 상의 점거 6명 국보법위반 영장
34 미국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 편지

한국민족민주전선
35 21세기 태양이시며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이신 **김정일**동지께
37 6.15공동선언이행을 차단시킨 부시행정부의 죄악백서

청년주체주의자대오
41 21세기 태양이시며 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42 주체 91년 청년주체주의자대오의 10대 맹약

6.15공동선언실현
43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공동기조보고
46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결의문
48 새해맞이 행사 26-28일로 확정
48 서울지역 (총)학생회장단, 금강산 탐방

주한미군철수
49 52년 전, 미제침략군의 거창양민학살만행
50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기자회견 가져
51 무장 미군병사 민간인 폭행 ≪말썽≫

반통일세력단죄규탄
52 민족의 역적을 기어이 매장하자
53 반이회창투쟁과 국민의 자세
54 이 총재 방미 관련 여야 ≪논평 전쟁≫
55 ≪월간조선≫의 색깔공세에 내려진 철퇴
55 안티조선, 이문열씨 명예훼손 고소

국보법철폐 국정원해체
56 ≪김현희 공범 김승일 죽음 의혹있다≫
57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한다≫
57 최종길교수 의문사 폭로 유인물

민중연대
58 김대중 정권은 전국연합 정광훈 공동의장을 즉각 석방하라
59 부시 방한 하루 전, 전농 간부 연행
60 대중참여 후보 단일화 사례

61 연단 - 6.15공동선언은 이행돼야한다
62 시 - 장군님의 전투복

63 뉴스 - 주체91, 2/11 ~ 2/17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적 발전과 완전자주독립을 위하여

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한 연설

1946년 5월 19일



친애하는 동포형제자매들!

과거 36년간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하에서 압박 받던 조선민족은 망국노의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와 행복을 찾았습니다. 우리 인민은 북조선각지에 인민위원회를 창설하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나라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위한 기초를 닦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북조선인민들은 언론, 출판, 결사, 집회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받고 있으며 자기의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토지개혁이 실시된 결과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농민들은 지주의 예속에서 영원히 해방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국가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날이 갈수록 더욱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북조선인민들의 행복으로 될 뿐 아니라 전 조선의 완전독립을 위한 기초를 닦는 것으로 됩니다.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의 잔재세력과 봉건세력의 착취와 억압 밑에서 계속 신음하고 있는 남조선인민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나라가 또다시 제국주의 약탈자들의 식민지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애국적 조선인민은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적 발전과 완전자주독립을 예견한 모스크바3국외상회의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조선문제에 관한 모스크바3국외상회의의 모든 결정들이 우리 나라에서 일본제국주의의 장구한 식민지통치의 악독한 후과를 급속히 청산하고 우리 나라의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부흥 발전시키며 우리 나라를 민주주의적 완전자주독립국가로 발전시키는 기본원칙에서 민주주의임시정부를 수립할 것을 예견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여 왔습니다.

지난 3월 20일 서울 덕수궁에서 소 미 공동위원회가 사업을 개시하게 되자 전체 조선인민은 이 위원회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모스크바3국외상회의 결정에 예견된 대로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며 그것을 위하여 투쟁할 수 있는 임시정부가 수립되기를 기대하여 왔던 것입니다.

소련대표단은 소 미 공동위원회를 개회한 첫날부터 시종일관 모스크바3국외상회의 결정에 기초하여 민주주의적 조선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원하지 않는 미국대표단의 무성의와 완고하고 어리석은 이승만 도배의 반동적 책동으로 말미암아 소 미 공동위원회는 결국 무기휴회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친애하는 동포들!

누가 이 회의를 파탄시켰습니까? 이 회의를 파탄시킨 죄인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미국반동파와 이승만 도당입니다. 이승만 반동도당의 안중에는 민족도 나라도 없으며 오직 개인의 정권탐욕과 사리사욕만이 있을 뿐입니다. 살인 강도단의 두목 이승만 도당의 행동은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방해할 뿐 아니라 조선민족의 이익을 제국주의자들에게 완전히 팔아먹으려고 하는 매국노의 행동이며 우리 민족을 영원히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예속시키려는 천추에 저주할 민족반역자의 행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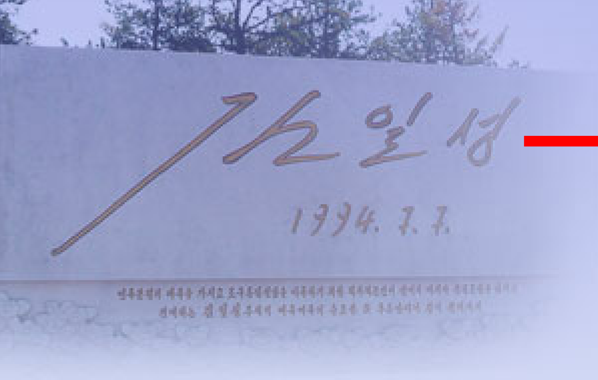
≪평화≫의 간판을 걸고 ≪정의≫를 위하여 싸운다고 하던 미국≪신사≫들은 지금 가면을 벗어버리고 동맹국간에 체결한 국제적 협정을 난폭하게 위반하면서 공공연히 우리 나라를 침략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미국사람들은 조선에서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자처하면서 실제에 있어서는 일본총독통치제도대신에 군정의 간판 밑에 미국총독통치제도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들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민을 학살하며 노예와 같이 압박하고 착취할 때 일제의 주구노릇을 하던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규합하여 미국인 총독 하지중장의 고문으로 또는 각지방 군정기관의 사환꾼으로 등용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 시대보다 더 가혹한 탄압정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백주에 테러단을 동원하여 우리 동포들을 닥치는 대로 살해하는 야수적 만행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 미 공동위원회에서 미국대표단은 임시정부수립문제에 있어서 민족반역자 이승만을 괴수로 하는 반동분자들과 협의할 것을 주장하면서 조선인민의 각계각층이 망라되어 있는 노동조합, 농민조합, 여성동맹, 청년동맹의 대표들과 협의하기를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조선에 민주주의적 정권을 수립하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지에 있어서 미군정의 연장에 불과한 예속적이며 반인민적인 반동주구정권을 수립하려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선인민의 이익의 진정한 옹호자인 소련대표단은 미국 측의 이 모든 비행을 용인할 수 없었습니다.

민족반역자 이승만 괴뢰도당은 벌써 오래 전에 조선의 경제적 이권을 미국자본가들에게 팔아먹었습니다. 미국자본가들과 그 주구 이승만은 그때에 체결한 매국적≪조약≫을 실행하기 위하여 오늘 전체 조선인민이 한결같이 요구하는 민주주의적 정권의 수립을 한사코 방해하고 있으며 한줌도 못되는 민족반역자, 친일분자들의 반인민적, 매국적 전제정권을 수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민주≫라는 가면을 쓰고 각 지방에서 이조 500년래의 케케묵은 도 감사제도를 실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세기의 개명한 조선청년들에게 봉건시대의 갓을 씌우려고 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오늘의 조선인민은 봉건시대의 인민도 아니며 제국주의의 식민지노예도 아닙니다. 오늘의 조선인민은 해방된 인민이며 전진하며 발전하는 인민입니다. 조선인민은 자신의 손으로 자기의 주권인 인민위원회를 수립하였으며 진정한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인민위원회를 반대하는 자는 곧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자입니다. 애국적 조선인민은 인민위원회의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자기의 정권을 공고히 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3국외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민주주의적 조선임시정부의 수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체 조선인민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첫째로,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3국외상회의 결정을 절대 지지하며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에 기초한 통일적 민주주의 정부를 하루속히 수립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의 전체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적 발전과 민족적 독립을 방해하며 조선을 또다시 제국주의자들에게 팔아먹고 있는 이승만 도당과 그의 졸도 조만식 등 반동분자들을 민족의 원수로서 철저히 규탄하고 숙청하여야 하겠습니다. 민족반역자, 친일파 등 온갖 반동분자들을 타도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적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 인민위원회를 적극 옹호하며 그 시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위원회는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며 민주조선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가장 진보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인민의 정권기관입니다. 인민위원회는 농민에게 땅을 주며 산업을 부흥시키며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며 인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민족의 완전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싸워 왔으며 또 싸우고 있습니다.

전체 조선인민은 인민위원회의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합시다. 인민위원회의 지도하에 민주주의를 향하여 총진군합시다.

넷째로, 소련인민과의 친선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파쇼잔재의 숙청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국제민주진영과의 단결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 발표한 20개조정강을 널리 선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정강은 우리 나라를 민주주의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을 천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민대중 속에서 20개조정강에 대한 해설선전사업을 광범히 진행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정강을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정부가 수립될 때에만 우리 민족이 진정한 자유와 독립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여섯째로, 산업과 농촌경리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농민들의 세기적 숙망이었던 토지개혁의 실시는 민족적 부흥과 민주주의적 발전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가장 거대한 사변으로 됩니다.

우리는 토지개혁의 승리를 공고히 하며 농촌경리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봄갈이, 파종 및 농산물증산운동에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업에서 실지로 증산을 보장하여야만 토지개혁의 승리를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민대중은 금년도 춘기파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며 수확고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적 독립국가건설에서 제일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공장, 기업소들을 빨리 복구하여 조업하게 하며 이승만 도당의 침해로부터 우리의 산업기관들을 보호하여야 하겠습니다.

일곱째로,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부문의 모든 지식인들은 일본제국주의 사상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고 조선의 민족문화를 부흥 발전시키며 민주주의적 독립국가건설에 모든 지혜와 재능을 다 바쳐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포들!

우리 조선인민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진보와 민주주의와 완전독립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며 다른 하나는 퇴보와 반민주주의와 식민지로 떨어지는 길입니다.

조선인민은 진보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자유와 독립을 요구합니다. 전체 애국적 조선인민은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민위원회의 지도 밑에 민주주의적 조선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체 조선인민은 우리 민족을 또다시 제국주의자들의 노예로 만들려는 이승만 매국역도와 그의 졸도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적 조선건설을 방해하는 민족반역자와 반동분자들을 타도하자!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 만세!

조선의 민주주의적 발전과 자유를 보장하는 모스크바3상회의의 결정을 절대 지지하자!

진정한 인민정권기관인 인민위원회 만세!

자유로운 민주주의적 조선 만세!

혁명전우 장울화(1)

≪세기와 더불어≫제4권 제12장 광복의 새봄을 앞당겨



…

무송의 십자거리 한 옆에는 1932년 6월 남만원정을 나갈 때 나와 장울화의 상봉을 마련해 준 ≪동소과≫라는 양주공장이 있었다. 그 양주공장은 후에 이름을 달리 달았다가 내가 남만원정 때 그 곳에서 장울화를 만났다는 사적이 알려진 다음부터 다시 본래의 이름대로 ≪동소과≫라고 하였다 한다. 장금천이 나의 생일 80돐에 그 양주공장에서 만든 ≪동소과≫라는 이름있는 술을 나에게 가지고 와서 전할 때 나는 무송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다시금 느꼈다. 거기서 나는 장울화와 함께 여러 차례의 담화를 하였다.

우리는 혁명을 두고, 많은 소감을 나누었다. 장울화는 그때 자기의 아내가 임신하였다는 말까지 하였다. 그 아이가 바로 지금 무송에 살고 있는 그의 아들 장금천이다.

장울화는 그때 부대의 위용을 보고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성주의 부하들이 참 끌끌하구나. 기차칸에서 우리가 만난 게 한해도 못되는데 이렇게까지 빨리 군대를 조직하다니. 성주가 그 동안 큰일을 했어. 이제는 대사를 이루게 됐지, 대단해!≫

그는 그의 가식 없는 격찬에 머리가 핑 돌 지경이었다.

≪울화, 너무 비행기를 태우지 말라구. 우린 방금 첫시작을 했을 뿐이야. 사람으로 치면 갓난애라고나 할까. 그런데 이 갓난애가 세상에 태어나는 데서는 울화가 준 수십 자루의 총이 큰 은을 냈어. 울화는 우리 군대를 출산시키는 데서 무시할 수 없는 공을 세운 조산원의 한 사람이야.≫

≪그건 지나친 칭찬인걸. 나는 지금 자기 자신을 얼마나 쓸모 없고 무기력한 존재라고 타매하고 있는지 몰라. 성주는 지금도 이전날처럼 변함없이 나를 믿고 있겠지?≫

≪그럼 믿지 않구. 믿어도 단단히 믿지. 저기 저 송화강의 물줄기가 설사 거꾸로 흐른다고 하여도 울화에 대한 나의 정이야 변할 수 없지.≫

장울화는 불현듯 내 손을 으스러지게 틀어잡고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렇다면 성주, 나를 성주의 부대에 받아 달라구. 나도 무장을 들고 떳떳하게 항일을 하고 싶단 말이야. 성주가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무송에서 성주를 놓아주지 않겠어.≫

이 단도직입적이 요청 앞에서 나는 기쁨을 금할 수 없었다.

≪울화, 정말인가?≫

≪정말이구말구. 성주의 부대가 무송에 온 첫날부터 나는 매일 그 생각만 했어. 처도 지지하였구…≫

≪그럼 아버지는? 아버지가 놓아줄까?≫

≪아버지야 놓아주건 말건 그게 무슨 상관인가. 내가 간다면 가는 것이지. 성주도 기차칸에서 말하지 않았나. 나라가 없어지는데 집이 다 무엇이냐. 부모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혁명을 해야 한다구 말이야. 진한장도 부호의 자식으로서 혁명을 하는데 나도 구국군공작 같은 것이야 할 수 있지 않은가.≫

≪울화가 빨치산 대오를 따라가겠다는 건 좋은 생각이야. 그렇지만 울화, 혁명이란 무장투쟁이라는 한개의 전선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울화가 무송에 그냥 남아서 지하혁명사업을 해 주었으면 해.≫

≪지하혁명사업이라니? 그럼 유격대에 못 받아 주겠다는 건가?≫

≪못 받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선에서 싸워 주었으면 하는 거지. 군중을 교양하고 조직 결속하는 지하혁명투쟁은 무장투쟁에 못지않은 중요한 전선이야. 이 전선에서 활동하는 투사들이 인민대중을 잘 묶어 세우지 못한다면 무장투쟁은 그 기초를 공고히 해 나갈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무송지구에도 강력한 지하혁명전선을 꾸리려고 생각했어. 나는 울화가 이 전선을 지휘하는 사령관이 되었으면 하는 거야.≫

장울화는 기력이 빠진 사람처럼 고개를 떨구고 천천히 안경알을 닦기 시작했다.

≪그럼 성주는 나를 적들의 총탄이 미치지 않는 2선으로 빼돌릴 심산이구나. 부잣집 자식으로 호강을 해온 사람이니 고생을 견뎌내지 못할 거란 말이지?≫

≪물론 그런 계산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 울화의 체질을 가지고 서는 험산준령을 타고 다니는 유격대생활을 감당할 수 없어. 나야 뭘 숨기겠나. 나는 울화의 사상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준비를 걱정하는 거야. 그러니 산에 들어와 고생을 하느라고 하지 말고 집에 있으면서 사진관도 차려놓고 교원도 하면서 우리의 사업을 힘껏 도와 달라는 것이지. 대부호의 자식이라는 간판이 얼마나 좋아. 그 간판이면 울화는 혁명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자기 정체를 숨길 수가 있거든.≫

나는 다음날에도 장울화를 끈기있게 설복하였다.

우리의 실갱이는 결국 장울화가 나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났다. 우리가 무송을 떠나는 날 그는 나를 바래주며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유격대를 따라가겠다고 결심한 것은 지하투쟁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성주와 함께 있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서 그러는거야. 성주가 없는 나의 생활, 그것은 바이올린이 없는 관현악과 같은 것이지. 내가 성주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성주는 다 모를 거야. 그러니 어데 가서나 나를 잊지 말아 달라구. 나한테서는 성주보다 더 가깝고 귀중한 친구가 없어. 아무쪼록 몸조심하라구.≫

그날 장울화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바래주었다.

그때부터 어언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 4년이라면 적지 않은 세월이다. 하지만 장울화는 언제나 나의 관심 속에 있었으며 그에 대한 그리움으로 내 가슴은 늘 꽉 차 있었다.

나는 초조하게 김산호를 기다렸다.

콩기름 통을 지고 무송시내에 내려간 김산호는 콩기름 흥정을 하면서 얼마 동안 현성 안을 돌아다니다가 장울화가 ≪형제사진관≫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았다. 말이 사진관이였지 내용은 무송지구의 지하조직들을 지도하는 본부나 다름없었다. 장울화는 이 본부에 틀어 앉아 돈벌이도 하고 조직원들과의 연계도 가지고 있었다. 김산호가 찾아가서 ≪장 선생, 좀 만날 수 있을까요?≫라고 하자 그는 현상실로 손님을 안내하였다.

≪나는 **김일성**장군이 보내서 당신한테 왔소. **김일성**장군은 지금 무송근방에 와 있소. 당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알아 오라고 해서 내가 그분의 위임을 받고 당신을 찾아왔소.≫

김산호가 장울화에게 한 말이였다.

장울화는 김산호를 인차 알아보고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아, 김성주! 성주가 가까이에 와 있단 말이지요. 당신은 김성주가 있는 곳으로 나를 안내할 수 있소?≫

≪지금은 멀어서 가기가 힘드오. 우리가 차후 중간 기점에 알맞춤한 장소를 정하고 통지할 테니 거기서 김 장군을 만나는 것이 어떻겠소?≫

장울화는 산호를 미덥지 않은 눈길로 훑어보다가 내가 보낸 편지를 받아 읽고 나서야 얼굴에 밝은 미소를 담았다.

≪좋소. 그러면 연락을 기다리겠소. 김성주에게 편지를 고맙게 받았다는 내 인사를 전해 주시오. 내가 건강하다는 것과 약속에 충실하였다는 것도 보고해 주시오.≫

김산호는 의기양양해서 마안산밀영으로 돌아왔다. 새로운 소식들로 가득찬 그의 보고는 1936년 봄이 나에게 줄 수 있었던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새 봄의 훈향에 취한 사람처럼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 발목이 아파나도록 밀영을 거닐었다. 나의 제의에 따라 장울화와의 상봉 장소는 무송현 묘령 부근에 있는 천연동굴로 결정되었다.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이 수십 정보의 땅과 수십 정보의 인삼포, 수많은 가병들을 가지고 있는 대부호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우리 동무들 중 일부는 나의 묘령행을 미타하고 안심할 수 없는 걸음이라고 하면서 반대하였다.

≪사령관 동지, 이거 주제넘는 간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장씨 부호의 아들을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사람이 사령관 동지의 소학동창이고 또 다년간 조직생활도 한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계급적 본성이야 어디 가겠습니까. 그는 어쨌든 착취계급의 자제가 아닙니까.≫

나는 그런 권고를 즉석에서 밀어 버렸다.

≪동무들, 동무들이 내 신변을 걱정해 주는 건 고마운 일이요. 하지만 나는 그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소. 동무들은 지금 계급적 본성이 어떻다면서 자기네 사령관이 무슨 함정에라고 찾아가는 것처럼 아부재기를 치는데 그것은 나의 둘도 없는 혁명전우 장울화에 대한 모독인 동시에 우리의 통일전선 정책에 대한 모독이라고 할 수밖에 없소.≫

≪사령관 동지! 저희들은 지방조직에 있을 때 사람의 계급적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과 부자들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상으로 교양받았습니다. 우리가 혁명군에 입대한 다음에도 적지 않는 지휘관들은 그렇게 교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주, 자본가들과 노동자, 농민들 사이에는 오직 투쟁이라는 한 가지 원리만이 작용하며 착취계급 일반에 대해서도 그가 누구이거나를 막론하고 타도하거나 청산하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묘령행차의 반대자들은 한두 마디의 훈계에 호락호락 굽어들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런 사람들이 혁명의 원리에 어긋나는 초혁명적인 주장을 한다고 하여 함구령을 내릴 수 없었다. 우리 대내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고전의 명제들을 혁명실천과의 연관 속에서 창조적으로 보지 않고 통째로 받아들이거나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인간들이 적지 않았다. 맑스나 레닌의 명제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한치의 에누리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법규로 되고 있었다.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교조를 떼버리자면 꾸준한 원리교양이 필요했다.

나는 말했다.

착취계급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다. 지주, 자본가들이 우리의 적대계급이라는 것은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동무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지주, 자본가들이라고 하여 다 한 몽둥이로 다스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주, 자본가들 가운데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항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여기에 오가자 내막을 잘 아는 김산호동무도 있지만 조가봉이란 그 고장 지주는 우리의 혁명활동을 얼마나 잘 도와주었는지 모른다. 장울화의 아버지 장만정은 조가봉이란 지주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후원해 주었다. 우리가 오가자에서 무장투쟁 준비를 하고 있던 1930년 가을에 장울화는 자기네 가병들이 사용하던 수십 자루의 총을 나에게 무가로 넘겨주었다. 지금 우리가 잡고 있는 이 한 자루 한 자루의 총이 얼마나 비싼 대가로 이루어진 것인가를 동무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 대오에는 총 한 자루를 위해 청춘을 바친 열사들도 많았다. 그런데 장울화는 우리가 목숨을 바치면서 힘들게 구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런

무기를 단꺼번에 40자루나 넘겨주었다.

장울화를 믿지 못할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장씨 가정이 지난날 우리를 얼마나 우호적으로 대했고 우리 가정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가에 대해서는 여기서 구태여 더 설명하지 않겠다. 그러나 계급성과 계급투쟁에 대한 일면적인 해석이 우리 혁명에 얼마나 큰 손실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말하고 넘어가야겠다. 동무들의 견해대로 하면 장만정과 같은 지주는 아무리 혁명에 이로운 일을 많이 하여도 착취계급이기 때문에 타도대상으로 되고 반면에 노동자, 농민 출신의 밀정은 아무리 혁명에 해로운 일을 많이 하여도 기본계급이라는 이유로 포섭대상으로 된다.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규정인가.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을 평가하는 데서 항상 공명정대한 입장에 서야 한다. 이것은 소속이나 신앙이나 계층에 관계없이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대로 평가하고 공로는 공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또한 사람들을 평가하는 데서 언제나 과학적인 입장에 서야 한다. 과학적인 입장에 선다는 것은 그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추어 사람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의 사상과 실제 행동을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 입장에 철저히 서서 사람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을 평가하는 데서 출신만을 절대화하게 되면 과학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그런 평가는 공정한 평가로 될 수 없다.

우리가 만일 계급성이나 계급투쟁 일면만을 부르짖으면서 사람들을 좌경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겠는가? 그런 처사는 의심할 바 없이 많은 사람들을 적의 진영으로 밀어던지는 후과를 낳게 된다. 적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눈뜬 소경이 되어 사람들을 함부로 의심하고 닥치는 대로 타도할 것을 바라고 있다.

동무들, 우리는 간도에서 반≪민생단≫투쟁의 과녁이 되어 마음고생을 많이 해온 사람들이다. 같은 가마밥을 먹으며 생사를 함께 해온 사람들로부터 불신을 당할 때 동무들은 모두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눈물나는 그런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오늘은 의심받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인간들을 향해 함부로 그 저주로운 불신의 무기를 쳐들 수 있겠는가.…

나는 이런 말로 묘령행차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깨우쳐 준 다음 몇 명의 호위 성원들과 함께 마안산밀영을 떠났다.

일부 사람들이 부자들의 계급적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내걸고 나와 장울화와의 상면을 반대한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들이 대수롭지 않게 내던지 그 말마디들이 나와 장울화의 우정, 우리 가정과 장울화네 가정 사이에 맺어졌던 친교를 모욕한 것 같아서 나는 불쾌감을 금할 수 없었다. 그것은 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송화강의 흐름처럼 꾸준하고 변함없는 우리의 신성하고도 뿌리깊은 우의에 먹칠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우리의 우정은 그 어떤 이유나 궤변으로써도 훼손시킬 수 없는 진지하고 심오하고 진실한 것이었으며 전반적 혁명의 이익과 공산주의적 인도주의와 윤리도덕에도 부합되는 것이었다.

유산자는 착취자라는 한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부자들을 다 반동으로 본다면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사회개조의 어려운 길을 애써 걸어갈 필요도 없지 않는가.

나는 어려서부터 재산의 유무나 대소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인민을 얼마나 사랍하며 조국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데 있었다. 부자라고 하더라도 조국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좋은 사람으로 보았고 무산자라 하더라도 조국애와 인간애를 지니지 못한 사람이라면 좋지 않은 사람으로 보았다. 한마디로 말하여 사상을 기본으로 하여 사람을 평가하였다.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이미 이야기하였지만 나의 소년 시절의 첫동지 강윤범은 가세가 넉넉한 집 자식이었다. 윤범이네 집에서는 자그마한 과수원도 가지고 있었다. 생활수준으로 보면 우리 만경대 집과는 비교가 안되었다. 그렇지만 나는 강윤범을 무척 사랑하고 신임하였다. 그것은 그가 누구보다도 열렬히 조국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는 소년이었기 때문이다.

회고록 1권에서 이야기한 백선행도 큰 부자였지만 평양시민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다가 일생을 마쳤다. 사실 그를 대부호로 만든 것은 평생 먹기 싫은 것을 먹고 입기 싫은 옷을 입고 하기 힘든 일을 했다는 그의 초인간적인 근검절약의 정신이었다.

물론 세상에는 수많은 땅과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인간적으로 착취하고 고혈을 짜내며 치부하는 수전노들, 인륜의 도를 어기고 무지막지한 행위를 자행하며 온갖 사회악을 빚어 내고 있는 악덕 부자들이 많다. 그렇다고 모든 부자와 유산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백선행은 해보지 않은 일이 없었다. 콩나물 장사도 하고 두부도 팔고 꽃도 팔고 베도 짜고 무명낳이도 하고 돼지도 기르고 뜨물찌끼 장사도 하면서 얼굴에 분 한번 바를 사이 없이 이악스럽게 부를 쌓아 나갔다. 16살에 청산과부가 된 때로부터 수십 년을 하루와 같이 일하면서 피땀으로 저축한 수천 수만 원의 거금을 그는 사회를 위한 사업을 고스란히 바쳤다.

그가 맨 처음으로 사회를 위해 해놓은 것이 바로 ≪솔뫼다리≫ 라고 부르던 송사리의 석조다리이다. 백 과부의 덕행에 감동된 평양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선행이라 짓고 그 함자를 따서 ≪솔뫼다리≫를 ≪백선교≫ 라고 명명한 것은 그 후의 일이었다.

그 당시 평양의 신시가지에는 부립공회당이 하나 있었다. 그 공회당의 사용권이 일본인들에게만 있고 조선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백선행은 분개한 나머지 조선사람들만을 위한 공회당 건설의 총공사 부담을 혼자서 걸머지고 수만 원에 달하는 돈을 아낌없이 출자하였다. 지금도 연광정 앞에는 지난날의 평양공회당이던 3층짜리 석조건물이 옛모습 그대로 서 있다.

백선행은 민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막대한 투자를 하였는데 평양의 광성소학교, 창덕학교, 숭의여학교와 같은 학교들에서는 그가 기증한 수십 정보의 토지들을 밑천으로 삼아 학교를 운영하였다. 결국 나도 백과부의 덕이 미친 창덕학교에서 그 덕행의 일부를 받아 안은 셈이다.

백선행은 자기의 후원을 받고 있는 학교들에 나가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곤 하였다.

너희들은 조선의 장래를 책임지게 될 아들딸이다. 졸린다고 자지 말고 놀고 싶다고 놀지 말고 공부하기 싫다고 책을 밀어두지 말고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한다. 너희들이 공부를 잘해야 우리 나라가 독립된단다.

총독부에서 주는 표창을 전달하려고 서울에서 고관이 내려와 면회를 청하였으나 백 과부는 거절하였다.

어린 시절부터 내가 주장하고 견지해 온 사람 평가에서의 사상본위, 행동본위의 기준은 훗날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투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만일 우리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민족의 총동원을 호소하지 않았더라면 조국광복회 산하에 그처럼 많은 군중이 모여들지도 않았을 것이며 조국통일이 지상의 과제로 나서고 있는 오늘 그처럼 많은 남녘의 민중들과 해외교포들이 민족대단결의 깃발 밑에서 어깨를 겯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부르짖지도 않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사상이나 본심을 보지 않고 신분에 기초하여 부자 일반을 반대하는 데로 나아갔더라면 해방 후 정준택, 강영창, 노태석, 이지찬, 김응삼과 같은 유산자 출신의 지식인들은 우리 나라 정치무대에 등장하지도 못하였을 것이며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데서 그처럼 놀라운 헌신성과 위훈을 발휘하지도 세우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나는 중국의 유산자들도 이와 꼭 같은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대하였다. 이런 관점과 입장이 없었더라면 나는 대지주의 아들인 진한장을 나의 벗으로 삼지도 않았을 것이며 대부호의 자식인 장울화를 우리 혁명조직에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영원한 우정을 맹세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 백두산밀영지구에서 성대히 개막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2월 15일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백두산이 절세위인에 대한 만민칭송의 우렁찬 환호성이 온누리를 진감하며 끝없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이 혁명의 성지 백두산밀영지구에서 성대히 개막됐습니다.

지난해 2월 콜롬비아의 메델린에서 진행된 조선통일지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위원회 특별회의에서의 발기에 따라 백두산밀영지구와 평양에서 진행되는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개막식에는 인류가 낳은 희세의 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안고 대양과 대륙을 넘어 수십개 나라와 지역, 국제기구들에서 온 수많은 외국의 벗들이 참석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조선통일지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위원회 에밀리아 페르난데스 부위원장의 개막사에 이어 이북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대리인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조선위원회 문재철위원장의 축하연설이 있었습니다.

이어 러시아작가동맹 대표 알렉싼드르 브레쥬네프와 네팔시인 디파크샤르마 네우파네씨의 즉흥시들이 낭송되고 백두산선언이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됐습니다.

선언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일**각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인류자주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21세기의 태양이시고 경애하는 **김정일**각하께서 발전풍부화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은 인류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인도하는 백전백승의 영원한 기치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진보적 인류의 성새이고 보루라고 강조했습니다.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고 경모하는 인류공동의 국제회합으로써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에 대한 끝없는 매혹과 그분을 천세만세 받들고 따르려는 진보적 인류의 절절한 지향과 염원에 의해 태양의 성지에서 진행된 것으로해서 그 의미가 매우 큰 것입니다.

우리 겨레는 물론 세계가 공인하는 것처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시고 발전풍부화하시어 우리 시대와 미래 인류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향도이념으로 되게 하신 탁월한 사상이론가이십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주체의 **철학과 철학***으로 민중중심의 정치의 새역사를 펼치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시는 탁월한 정치가, 현대정치의 거장이십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불면불휴의 사상이론활동과 비범한 외교지략,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이시어 인류를 자주위업수행에로 힘있게 이끌고 계시는 세계 진보적 인류의 위대한 영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겨레는 물론 세계 진보적 인류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면서 그분을 무한히 경모하고 따르고 있는 것이고 진보적 인류의 절절한 지향과 염원에 따라 이번에 뜻깊은 태양의 성지에서 역사적인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이 성대히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세계 진보적 인류가 높이 우러러 칭송하며 따르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영수로 모신 것은 우리 겨레와 민중의 더없는 영광이고 행복입니다.

우리 민중은 이 무상의 영광과 행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더욱 높이 우러러 모시고 따르며 그분의 영도밑에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과감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규탄배격받는 부시망발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2월 14일

이 시간에는 ≪날이 갈수록 규탄배격받는 부시망발≫ 이런 제목으로 김현규씨 모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김현규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지금 이 땅에서는 미국대통령 부시의 호전적인 ≪악의 축≫발언을 규탄하고 부시방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날이 흐를수록 더욱 강도높게 울려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한 각계의 투쟁소식 어떻습니까.
김현규 : 부시규탄의 목소리는 한총련을 비롯한 각계 단체들속에서 강력히 울려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9일 오전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은 서울에 있는 미대사관 정문앞에서 부시 미대통령의 ≪악의 축≫발언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는데요. 학생들은 부시가 이북을 ≪악의 축≫이라고 말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7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비난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의 실천을 촉구한뒤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는데요. 참석자들은 연초부터 북과 남이 함께 하는 설맞이행사 등으로 남북간 화해기운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부시미대통령은 북에 대한 ≪악의 축≫발언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했다면서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즉각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회자 :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의 투쟁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김현규 : 그렇습니다. 지난 8일 2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부시미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한반도평화선언≫을 발표했는데요. 연대회의는 애초 3.1절을 맞아 이 선언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부시가 북을 겨냥해 ≪악의 축≫발언을 연발하는 등 한반도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자 부시방한전에 평화선언을 발표하기로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이들이 발표한 ≪평화선언≫은 미국정부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호전적인 발언과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북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평화선언발표와 관련해 신문 ≪한겨레≫는 지난 9일 ≪시민단체의 한반도평화선언≫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는데요.
사설은 ≪자국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미국의 일방주의와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대북강경정책은 한반도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할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입장에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사회자 : 방금 ≪한겨레≫ 사설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와 같은 사설은 ≪노동일보≫에도 실리지 않았습니까.
김현규 : 네, 그렇죠. 지난 8일 ≪노동일보≫는 ≪미국의 전쟁도발 당장 중지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는데요. 사설은 ≪미국은 9.11테러사태이후 저들의 적대국인 북에 대해 연일 난폭한 무법자들이나 할수 있는 무도하고 폭압적인 형태의 폭력성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이는 미국의 독점적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북의 군사력강화를 막으면서 동시에 이번 기회를 미사일방어체제구축전략 등으로 전세계를 자기들의 지배하에 묶어두려는 야망실현의 전술적 고리로 악용하려는데 그 저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아프간에 대한 무력침공으로 탈레반정권을 붕괴시킨 미국은 이제는 무력이면 다 된다는 발상아래 미국과 적대적인 모든 나라에 무력침탈을 더욱 늘이는 위험천만한 망상이 우려된다. 특히 미국의 북에 대한 전쟁도발이 위험스럽다. 만약 미국이 북에 대한 무력행사를 감행한다면 한반도전체가 전쟁터가 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남북에 걸친 우리 민족전체의 생존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에 대해 무력행사를 한다면 그것은 자기들의 국가적 이익과 패권강화를 위해서는 우리 민족전체의 생존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생각이다. 603개 우리 시민단체 전부가 미국의 한반도전쟁정책중단 등을 요구하며 부시방한반대투쟁에 들어가자. 만일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려하면 시민단체뿐 아니라 전국민이 일어나 미국과 싸워야 할 것이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사회자 : 지극히 당연한 호소라 하겠는데요. 각계 민중은 이 땅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와 민족공멸을 초래하려는 부시호전집단의 횡포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총분기해나설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미국이야말로 악의 제국이다

로동신문, 주체91(2002)년 2월 14일

최근 미국대통령 부쉬가 들고 나온 ≪악의 축≫론이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거리로 되여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세계 많은 나라들과 국제여론들이 부쉬의 ≪악의 축≫론의 부당성과 허황성을 비난하고 있으며 여기에 미국의 동맹국들까지 합류해 나서고 있다.

지어 미국내에서도 부쉬의 망발을 두고 반대론의가 분분하다.

부쉬가 귀구멍이 막혀 있지 않다면 내외의 비난의 목소리를 못 들을리 만무하다.

그러나 부쉬는 그것을 귀등으로 흘려 보내며 ≪악의 축≫론을 계속 제창하고 있다. 그는 지난 5일 미국의 플로리다주에 있는 미공군기지에 군복차림으로 나타나 ≪악의 축≫론을 다시금 곱씹었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부쉬가 ≪일반서신연설≫(국정연설)에서 우리의 ≪대량살륙무기의 개발보유≫를 운운하면서 ≪악의 축≫을 이루고 있는 우리 나라와 이란, 이라크가 ≪미국과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망발을 늘어 놓았다. 그는 이 세 나라를 념두에 두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들이 미국을 위협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폭언하였다.

플로리다주의 미공군기지에서 한 부쉬의 망발은 ≪일반서신연설≫의 복사판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는 부쉬가 내외의 항의비난과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악의 축≫론을 올해 미국의 침략적대외정책의 기본으로 내세우려 하는 조건에서 그의 부당성, 허황성, 침략적성격과 위험성에 대하여 강하게 문제시하고 론박하지 않을수 없다.



부쉬의 ≪악의 축≫론은 아무런 리론적근거와 자료적증거도 없는 독설이다.

이것은 부쉬가 백악관의 탁상머리에서 제나름대로 고안해 낸것이다. 그가 우리 나라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게 된 경위를 보자. 원래 부쉬의 두뇌진에서 작성한 ≪일반서신연설≫초안에는 이라크만이 문제시되여 있었다. 그런데 부쉬가 ≪일반서신연설≫초안을 보면서 거기에 우리 나라와 이란을 찍어 넣고 ≪악의 축≫으로 규정하였던것이다. 부쉬는 우리 나라와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을 이루는 나라들≫이라고 ≪일반서신연설≫에 박아 넣었지만 그것을 리론적으로, 자료적으로 론증할만 한 아무런 근거도 내놓지 못하였다.

보건대 부쉬는 론리적사고력과 식견이 없고 무식하며 리론적전개능력이 빈곤한 정객이 분명하다. 그가 대학시절에 머리가 아둔하여 겨우 락제를 면한 사실을 고려할 때 이번에 제창한 ≪악의 축≫론이 어떤것이겠는가 하는것을 짐작할수 있다. 하기는 3점짜리 대통령이 만들어 낸것이 결함투성이의 오작품으로밖에 달리는 될수 없는것이다.

부쉬는 분명히 ≪악≫이 무엇이고 ≪축≫이 무슨 개념인지 똑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악의 축≫이라는 자기 식의 괴이한 엉터리론리를 들고 나온것이다.

부쉬가 우리를 ≪악≫으로 규정한것은 거꾸로 된 론리이며 리치에 전혀 맞지 않는 황당무계한 궤변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와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묘사한것도 허무맹랑한 소리이다. 우리 나라와 이라크, 이란은 그 어떤 동맹적성격의 구성체를 이루고 있지 않다. 우리 나라와 이란, 이라크는 리념상으로 보아도 그렇고 제도상으로 보아도 명백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라크와 이란사이의 관계를 놓고 보아도 두 나라는 20세기 말엽에 있은 8년간의 전쟁이후 아직까지 국가관계를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나라와 이란, 이라크사이에 그 어떤 축도 형성되여 있지 않다는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부쉬가 우리 나라와 이란, 이라크가 ≪악의 실체≫인듯이 묘사한것은 완전히 사실무근거하고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하는 공리공담이다.

부쉬의 ≪악의 축≫론은 그의 무지의 표현이며 정치적문맹자의 잠꼬대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부쉬는 한 나라의 국가수반은 고사하고 일반정치인의 자질도 체모도 갖추지 못한 초라한 위인이며 한치의 앞도 내다볼줄 모르는 청맹과니이다.

국가를 대표하는 지도자라면 식견도 학식도 있고 리론과 주견도 있어야 하며 말 한마디 하여도 무게가 있고 사람들이 납득할수 있는 설득력과 론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부쉬는 무식하고 능력이 없다보니 ≪유일초대국≫의 국가수반의 직분과 체모에 어울리지 않게 아무 소리나 망탕하며 입에서 구렝이가 튀여 나오는지 도깨비가 튀여 나오는지도 모르고 무사분주히 혀끝을 놀려 대고 있다.

부쉬의 장끼는 깡패적, 불량배적기질이며 호전성이다.

사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부쉬가 대통령으로 되는것을 마음에 들지 않아 하였다. 때문에 부쉬는 2000년 대통령선거때 간난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되였고 떳떳치 못하게 가까스로 대통령벙거지를 썼다. 일이 이쯤 되였으면 부쉬는 응당 거기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모든 일에 심사숙고하며 언행을 바로 하고 국가정치를 그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그런데 그의 지난 1년간의 행적을 보면 ≪상



처≫와 오유로 가득 차 있다.

지난해에 있은 미국력사상 류례 없는 ≪9.11사건≫으로 인한 대참변은 부쉬정권의 지나친 강권과 단독주의, 일방주의정책의 필연적산물이였다. 새 세기에 들어 와 미국경제가 빈사지경에 처하고 있는것도 역시 부쉬정권의 경제운영무능력의 후과이다.

부쉬정권의 대외정책과 외교적수완을 우리와의 관계문제만 가지고 고찰하여 보아도 그것들이 얼마나 조폭하고 미숙한것인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부쉬팀은 집권후 우리와의 관계에서 선임자들의 유화적립장과는 달리 강경고압자세로 나간다는것을 보여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우리를 무턱대고 걸고 들며 갖은 악담을 다하였다.

그들은 클린톤정권시기에 우리와 한 모든 합의와 대화를 칼탕쳐 하늘로 날려 보냈다. 그들은 선임자들이 우리를 더는 ≪테로지원국≫, ≪불량배국가≫로 부르지 않기로 하였던것을 백지화하고 우리에게 함부로 ≪테로≫와 ≪불량배≫모자를 씌우는 추태를 부리였다. 그러면서 ≪인권≫, ≪종교≫문제, ≪핵문제≫ 지어는 ≪대량살륙무기개발문제≫, ≪상용무력축감문제≫까지 들고 나오며 광기를 부리였는가 하면 그 무슨 ≪의심≫이 어떻소 ≪약속리행≫이 어떻소 하는 감히 입에 올리지 못할 극히 엄중한 험담도 마구 줴쳤다.

결국 부쉬집권후 조미관계는 완화의 궤도에서 곤두박질하여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되였다.

나라들사이의 관계는 국가적성격과 무게를 가지는것만큼 설사 정권이 교체되여도 계승성과 일관성이 보장되여야 한다.

그런데 부쉬정권은 계승성과 일관성을 다 집어 던지고 조미관계를 극한점으로 몰아 갔던것이다. 그야말로 부쉬정권은 파괴와 대결, 독단과 일방주의로 체질화된 불량배정권이며 악의 정권이다.

사실 부쉬는 ≪악의 축≫론에 대하여 제창할 처지에 있지 못하다.

부쉬가 ≪악의 축≫론으로 미국은 ≪선≫으로 묘사하고 저들과 사상과 가치관이 다른 나라들은 ≪악≫으로 락인하고 힘으로 다스리겠다고 하는것은 거꾸로 된 날강도적론리이다. 부쉬가 자기 편에 서는 나라들은 ≪선≫으로, 그렇지 않는 나라들은 ≪악≫으로 즉 미국식기준으로 세계를 ≪선≫과 ≪악≫으로 제멋대로 가르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테로련합≫은 ≪선의 축≫으로, 저들이 ≪테로≫, ≪불량배≫모자를 씌운 나라들은 ≪악의 축≫으로 규정한것이야말로 정의와 부정의, 진보와 반동을 뒤바꾸어 놓은 악의 교리이다.

세상에서 진짜 악의 제국, 세계최대의 악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의 력사는 악의 력사이며 미국의 대외정책은 악으로 일관되여 있다. 미국이 18세기 인디안들의 피거름우에 솟아 나 침략과 전쟁, 파괴와 략탈, 살륙으로 자기 생존을 유지하고 ≪번영≫의 길을 걸어왔다는것은 부정할수 없는 력사의 진실이다. 미국의 성조기에 새겨진 50개의 별 하나하나는 악의 산물이다. 지난 20세기에 있은 조선전쟁과 베트남전쟁, 그레네이더침공과 빠나마침공, 페르샤만전쟁과 발칸전쟁 등은 례외없이 미국에 의해 감행된 악의 전쟁들이였다. 부쉬의 이른바 ≪악의 축≫론은 곧 악의 침략교리이며 악의 선전포고이다.

모든 악한 짓은 저들이 도맡아 다 하는 악의 제국의 우두머리가 그 누구를 ≪악≫으로 몰아 붙이는것은 관속의 송장도 눈을 뜨고 폭소를 터뜨릴노릇이다.

미국대통령의 국정연설은 미국의 한해 대내외정책적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것이다. 근래에 와서 미국의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주권국가들을 지명하여 침략위협을 가하고 특히 우리 나라를 걸고 들며 공공연히 전쟁폭언을 한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이것은 부쉬야말로 극악한 전쟁광신자이며 불망나니이라는것을 말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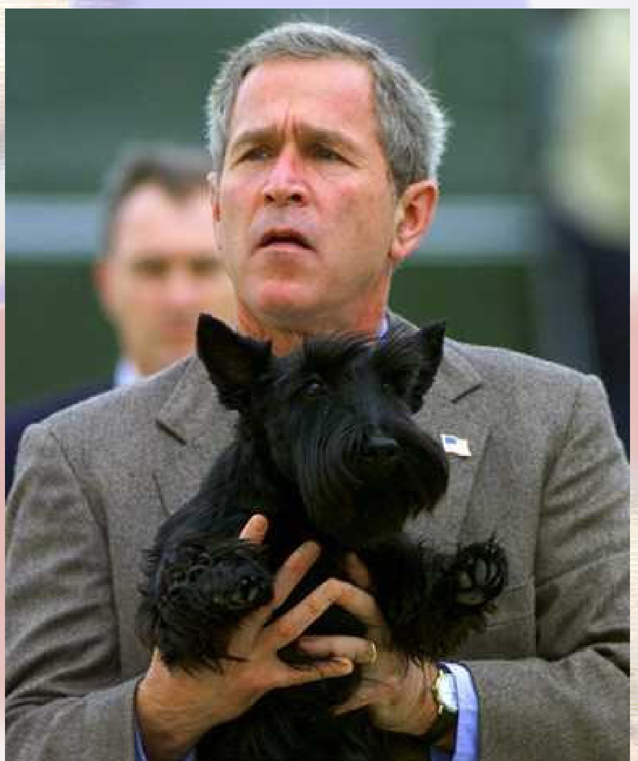
부쉬가 ≪악의 축≫론을 들고 나온 리면에는 이외에도 여러가지 음흉한 목적과 타산이 깔려 있다.

부쉬는 ≪악의 축≫론으로 정치적인 선전적효과를 보려고 타산하였다.

올해 가을에 미국에서는 국회중간선거가 진행된다. 그런데 지금 부쉬팀은 ≪9.11사건≫, 경제적파국, 특대형엔론추문사건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다. 그런가하면 집권여당인 공화당은 국회 상원에서 다수파의 지위를 민주당에 빼앗긴 상태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쉬팀은 국회중간선거를 치르어야 한다. 이번 국회중간선거는 2004년 대통령선거의 향방과 국회 상원의 지위를 결정하는데서 매우 중요하다. 부쉬는 이번 국정연설에서 자기 팀의 강경고압적인 외교자세를 보여 줌으로써 민심을 낚아 국회중간선거의 분위기를 공화당에 유리하게 조성하려 하고 있다.

부쉬는 ≪악의 축≫론을 방편으로 군비확장정책을 강행하고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 까놓고 말하면 부쉬는 군수독점체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백악관의 주인자리를 차지하였다. 부쉬가 미싸일방위체계창설에 극성을 부리는것은 군수독점체들의 리익실현과 밀접히 련관되여 있다. 현 회계년도에 3,000억딸라선을 훨씬 능가한 최대규모의 군사비지출을 하고 있는 부쉬정권은 새 회계년도에 무려 현 회계년도보다 480억딸라의 대폭적인 군사비증액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테로방지≫의 미명하에 미싸일방위체계창설을 본격적으로 추진시킬 립장이다. 이를 위한 구실을 마련하자니 ≪악의 축≫이라는 허구가 필요했던것이다. 부쉬는 ≪악의 축≫론을 내들고 군비를 대대적으로 확장하여 미싸일방위체계개발을 다그치며 군







수독점체들한테서 입은 ≪은혜≫를 갚으려 하고 있다.

부쉬가 ≪악의 축≫론을 들고나온 리면에는 또한 거기에 포함된 나라들을 놀래워 기를 꺾어 놓는 동시에 다른 나라들을 끌어 들여 ≪반테로련합≫을 유지강화하고 ≪반테로전쟁≫을 지구적범위로 확대하며 거기에 끼우지 않는 나라들에 심리적압박감과 위협을 주자는 계책이 숨어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전쟁후 ≪반테로련합≫이 깨여 지고 이로 하여 저들의 ≪반테로≫전략이 파산될가봐 몹시 우려하고 있다. 이로부터 미국은 ≪악의 축≫론을 내들고 세계 여러 나라들을 ≪반테로련합≫에 더욱 얽어 매고 ≪반테로≫전략을 계속 강행추진하여 저들에게 맞서는 나라들을 무쇠주먹으로 다스리려 하고 있다.

부쉬가 우리 나라를 ≪악의 축≫으로 규정한것은 우리 공화국을 21세기의 ≪주적≫으로 ≪반테로≫전략과 ≪십자군원정≫의 주요 공격목표로 삼는다는것을 공공연히 선포하고 정면으로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 온것으로 된다. 미국의 최고권력자가 직접 나서서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은 전쟁선언을 한것은 극히 엄중한 사태발전이 아닐수 없다. 그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데 이어 그리고 남조선행각을 앞두고 반공화국전쟁폭언을 거리낌없이 한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력사에 ≪평화의 해≫로 정해 진 전례는 있어도 ≪전쟁의 해≫로 규정된 전례는 없다. 미국의 력대 대통령들가운데서도 한해를 ≪전쟁의 해≫로 규정한 인물은 없다. 부쉬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것은 올해에 침략전쟁을 국가정책의 중심과제로 내세우고 여기에 모든것을 지향시키겠다는 소리이다. 이러한 그가 우리 나라를 ≪악의 축≫으로 락인한것은 아프가니스탄전쟁의 불길을 조선반도로 옮기려는 기도를 그대로 드러내놓은것이다.

우리는 ≪일반서신연설≫에서 ≪악의 축≫론을 내든 부쉬가 며칠안으로 남조선을 행각하게 되는데 대하여 경계하지 않을수 없다. 20세기 50년대 초 전쟁상인 덜레스가 미국대통령특사의 자격으로 남조선을 행각하여 전쟁도발준비상태를 최종검증하였다는것은 력사에 기록되여 있다. 더욱 위험한것은 미군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서 전쟁명령권을 행사하는 최고집권자가 직접 현지에서 전쟁도발준비상태를 최종검증하게 되는것이다. 이른바 ≪악≫을 물리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부쉬의 남조선행각에 무엇이 뒤따를것인가 하는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

지금 미제는 아프가니스탄의 타리반세력을 붕괴시키고는 ≪승리≫의 현훈증에 사로잡혀 기고만장하여 전쟁광기를 부리고 있다. 사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전쟁은 거인과 난쟁이와의 싸움이였다. 타리반정권은 합법적인 정권도 아니고 군사적힘이 보잘것 없는 정권이였다. 타리반은 하나의 정치세력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령토상으로나, 세력상으로나, 군사력규모와 수준으로 보나 하늘땅차이인 타리반세력을 첨단무기와 현대적군사작전원리와 전법을 다 동원하여 무려 약 60억딸라의 재정적손실을 보면서 꺼꾸러뜨리고는 범 잡은 포수마냥 기가 승하여 날치고 있다.

우리 나라는 미국이 지금까지 무력간섭과 전쟁유희를 한 나라들과는 전혀 다르다.

그런데 정치적감각과 판단이 무디고 현실을 볼줄 모르는 부쉬호전세력은 우리에 대한 파악과 인식을 똑바로 가지려 하지 않을뿐아니라 조선전쟁의 후과문제를 깊이 음미해 보려 하지 않고 우리에게 함부로 전쟁을 걸어 오고 있는것이다.

그들의 이러한 전쟁광기로 조선반도정세는 극도로 긴장해 지고 있으며 전쟁폭발이 시간을 다투며 림박해 지고 있다. 사태는 날로 험악해 지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군대와 인민이 고도의 경각성과 긴장성을 가지고 적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전쟁태세에 만전을 기할 때이다.

우리 인민은 노예적평화를 바라지 않으며 자주성이 짓밟히는것을 추호도 허용하지 않는다. 조선이 없는 지구는 필요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립장이다. 사생결단으로 침략자들과 최후결판을 짓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려는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더욱 확고해 지고 있다.

우리는 배심이 든든하며 그 어떤 대적과 그 어떤 형태와 방식의 전쟁도 승리적으로 치를수 있는 전법과 수단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위력과 전쟁방식앞에서 부쉬의 ≪악의 축≫론은 파산을 면치 못할것이며 미제침략자들은 조선에서 까마귀밥이 되고 말것이다. 20세기의 조선전쟁은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와 반제민족해방혁명의 새로운 앙양의 시대를 열어 놓았다면 21세기의 조선전쟁은 미제의 멸망을 결정 짓게 만들고 조선의 통일번영과 세계자주화의 새 시대를 열어 놓을것이다.

부쉬는 침략과 전쟁선언인 ≪악의 축≫론을 집어 던져야 하며 세계를 전쟁의 불길속에 몰아 넣으려는 무분별한 광증을 걷어 치워야 한다. 이것이 그 자신과 미국을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할수 있는 선택으로 된다.

북 미사일 해법, 경제 보상에 달렸다

평화네트워크 정책제안 보고서에서 밝혀



≪악의 축≫ 발언으로 한반도 정세를 긴장으로 내몰고 있는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해법을 제안하는 정책보고서가 나왔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평화네트워크)는 14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대한 해법≫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수출문제≫, ≪북한의 미사일 개발문제≫, ≪제네바 합의 이행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제안을 했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비판한 데에는 미국의 식량지원,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수출과 대량살상무기를 계속 생산해왔다는 의심에서 비롯된다.

북한 미사일 수출문제 해법은 경제적 보상에 달려 있다.

정책제안서는 ≪북한이 적절한 보상만 이뤄질 경우 미사일 수출을 기꺼이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거듭 밝혀오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북한의 미사일 수출은 극심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외화벌이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사일 수출을 막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미국이 북한의 ≪주권행사≫인 미사일 수출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보상이 따라야 한다.

이에 대해 정책제안서는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중단시키는 조건으로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끼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미국이 우려하는 미사일 확산 및 대량살상무기 재원확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고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해법은 부시행정부의 대안제시가 관건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미국 및 동맹국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강조하면서도 MD 구축을 비롯한 군사력 강화 이외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 북한은 북미 미사일 협정의 지속적인 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부시 행정부가 협상에 임할 경우 중단거리 미사일을 포기할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정책제안서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문제와 관련하여 ≪부시 행정부가 MD 구축의 명분을 잃지 않기 위해 북한 미사일 문제 해결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부시 행정부가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클린턴 행정부 때 북미간의 미사일 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네바 합의 이행문제는 북-미간 정치적 타협 필요

북미관계의 기본틀(Agreed Framework)은 94년 10월에 맺은 북미 제네바 합의에 있다.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조기 핵사찰 수용을 계속 주장해온 미국과 경수로 지연에 따른 전력손실 보상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북한이 수용 불가로 맞서고 있어 94년의 한반도 전쟁 위기 상황이 재현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정책제안서는 ≪제네바 기본합의문에는 현재 북-미가 주장하는 경수로 완공연도의 지연에 따른 전력손실 보상이나 조기 핵사찰에 대한 의무조항은 없다≫며 ≪북한의 조기 핵사찰 수용과 한-미-일의 전력보상을 교환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이러한 문제 외에도 북한의 생화학무기 및 재래식 군사력 등 북한의 모든 군사력에 문제를 삼고 있다.

정책제안서는 ≪북한의 화학무기가 위협적인 것은 이를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은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을 CWC에 가입시키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서는 생물무기에 대해 북한은 생물무기를 연구개발단계에서 본격적인 제조 및 생산으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점과 생물무기금지조약(BWC) 회원국이란 점을 들어 ≪부시 행정부가 BWC 검증의정서 채택을 비롯해 다자간 문제해결 방식에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 밖에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문제를 문제삼는 것은 시기 상조라고 전하고 있다.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은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줄이는 것과 함께 이들 무기를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느끼는 위협 역시 해소할 수 있는 비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철 기자 redfaith@hanmail.net

≪선 무기포기≫는 제네바합의 위배

미국은 왜 ≪상호주의≫ 외면하는가

부시 행정부의 대북 메시지가 분명해지고 있다. 이는 북한이 먼저 대량 살상무기를 포기하고 휴전선에 배치된 군사력을 뒤로 물리면, 미국은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시작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미국의 이같은 주장은 언뜻 합리적인 방안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그러나 곱씹어 보면 이는 힘을 앞세운 ≪일방주의≫에 다름 아니라는 점에서 부시 행정부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려는 의지가 강하지 않음을 간접적이만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조건부≫ 경제교류론에 대해 한국의 언론과 김대중 정부가 덩달아 고무되고 있다는 점이다. 부시와 회견한 중앙일보는 사설 및 칼럼을 통해 ≪이만하면 북한에 보낼 부시의 신호는 충분했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 당국자들 역시 ≪굿 뉴스, 굿 메시지≫라며 부시 대통령이 직접 북한에 반대급부를 제시한 것에 대해 고무된 분위기이다.

이는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코앞에 두고,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공조가 부시 행정부의 주도권하에 이뤄질 것임을 강하게 암시하는 대목들이라고 할 수 있다.

부시는 ≪제네바 합의≫ 정신을 무시하려는가?

사실 부시가 밝힌 ≪先 무기 포기, 後 경제교류안≫은 미국 내 매파가 오랜전부터 집착해온 대북정책의 골격이다. 1993-94년 북미 핵협상 당시에도 공화당과 국방부 등 강경파는 북한의 핵투명성이 완전히 보장된 다음에야 반대급부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당시 미국 강경파의 이러한 입장은 북미 핵협상이 질질 끌리게 되고 94년 5-6월에는 전쟁 위기가 고조되었던 중요한 배경이었다.

당시 이와 같은 미국내 강경파의 주장에 대해, 북한은 물론 미국의 온건파와 언론조차도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이었다. 북한이 ≪먼저≫ 핵투명성을 완전히 보장할 경우 미국이 반대급부를 성실히 제공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핵문제가 풀리면, 미국은 다음조건으로 미사일, 인권문제, 생화학무기, 테러리즘 포기문제 등을 내세울 것으로 봤던 것이다. 북한이 핵협상 당시 포괄적인 일괄타결 즉 북한과 미국이 하나씩 양보하면서 완전한 문제해결로 가는 방식에 집착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제네바 합의≫는 북미간의 이러한 입장차이의 타결점이다. 북한은 미국의 약속 이행과 보조를 맞춰 점진적으로 핵사찰을 수용하고, 미국은 북한의 핵사찰 수용 단계에 따라 대체 에너지의 지원 및 체제안전보장, 그리고 외교관계의 정상화를 밟아 나가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협상 방식은 제네바 합의를 ≪북미기본합의≫로 부르는 것처럼, ≪북미관계의 기본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이러한 제네바 합의 정신을 무시하고 있다. 핵문제에 있어서 북한이 사찰을 수용하지 않으면, 경수로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북한의 완전한 핵투명성을, 경수로 사업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거의 완공된 시점에 보장받기로 한 클린턴 행정부의 약속을 무시하고, 먼저 핵사찰을 받으라는 주장인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태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제네바 합의 이행 문제도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북한의 미사일 및 재래식 군사력까지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미사일 문제의 경우 클린턴 행정부때 유망한 협상 타결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면서까지 북한에게 먼저 포기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재래식 군사력 문제에 있어서는 남한의 군사력 및 준비태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 및 감축(혹은 철수)에 대해서는 한미 정부가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먼저 뒤로 빼라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북한이 먼저 ≪무장해제≫하면 반대급부를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주의≫를 말로만 하지 마라

부시 행정부는 물론이고 보수언론과 한나라당 등이 대북정책에 있어서 단골메뉴처럼 들고 나오는 것이 ≪상호주의≫이다. 이들은 김대중 정부가 북한에게 퍼주기만하고 실질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줄이는데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직간접적으로 대북 포용정책을 비난해 왔다.

김대중 정부가 욕먹을 만큼 북한에 퍼주고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상호주의 신봉자≫들이 상호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들이 말하는 상호주의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군축 및 군사적 위협을 줄이면, 경제적인 반대급부를 고려하겠다는 수준이다.

여기에는 북한의 안보딜레마를 어떻게 해소할지, 즉 북한의 군사



력 감축에 맞게 한.미.일 대북공조체계가 어떻게 북한에 대한 위협 및 군사력을 줄여 나갈 지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가 없다.

군사적 측면에서 볼 때 ≪상호주의≫를 무시하고 있는 쪽은 오히려 한국과 미국 정부이다. 북한측에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군사력을 뒤로 빼라고 요구하면서, 한미 연합전력, 즉 주한미군 및 남한군의 전력은 오히려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에게 미사일 ≪수출≫을 포기하라고 압박하면서 미국은 남한에 1조 7천억원 규모의 에이템크스 지대지미사일 및 2조 4천억원 규모의 패트리어트 최신형 수출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북한에게 미사일 자체를 포기할 것을 종용하면서 북한 미사일 위협을 근거로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을 강행하고 남한 정부 역시 사실상 여기에 편입되고 있다.

또 미국은 북한에게 핵무기 투명성을 강요하면서, 북한의 핵시설을 비롯한 지하시설 파괴용으로 핵무기 장착을 검토하고 있고, 제네바 합의에 따라 약속한 ≪핵무기 사용 및 사용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것 역시 재확인하지 않고 있다.

도라선역에 서서

김대중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의 최대 이벤트로 부시 대통령과 함께 경의선 도라산역 방문 및 연설을 준비하고 있다. 한반도 분단을 상징하는 비극적 장소인 동시에 남북한간 화해를 위한 소중한 노력을 상징하는 현장을 방문해 부시 대통령으로 하여금 전쟁의 비극과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에 있다. 도라선역에서 부시가 북한에게 보낼 메시지는 자명해 보인다. 즉 ≪언제, 어디서도, 조건없는 대화를 하겠다.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를 포기하고, 휴전선 배치 군사력을 후방으로 이동시킬 경우, 경제교류를 시작하겠다.≫ 정도가 아닐까?

그러면서 한미 정상은 ≪이제 정말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며, 북한측에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한미 정상이 북한에게 보낼 공은 ≪바람 빠진 공≫인 셈이다. ≪대화와 협상≫이라는 경기를 하기에는 부적합한 ≪공≫인 것이다. 이는 자칫 부시의 ≪악의 축≫ 발언에 면죄부를 주고, 나아가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게 될 공산마저 있다.

한미 정상이 도라산역에서 북한측에 보낼 ≪공≫이라면 그 공은 ≪재질≫이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북한과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대화를 원한다. 우리는 먼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법에 큰 기여를 한 제네바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북한이 요구하는 전력 보상과 미국이 요구하는 조기 핵사찰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는 방안을 놓고 협의하기를 원한다.

미사일 수출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현금이 아닌 현물 보상을 수용할 경우 우리는 북한의 식량난 및 전력난 해소 차원에서 협력할 의사가 있다. 또한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생산, 폐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클린턴 행정부 때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진지한 협상을 벌이기를 원한다.

재래식 군사력의 후방 배치 문제 역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지금부터 논의하기를 희망한다. 재래식 군사력 문제는 남북한 모두 휴전선 인근에 집중 배치한 병력 및 장비, 주한미군 등과 밀접히 연관된 문제이므로 남북한과 미국 당국이 참여하는 별도의 대화틀을 만들자고 제안하고자 한다.≫

김대중 정부 스스로도 강조하고 있듯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중요성은 실로 역사적이라고 할 만큼 크다. 단순히 부시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립서비스를 받는다고 해소될 위기 상황이 아닌 것이다.

더욱 중요하게는 ≪북한의 先무기 포기≫, ≪미국의 後경제교류≫에 기반을 둔 한미공조 방안에 끌려 들어가서도 안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을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도 없는데다가, 실제로 위기가 악화될 경우, 북한이 부시측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는 명분을 부시 행정부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욱식 기자 civil@peacekorea.org

부시는 전쟁 부르는 ≪죽음의 상인≫

≪진단≫ 그가 ≪최악의 환대≫ 무릅쓰고 방한하는 목적

조지 W. 부시 미합중국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의 초청으로 2월 19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청와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김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동맹관계 공고화와 대북정책 공조 강화, 9·11 테러사태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 과정에서의 협력방안 등 양국간 공동 관심사에 관하여 협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50여 년 동안 ≪혈맹관계≫를 유지해온 한미 관계에 비추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전례없는 ≪최악의 환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그런 조짐은 각계각층에서 나타나고 있다.

방한 전날인 2월18일 ≪한총련≫ 학생들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빌딩 45층에 있는 미국의 기업이익을 상징하는 미 상공회의소를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이들이 농성현장에서 발표한 성명의 제목은 ≪전쟁위협, 무기강매, 내정간섭의 장본인 부시 방한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 서울 세종로 미 대사관 앞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부시의 방한을 반대하는 릴레이 시위가 계속되었으며, 서울 명동 YWCA 강당에서는 각계 인사들이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즈음한 700인 평화선언≫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극적인 장면은 이른바 ≪민의의 전당≫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벌어졌다. 한 국회의원이, 그것도 여당 의원이 국회에서 미국 대통령을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아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시키려는 ≪악의 화신≫≫으로 규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50여 년 동안의 한미 동맹관계사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다.

그래서 한미 양국은 부시 방한일정 상의 경호를 대폭 강화하고 있지만 어쩌면 부시는 ≪한국≫에서 꽃다발 대신에 달걀세례를 받는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한,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부시 자신의 발언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시 대통령이 이처럼 뻔히 예상되는 ≪최악의 환대≫를 무릅쓰고 방한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우선 흥미를 끄는 것은 군사정보 전문사이트인 ≪디펜스코리아≫(defence.co.kr)가 부시 대통령이 방한을 앞두고 대북 강경발언을 하는 배경을 짚어본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다.

2월 2일~5일 동안 실시해 1300명이 응답한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네티즌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테러 확전 목록에 급작스레 북한을 포함시켜 긴장을 고조시킨 목적을 묻는 질의에 △≪한국≫에 대한 무기구매 압력용 51% △≫엔론사태≫ 물타기 작전 31% △북한 길들이기 15% △기타 3% 등으로 응답했다.

인터넷 여론조사라는 한계는 있지만, 이 설문조사는 일반 네티즌이 아닌,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번만 투표가 가능하도록 한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조사결과에서 주목되는 점은 부시의 ≪악의 축≫ 발언 배경과 관련해 ≪한국≫의 F-X(차세대전투기) 사업이 그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즉 디펜스코리아는 ≪(미국이 ≪한국≫ 공군에 팔려는) F-15K는 단종 우려 등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불리한 반면, 단기적으로 볼 때 경쟁기종에 비해 ≪한국≫이 가장 빠르게 도입하고 전력화할 수 있는 기종이기에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수록 선정에 유리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부시의 대북 경고발언은 ≪대북용≫이 아니라 미국 국내문제와 한미관계용이라는 것이다.

방한을 앞둔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이 ≪한국≫의 F-X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은 미국 내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미국 국제전략연구소(CSIS)의 한 보고서는 미국이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에 F-15 전투기 대대를 배치했으며,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의 공군력 증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정상회담의 모양새를 고려할 때 부시 대통령이 직접 F-15K 전투기 구매압력을 가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러나 F-15K의 제작사인 보잉이 공화당의 주요 자금줄인데다가 보잉사는 지난해 2000억 달러에 이르는 미 국방부의 신형 최첨단 전투폭격기 도입사업인 JSF(Joint Strike Fighter) 사업을 두고 벌인 계약경쟁에서 록히드 마틴사에 패함으로써 F-15 공장문을 닫지 않으려면 ≪한국≫ 시장 진출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활을 건 로비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JSF는 미 공군의 F-16과 A-10, 해군의 F-14, 해병대의 해리어기를 대체하게 되는 만큼 탈락한 업체는 향후 10년 안에 전투기사업에서 손을 떼야 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다).

부시 대통령 일행의 방한단 가운데 피터 로드맨 국방부 국제안보차관보가 포함된 점이라든가, 최근 ≪친미≫적 발언을 보여온 김동신 국방장관이 갑자기 확대정상회담에 배석자로 포함된 점 등이 이런 ≪추정≫을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물론 이번 방한에서 부시는 그 동안 북한에 대해 줄기차게 요구해온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중단과 미사일 개발 및 수출 포기 그리고 재래식 무기의 후방 재배치를 북한의 목전에서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WMD는 말할 것도 없고 미사일만 해도 북한은 미국과 ≪게임≫이 안되는 실정이다.

이를테면 START(전략무기감축협정) I 조약 양해각서(2000. 1. 1) 상의 전략핵 탄두는 미국 7763개, 러시아 6998개이고,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과 SLBM(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탄두는 미국 6185개, 러시아 6146개인 반면에 미 CIA 정보에 따르더라도 북한은 겨우 핵무기 1~2개를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한 정도일 뿐이다.

또 최근 갑자기 현안이 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수출 문제만 해도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전략핵 운반기구를 비교하면, 미국은 이미 작전 배치한 1451개로도 부족해 이른바 MD라는 ≪미사일 잡는 미사일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데 반해 북한은 이제 겨우 1기를 발사 시험한 ≪개발 단계≫에 있는 정도다.

지금 부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MD를 구축하고, 남한에 대해서는 최첨단 무기를 팔려는 한편 북한에는 또 재래식 무기를 감축하라고 억지를 쓰고 있다. 부시를 두고 두 얼굴의 ≪죽음의 상인≫으로 부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김당 기자 dangk@ohmynews.com

최근 여론조사 결과로 본 국민들 반미감정

≪≪악의 축≫ 발언 무기구매 압박용≫ 70%
≪북-미 체육경기할 때 북한 응원≫ 80%

연초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한 발언을 한 이후 한반도에 ≪반미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50년 동맹국≫을 자랑해온 한반도의 남쪽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문제는 최근의 반미감정 확산 분위기가 그간 단발적으로 있어왔던 과거의 ≪반미≫와는 그 강도와 성질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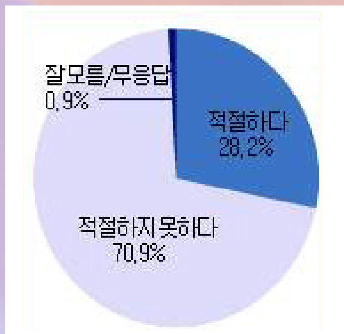
우선 최근 ≪한국≫사회에 몰아친 ≪반미≫는 예전에 비해 계층, 지역,성별을 떠나 고르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과거 재야 학생운동권에 국한됐던 ≪반미≫ 의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최근 몇몇 언론사가 발표한 일련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서 뚜렷하게 감지된다.

≪오마이뉴스≫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방한에 즈음해 문화일보 · SBS, MBC, 민주당 정세분석국, 한겨레 여론조사팀, 한길리서치 등이 국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우선 문화일보가 SBS와 공동으로 지난 2월15-16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과 관련 응답자 가운데 20.6%가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적절한 발언이다≫라고 답한 반면 73.1%가 ≪남북관계 및 동북아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부적절한 발언이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10명 중 무려 7명 이상이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문화방송도 2월18일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악의 축≫ 발언으로 불거진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대해 ≪옳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24%에 머무른 반면 ≪옳지 않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무려 67%에 달해 반미감정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을 가늠하게 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가 2월6-7일 양일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70.9%(다소 적절치 못했다-41.8%, 전혀 적절하지 못했다-29.1%)였다. 이 같은 반응은 연령층으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젊은 층(20대-85%, 30대-81.5%)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공무원(93.1%), 사무전문직(87.4%), 자영업(84.7%), 학생(83.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악의 축≫ 발언이 적절했다고 동의한 응답자는 28.2%(매우 적절-7.9%, 다소 적절-20.3%)에 그쳤다.



부시의 <<악의 축>> 발언, 적절한가

이같은 국민들의 부정적인 대미 인식이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더욱 증폭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한겨레 여론조사팀이 지난 4-5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2.8%, 민주당 정세분석국의 7일 ARS 조사에서도 56.4%의 응답자들이 ≪악의 축≫ 발언에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부시 방한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도 ≪반미 감정≫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급속히 증가한 것이다.

부시발언 부정적 인식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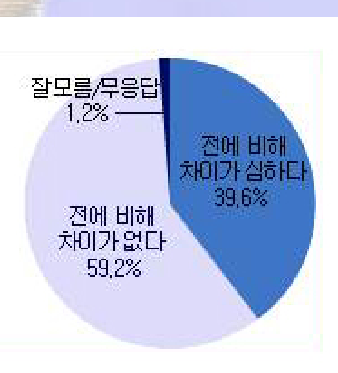
그렇다면 이 같은 ≪반미감정≫의 격화 요인은 무엇일까? 우선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악의 축 발언의 ≪불순과 배경≫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다.

문화일보와 SBS가 공동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부시 행정부의 강경발언이 무기구매 압박용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응답이 69.8%(매우공감-27.3%, 어느정도 공감-42.5%)에 이르는 등 이후 우리 나라 공군이 추진중인 차세대 전투기사업(FX)에서 미국 전투기를 구매하도록 압박하려는 측면이 있다는 부분에 상당수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방송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부시 대통령이 대북강경노선을 펴는 이유에 대해서 ≪무기판매 등 미국의 경제이익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전체 63%를 차지하고 있는 등 미국에 대한 반미감정을 표출되어 있음을 드러냈다.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국민 10명 중 6명은 부시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배경은 ≪미국 국내 정치용≫이라고 인식했다. ≪악의 축≫ 발언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0.1%가 ≪엔론사 파산, 중간 선거 등 미국 내 상황과 MD구축 정당성을 의식한 부시정권의 이해에서 비롯됐다≫고 대답했다.

이처럼 ≪악의 축≫ 발언이 자국의 이익에 깊이 천착해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 발언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즉 국민들이 느끼는 ≪전쟁체감기온≫의 증대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또 부시의 악의축 발언은 햇볕정책에 따라 긍정적 여론을 자극하고, 나아가 남북문제에 대한 내정간섭으로까지 비쳐지고 있는 상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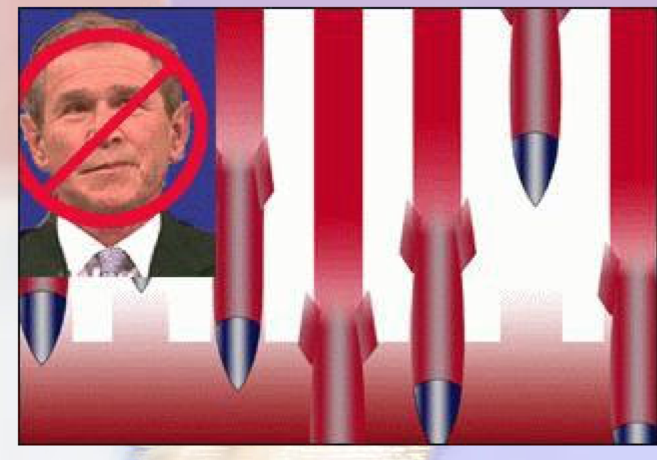


대북 강경발언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위기감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가

실제로 한길리서치의 설문조사 결과 부시 미국 대통령과 미 고위 관리들의 잇단 대북 강경발언으로 ≪전쟁 위기감≫을 느끼는 국민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 강경발언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위기감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52.2%의 응답자가 ≪전에 비해 차이가 없다≫고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지만, ≪전에 비해 전쟁 위기감을 심하게 느낀다≫는 응답자도 39.6%에 달해 다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국 이해 위해 한반도 전쟁불사?



또한 ≪부시 대통령의 방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57.2%)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57.2%는 ≪대북 햇볕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총재의 대북정책을 비교할 때 각각 지지도는 44.0%: 32.9%로 김 대통령의 대북정책 지지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문화일보와 SBS가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변함없이 추진≫이 21.2%, ≪일부 수정≫이 47.4%로 응답자의 68.6%가 햇볕정책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5.4%의 응답자만이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민주당 지지도가 최근 여론조사 결과 지난 12월 19.9%보다 3.1%포인트가 상승한 23%로 나타난 것도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 데 대한 공감 여론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9.11테러 이후 미국의 대북강경론에 대해 36%에 달하는 국민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과는 달리 최근 들어 부시 정부의 ≪악의 축≫ 발언과 관련해서는 ≪부적절 했다≫고 답한 국민이 73.1%에 이른다는 점에서 볼 때 부시의 발언이 대다수 우리 국민에게 부정적으로 자극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최근 일련의 사태와 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국민들의 대북관과 대미관의 변화도 감지된다. 과거 미국은 ≪혈맹≫, 북한은 ≪주적≫이라는 과거 냉전론적 이분법이 와해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가능하다.

문화방송 18일자 여론조사에서 미국이 북한을 무력 공격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공격을 반대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83%로 많았다. 또한 북한과 미국이 스포츠 경기에서 대결한다면 10명 중 8명이 북한을 응원하겠다고 대답한 것은 최근 미국 2002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남자 1000m 경기에서 발생한 심판 판정의 ≪공정성≫ 시비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반감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 해석해도 무관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 각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를 취합해 볼 때 최근 확산되고 있는 ≪반미감정≫은 자국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한반도의 전쟁까지 불사르고, 내정간섭을 일삼는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반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경향이 일회성에 그칠지, 또 ≪한국≫의 대미외교정책에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신필경 기자 scoop21c@hanmail.net

전국 9개도시, ≪부시방한반대≫ 한 목소리

16일 9개 대도시 동시다발 반미시위 진행

≪부시방한반대≫의 구호가 주말 거리를 뒤흔들었다. 부시 방한을 사흘 앞둔 2월 16일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전국 9개 도시에서 동시다발 반미시위가 진행되었다. 이날 열린 집회는 부시의 ≪악의 축≫발언 이후 범국민적인 반미감정이 들끓어오르는 속에서 열린 것이어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 집회 참가자들은 19일로 예정된 부시방한을 범국민적 반미여론을 모아내는 장으로 만들 것을 결의하였다. 전국 주요 도시의 집회 소식을 정리해본다.

서울, 1천여명 모여 부시방한저지 결의대회

16일 오후 3시 서울 종묘공원에서는 ≪한반도 전쟁책동,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6.15 남북공동선언 파탄내는 부시방한 저지를 위한 서울지역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 각계 사회단체와 대학생 약 1천여명이 참가하였다.

이 자리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서울시연합 김규철 의장은 ≪얼마전 내일신문이 진행한 부시 방한과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대다수의 국민이 부시 방한을 반대하고 있으며, 남북의 통일을 위해 대북강경정책의 조속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결과가 나왔다. 전 국민이 힘을 모아 부시 방한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통일연대 이천재 대표는 ≪지난 해 북미공동성명을 통해 북미간 관계 정상화를 선포한 마당이며,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남북이 화해와 협력의 기운으로 나가는 시기, 부시의 대북 강경 발언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행위이다≫라며 부시 미 대통령을 규탄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용산지부 이호영 위원장은 ≪91년 용산기지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지금은 아파트를 짓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한반도 영구주둔을 꿈꾸는 것이다≫라고 말했고 한미투자협정 · WTO 반대 국민행동 소속 이종회 씨도 ≪현재 부시 미대통령은 한반도의 통일을 방해할 뿐 아니라 한미투자협정, WTO 수입개방을 강요하며 우리 민중들을 궁지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종묘공원에서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부시 미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대형 현수막과 가면, 부시 미 대통령을 비판하는 각종 개사곡 등이 선보여 많은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으며 국내 대부분 언론사와 미국의 ABC, 일본의 NHK 방송사, AFP, 로이터 등 해외 통신사들이 열띤 취재경쟁을 펼쳤다. 또한 결의대회를 지켜본 많은 시민들은 연설자들의 주장을 듣고 박수를 보내는 등 부시 방한을 반대하는 의지를 전달했다.



부산, 부산역에서 부시방한 반대 시민대회

16일 오후 2시, 부산역에서는 ≪전쟁반대 · 평화실현 · 대북강경책철회! 부시방한 반대를 위한 부산시민대회≫가 열렸다. 부산통일연대와 부산민중연대(준)의 주최로 열린 이날 대회에는 노동자, 농민, 학생 등 각계각층의 시민 2백여명이 참여하였다.

집회에서 범민련 부경연합 서상권 의장은 ≪민족 단합과 통일을 가로막는 부시방한을 앞두고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는 우리민족의 협력과 의지로 풀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알리기 위해 모였다≫고 대회의 취지를 밝혔다.

집회자들은 이 자리에서 부시대통령에게 △군사패권주의 중단하고 전쟁확대 중단 △대북강경정책 철회 한반도 전쟁 책동 중지 △엠디 강요, 전쟁무기 강매행위 중단 △한미투자협정 등 경제주권침해 행위 중단을 요구하였다.

집회자들은 화형식과 총결의발언을 끝으로 집회를 마치고 남포동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하였다.



광주전남, 민중연대 주최 반미결의대회

16일 오후 3시 광주에서는 ≪평화위협 · 내정간섭 · 경제침탈 부시방한저지 반미결의대회≫가 열렸다. 광주전남 민중연대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노동자 농민 각계 사회단체와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집회에서 전광훈 전 의장은 ≪미국 군수자본의 돈벌이 때문에 7천만 겨레의 분열을 일삼는 부시의 방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윤영민 본부장은 ≪공기업 대부분 50%이상의 자본이 외국자본이며, 이것마저 민영화, 사영화 하려고 한다. 이는 우리 경제 주권이 미국 손아귀로 들어가고 있는 증거다≫며 ≪노동자에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농민에겐 수입개방 압력을 하는 미국의 경제 침탈을 저지하자≫고 말했다.

결의문에서는 집회자들은 ≪미국의 MD체제에 남한을 편입시키고 이미 단종되어 고철이 되어버린 보잉사 F-15기 구매를 강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방한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방한이다≫며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하고, 또한 김대중 정부에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집회 참가자들은 광주 밀리오레를 거쳐 도청까지 시가 행진을 진행하고, 부시 허수아비 화형식을 전개하기도 했다.

대구경북, 동성로에서 부시방한반대 결의대회

16일 대구 동성로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침탈 · 대북강경책동 전쟁주범 조지부시 방한 반대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각계 시민 300여명이 모여 부시의 대북강경발언에 대한 분노를 모았다.

집회는 풍물 길놀이와 학생들의 문예공연으로 시작되었다. 집회에서 대구경북 민중연대 함철호의장은 ≪전세계 수많은 민중들이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죽어나가고 있다. 미국이야 말로 주변국가를 괴롭히는 ≪악의 축≫같은 존재이다.≫라고 말했다. 대구경북청년 연석회의 이진상 조국통일실장은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 규정했지만 미국이야말로 무기 · 핵폭탄이 가장 많은 나라다.≫라고 미국을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청소년 문화센터 ≪우리세상≫의 수화공연이 무대에 올라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수화공연을 마치고 미국의 전쟁책동과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대표해 전국민주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이정림 의장의 연설이 이어졌다. 규탄선언문 낭독으로 본 집회를 마치고 집회참석자들은 한 시간 가량 거리선전전을 진행하였다.

대전지역, 부시방한저지 천막농성중

지난 15일부터 대전역에서는 대전충남통일연대 주최로 ≪전쟁반대! 평화실현! 부시방한 저지 천막농성≫이 진행되었다. 농성에 참가한 단체는 목원대 등을 비롯한 4개 대학과 통일연대 소속 23개 단체 등 총 38개에 이르고 있다. 농성단은 천막농성을 비롯하여 유인물 배포 · 거리선전전 · 1인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부시방한저지의 당위성을 알렸다.

전민특위(미군학살만행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대전충남본부 박희인 사무국장은 ≪부시는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이북을 ≪악의 축≫이라 발언했다. 이는 미국무기를 우리 나라에 팔려는 음모의 연장선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음모를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라고 그 의의를 밝혔다.

농성은 20일가지 진행되었다.

종합 정리 : 윤혜진 기자 2002년 2월 21일
6.15주간 편집부

10개사회단체 부시방한반대 농성돌입



전국민중연대(준),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등 10개 사회단체들은 부시 미대통령 방한 예정일을 하루 앞둔 18일 광화문 열린 시민마당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발언을 일삼는 부시 대통령의 방한 반대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부시, 우리는 너를 환영하지 않는다≫ 등 부시 방한 반대의 입장 적어놓은 피켓을 들고 부시의 ▲대북 강경 정책 철회 ▲MD강요, 무기강매 중단 ▲6·15공동성명 실현 방해 책동 중단 ▲한미투자협정 폐기 등을 요구했다.

자통협의 홍근수 목사 등 사회단체 대표자 3명은 이들의 뜻을 담은 항의서안을 미 대사관에 전달하려 했으나 전경들은 ≪미대사관의 공식적 휴일이라 항의서안 전달도 못할텐데 왜 가려고 하냐≫며 이들의 길을 가로막았다.

이들은 ≪전달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일인데 전경이 가로막는 것은 월권≫이라며 강하게 반발, 전경과의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박진영 대표(청년통일광장)등 2명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소파개정국민행동 공동대표인 문정현 신부는 부시반대 발언 도중 지난 1월 부시 대통령이 과자(프리첼)을 먹다 졸도했을 때 이를 미국의 전쟁위주의 정책과 연관하여 꼬집는 내용으로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었던 ≪기특한 과자≫라는 노래를 불러 농성 참가자들의 앵콜 요청을 받기도 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예비역 당원들은 미대사관 앞에서 예비군복을 입고 ≪우리는 군대에 갔다 왔지만 평화를 사랑한다≫는 이색 시위를 펼쳐 오가는 시민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전교조 역시 부시 방한 반대를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2백 44명 전교조 지회장들의 ≪미국이 패권주의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고 우리 민족 문제에 간섭, 방해하려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적은 항의서안을 미대사관에 전달하려 했으나 미대사관의 휴업으로 뜻을 이루지 못한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미대통령 방한 예정일인 19일을 기점으로 반미 집회는 절정에 이를 듯 보인다.

부시방한반대 제단체 연석회의는 부시 미대통령 방한일인 19일 반미집회, 그림자 투쟁 외에도 20일 종묘공원에서 5천 여명이 모인 가운데 반미를 외치며 대규모의 집회를 열 것이라고 전했다. 그 외에도 전지역에서 각 종교,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미집회, 토론회 등이 열릴 예정이다.



김세옥 기자 kso@ngotimes.net

한반도 평화염원 700인 선언 발표



한중일 3국 순방에 나선 조지 W 부시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19일 오후로 다가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의 방한반대에 이은 평화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재래식무기 대처 문제, 대북 햇볕 정책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 대북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이번 방한은 부시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통해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이라고 규정한 직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시 대통령 방한에 즈음한 700인 평화선언≫을 가지고 한반도 전쟁반대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전달했다.

종교계와 여성계, 문화예술, 학계, 시민사회 단체 등 각계각층 7백여명으로 구성된 ≪700인 평화선언≫(준)은 18일 서울 YWCA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없음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공표했다.

여성민우회 정강자 대표가 사회를 맡은 이번 기자회견은 평화기원을 의미하는 촛불 점화식과 서울 용마초등학교 정화영 어린이의 ≪그날이 오면≫ 바이올린 연주에 이어 영화배우 방은진씨와 민주노총 허영구 위원장 직무대행이 단호하고 결연한 목소리로 선언문을 낭독했다.

평화선언은 선언문에서 ≪미국은 기어코 한반도에서마저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가≫라고 물으면서 ▲미국의 초강경 정책 중단과 북한과의 합의정신에 입각한 대화를 모색 ▲615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부당한 간섭 중단 및 평화통일 위한 남북 노력 협력 ▲김대중정부의 전쟁반대에 대한 겨레의 확고한 의지 천명을 촉구했다.

평화선언은 이번 선언문을 1인당 2만원의 참가비를 거둬들여 경향신문과 한국일보에 광고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전국학생연대회의 주최로 ≪한미투자협정 체결 1인 릴레이 시위≫가 열렸으며,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삼성동 미 상공회의소를 기습농성하는 것을 비롯해 서울지역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부시방한을 규탄하는 시위가 전개되기도 했다. 부시대통령이 방한하는 19일은 전국민중연대 주최로 부시가 입국하는 성남공항에서 ≪입국에서 출국까지 그림자 투쟁≫이 예정돼 있으며, 20일에는 농민과 전국단위의 노조, 학생 등이 참석하는 대규모 범국민대회가 종묘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선영기자 rhythmical@ngotimes.net



민주당 송석찬 의원, ≪부시는 악의 화신≫



송석찬 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자로 나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 이 총재의 아들과 부친의 과거 행적을 강한 어조로 비난하자,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퇴장하는 등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날 송 의원이 이회창 총재의 장남인 정연 씨의 정치자금 수수의혹을 거론하자, 이재오 · 김무성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여러 명이 단상으로 몰려나와 송 의원을 밀어내 발언이 중단되는 등 돌출 상황이 발생했다. 단상에서 발언중인 국회의원이 동료 의원들에 의해 강제로 단상 밖으로 밀려난 것은 최근 몇 년만에 벌어진 일이다.

이날 9명의 대정부 질문자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나선 송석찬 의원은 다른 의원들과는 달리, 질문에 들어가기 5분 전에서야 질문 원고를 배포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송 의원이 단상에 오르자마자 윤두환 한나라당 의원은 ≪송석찬 의원! 발언록을 미리 배포해야지, 지금 주면 어떻게해. 지금 보니 순 욕설이잖아, 욕설≫이라고 소리를 질러 질문 내용이 심상치 않음을 예고했다.

배포된 질문지를 받아든 한나라당 의원들이 술렁대는 가운데 송 의원은 발언을 시작했고, 이재오 총무와 윤두환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4명이 모여, 송 의원의 발언록을 놓고 손으로 짚으며 심각한 표정으로 상의하는 모습이 보였다.

질의에 나선 송 의원은 우선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아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시키려는 ≪악의 화신≫(원고에는 부시대통령을 지칭)에 편승해 대권욕을 채우려는 이회창 총재의 ≪악의 뿌리≫를 제거할 의지가 있느냐≫며 이 총재를 강하게 비난했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몬 부시는 ≪악의 화신≫이다≫

송 의원은 이어 ≪병역 기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바 있는 이회창 총재의 장남 정연 씨는 근화제약 장홍선 대표의 아들 장인우 씨 등 국내 재벌 2세들과 함께 대규모 주가조작을 공모했고, 수백억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정연 씨는) 아버지가 집권하면 뒤를 봐준다는 약속 아래 재벌2세들로부터 수백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아 이회창 총재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의 발언이 여기에 이르자, 이재오 총무를 비롯해 이규택 · 김무성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여러 명이 욕설을 하며 단상으로 달려나왔다.

이재오 총무는 국회의장에게 가서 항의했으나, 이만섭 국회의장은 ≪내려가라≫며 송 의원의 발언을 계속 진행시켰다.

결국 윤두환 · 이규택 의원 등이 송 의원의 발언록을 뺏어 흔들다가 바닥에 팽개치고, 몸으로 송 의원을 단상에서 밀어냈으며, 이재오 · 김무성 · 심재철 · 박종희 · 박창달 의원 등이 함께 송 의원을 몸으로 밀며 발언을 저지했다.

이런 가운데 본회의장에는 ≪그만해!≫, ≪좀 들어봐!≫, ≪순 빨갱이 아냐!≫, ≪송석찬! 뭐야!≫ 등의 심한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정균환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단상 앞으로 나와 한나당 의원들과 맞섰고, 이 와중에 송 의원은 단상에 올라가 발언을 계속했다.

송 의원의 발언 저지에 실패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연단에서는 물러났지만, 의석에서는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다. 곧 이어 한나라당 의원들은 집단으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송 의원은 준비한 원고를 끝까지 읽어내려갔다.

≪지난 99년 전 · 현직 고위관료의 자녀들과 함께 이회창 총재의 차남이 입사한 미국계 컨설팅회사가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정부기관의 용역을 대거 수주함으로써 관련 공무원들과의 유착의혹이 일고 있다.

…조선총독부 기록에 의하면 이회창 총재 부친은 1930년 해주지방법원 검찰서기를 시작으로 동포탄압에 앞장섰던 일제의 잔재 인물로서, 해방과 더불어 당연히 처벌되어야 할 인물이었으나 오히려 검사로 영전되었다.

…이 총재는 지난 61년 군사정권 시절 다른 판사들의 모두 기피하는 혁명재판부 심판관으로서 우리 나라 역사상 최초이자 최대의 언론말살 사건인 민족일보 사건을 담당했다.≫

송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익에 해를 끼치는 구시대적인 정치인은 사라져야 한다≫며 ≪이처럼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생하면서 3대에 걸쳐 파렴치한 행각을 일삼고 있는 이회창 총재는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준 반사회적, 반민족적 행위를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정계에서 떠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본회의장을 퇴장한 한나라당은 오후 2시부터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송 의원의 평소 언동으로 비추어 볼 때 당의 의지가 실린 것이 아닌 돌출 행동으로 보인다≫며 ≪사람이 아닌 연어이기 때문에 원내 제1당으로써 성숙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결정,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속기록 삭제와 함께 송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의원총회에 앞서 이재오 총무가 송석찬 의원 발언을 듣지 못한 의원들에게 내용을 설명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자 이규택 의원이 ≪송석찬 개XX≫라고 말하자 또 다른 의원이 ≪돌아온 연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한편 이낙연 민주당 대변인은 송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 총재와

관련해서는 송 의원의 잘못이 없다≫며 ≪따라서 한나라당의 요구에 전혀 수용의 여지가 없고, 반대로 발언 도중에 연단에 올라가 밀어내고 원고를 탈취해 훼손한 의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사과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 의원의 부시에 대한 ≪악의 화신≫표현에 대해서는 ≪송 의원 자신이 원고의 몇 부분 빼고 읽었지만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으로 당의 입장과 관계없는 송 의원 개인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회 대정부질의는 오후 4시30분부터 속개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은 송 의원의 속기록 삭제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몸싸움으로 송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킨 한나라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 공전을 빚기도 했다.

오후 6시 이만섭 의장은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산회를 선포했고, 본회의에서의 대정부질문은 내일(19일) 오전 10시 다시 개회될 예정이다.

≪인터뷰≫ 송석찬 의원, ≪부시는 ≪악의 화신≫ 발언은 나의 소신≫

송석찬 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대정부질문 원고에서 부시 미 대통령을 ≪악의 화신≫이라고 표현한데 이어 자신의 소신이라고 입장을 굳힘에 따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는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시키려는 ≪악의 화신≫에 편승해 대권욕을 채우려는 이회창 총재의 ≪악의 뿌리≫를 제거할 의지가 있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송 의원이 배포한 원고에는 ≪악의 화신≫인 부시 대통령의 계획에 편승해≫라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재오 한나라당 총무는 ≪집권당 국회의원이 부시 대통령을 ≪악의 화신≫이라고 표현한 것은 북한의 주장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우방 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속기록 삭제를 요구했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도 ≪송 의원이 이회창 총재의 남북관계에 대한 시국관과 방미 때의 행태에 대한 비판을 하다가 적절하지 못한 수사적 표현을 썼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송 의원은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부시 대통령이 ≪악의 화신≫이라는 것은 나의 소신≫이라며 ≪속기록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뜻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송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원고에는 ≪악의 화신≫인 부시 대통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대로 발언하지 않았나.

≪앞뒤로 ≪부시대통령≫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뺐다. 발언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줄여서 말한 것이다.≫

- ≪악의 화신≫ 발언은 본인의 소신인가.

≪소신이다. 그동안 부시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악의 축≫ 발언이나 불법집단 규정 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부시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부시는 그런 입장을 취해 왔으며 이번 발언도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다.

만약에 부시가 북한을 건드린다면 북한은 가만히 있겠는가. 북한이 공격할 곳이 어딘가. 남한에 미군이 있지 않은가. 북한도 생화학 무기며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도 무기가 있다. 둘이 붙으면 민족 자체가 공멸한다.≫

- 한나라당이 속기록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소신을 얘기한 것인데 삭제할 수 있나.≫

- 그렇다 하더라도 내일 부시가 방한하는데 외교적 문제가 있지 않나.

≪내일 방한할 사람이 ≪악의 축≫ 발언을 할 수 있나. (부시는) 그 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한다는 말인가. 우리는 배알도 없나.≫



최경준/이병한 기자 235jun@ohmynews.com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부시에 공개서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조지 부시 대통령 귀하.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서 손님을 극진히 환대하는 민족입니다. 특히 나라의 손님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예의 바른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귀하의 방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귀하께서 모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귀하와 귀하의 측근들이 테러전쟁을 명분으로 삼아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전쟁의 상채기가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는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려 하기 때문입니다.

부시대통령 귀하.

귀하와 미국민들은 본토에 떨어지는 융단폭격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경험, 무고한 양민 수백만이 피흘리며 죽어간 경험이 없어 아마도 전쟁의 공포를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민족은 남북을 막론하고 전쟁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50년전의 잔인한 전쟁 후유증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100만이 훨씬 넘는 젊은이들이 서로 총을 겨눈 채 꽃다운 시절을 군대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분단의 상처를 씻고 남북평화체제를 이뤄내서 전쟁없는 나라를 후대에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전쟁이라니요.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이렇게 다른 민족에게 전쟁공포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까.

부시 대통령 귀하.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인의 축제라는 월드컵이 열립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의 가장 큰 성과는 미국과 소련이 모두 참가함으로써 동서화합에 이바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월드컵을 성대히 치러내 다시 한번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악의 축≫ 발언을 통해 세계와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이런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미국 선수들도 참가하는 월드컵이 전쟁과 테러의 위협 속에 치러지길 귀하는 원하십니까.

이번에 귀하가 방한하게 되면 주한미군문제, 햇볕정책 등을 포함해 김대중 대통령과 여러 얘기를 나눌 것입니다. 저는 귀하가 다음의 사항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귀하가 우리 정부의 햇볕정책을 지지한다고 표명하더라도 그것이 빈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내용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 핵심은 아직도 이 땅을 전쟁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북한과 미국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합니다.

둘째, 주한미군의 본국송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 강토에서 미군기지가 있는 어떤 곳이든 주한미군범죄, 환경오염, 교통문제 등 우리 민족의 고통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용산미군기지가 이전하려는 모든 곳에서 이전반대 주민대책위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귀하는 아십니까. 이제 미군기지는 이 땅 어느 국민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혐오시설이 돼버린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미국이 동북아에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군기지는 미국으로 이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항간에 귀하가 한국에 오는 큰 목적은 미국에서도 이제 사양길에 접어든 F-15 전투기 100대를 팔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F-15 100대면 4조원이 넘는다지요. 부시 대통령 귀하. 귀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무기구매대금은 이 땅의 가난한 사람의 병을 치료하고, 아이들의 교육비 걱정을 없애주며, 집 없는 사람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줄 수 있는 사회보장을 우리더러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귀하가 몸담고 있는 미국 공화당의 돈줄, 군수산업을 살리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희생할 수는 없습니다.

환영받아야 할 방한에 우리 국민들이,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일어서는 이유를 귀하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귀하의 방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동등한 한미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면 누가 방한을 반대하겠습니까.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스러져 가는 미국의 군수회사를 살리기 위해 수조원의 무기를 팔러 오는 것이라면 한국에 오지 말 것을, 평화를 사랑하는 이 민족과 정의의 이름으로 정중히 권고합니다.

새해맞이 준비위, 부시방한 관련 성명 발표

≪악의 축≫은 ≪소름끼치는 얘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단합을 이룰 수 있는 건설적인 대안을 논의하기를 바란다.≫

≪통일을염원하는2002새해맞이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19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부시 미 대통령이 방한하는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손장래 민화협 상임의장은 취지설명을 통해 최근 부시 미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로서는 소름끼치는 얘기≫라며 ≪4대 강국에 의해 민족의 운명이 좌우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돈명 준비위 공동준비위원장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즈음한 2002 새해맞이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부시 미국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이들과 우리 7천만 겨레의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이유로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준비위는 최근 부시 미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에 대해 ≪적절하지 못한 발언과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한국≫에 대한 무기 판매나 미국의 미사일방어(MD)와 관련한 국방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시키는 것이라면 우리 국민들은 부시 대통령의 이런 정책에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부시 미 대통령에게 이번 서울방문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것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더욱 발전시켜나갈 것 △평화협정 체결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하고 남북 사이의 화해와 단합을 이룰 수 있는 건설적인 대안을 논의할 것을 제언했다.

끝으로 준비위는 ≪여당과 야당도 민족의 운명이 엄중한 상황에서 민족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고 ≪이 땅의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요인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어서 진행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이번 성명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변진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은 ≪부시 방한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해야 하는데 현재 정세가 긴장된 것은 사실≫이라며 ≪민간교류도 한반도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고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는 ≪7대종단, 민화협, 통일연대가 이미 각각 입장을 발표했다≫고 소개하고 이번 발표는 ≪더 깊이 하나되는 아름다운 자리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7대종단 등으로 구성된 준비위가 부시 미 대통령의 서울 방문에 즈음하여 미국의 대북정책을 전환하라는 성명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것은 ≪한국≫의 시민사회 대부분이 부시 미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준비위측은 밝혔다.



한편 준비위는 당초 19-21로 예정된 ≪민족의단합과통일을촉진하기위한 2002새해맞이남북공동모임≫을 부시방한 일정과 겹치는 민감한 시점이라는 이유로 26-28일에 금강산에서 갖기로 연기한 바 있다.

김치관 기자 (tongil@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2-02-19

국회서 ≪부시행정부와 햇볕정책≫ 토론회

≪우리의 머리로 사고할 때≫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이 다름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 민족의 관점에서 한반도에 대화와 평화가 필요함을 미국에 설득해야 한다≫

부시 미국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둔 18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대안과 실천≫ 주관으로 ≪부시 행정부와 햇볕정책≫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국회의원 11명과 지구당위원장 등으로 구성되고 각계 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함께하는 개혁 - 대안과 실천≫은 회장을 맡고 있는 신계륜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교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종석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금 한반도에 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이유를 ≪미국이 북과 합의했던 내용을 아무 예고 없이 번복한 데 문제가 있다≫고 분석하고 ≪자국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고 미국이 테러사건 이후에 전쟁 인내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므로 전쟁에 대한 ≪문턱≫이 낮아져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종석 연구위원은 한미간에는 대북인식이 다르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북한이 부정적 존재이며 협상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한국≫은 북한이 까다롭지만 협상으로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고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은 전쟁은 안된다는 입장이 확고하지만 미국은 세계적 차원에서 한반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전쟁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파악했다.

이종석 연구위원은 부시 행정부의 무리한 대북 정책을 지적하면서 일례로 부시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살상거리에서 벗어나도록 북측에 재래식 무기 40㎞ 후방 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남쪽에서도 휴전선에서 서울사이의 모든 무력을 비워야만 성립되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햇볕정책 결과 4년간 남북간 충돌로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고, 북의 군사도발도 줄어들었다≫는 점을 들면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양 정상이 휴전선을 돌아보는 것은 ≪지금까지 남북의 평화 관리 노력으로 사망자가 나오지 않은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부시가 새삼스럽게 휴전선에서 한반도의 위험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과 미국의 이익이 다르지만 우리 입장에서 미국을 설득해야≫한다고 말하고 ≪우리의 머리로 사고할 때≫라고 결론지었다.

≪악의 축 경고와 남북미관계≫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임채정 의원은 ≪만약 전쟁이 나면 북한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쑥대밭이 될 것≫이라며 ≪전면전쟁이 아니더라도 서울에 대포 한 발만 떨어져도 ≪한국≫경제와 생활은 마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채정 의원은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구체적 내용을 갖기 시작한 것≫이며 ≪경고만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서의 전쟁을 미국이 고려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임 의원은 ≪무엇보다 민족의 이익을 앞세우는 입장이 절실하다≫며 ≪야당 총재가 미국에 동조하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발언보다도 더 뒤쳐지는 발언≫이라고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대북관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임 의원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는 ≪햇볕정책은 지지하지만 악의 축이라는 기본개념은 유지하는 모순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하고 ≪우리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고민하고 힘을 합쳐 (미국을) 설득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임종석 의원은 ≪부시의 ≪악의 축≫ 발언 직후 16명의 여야 의원들이 그 내용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5명의 의원이 직접 미국대사관을 찾아가 부대사를 만나 우리의 뜻을 전했≫고 최근 김근태 최고의원 등과 함께 허버드 주미대사를 만나 ≪북한을 존중하자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자마자 미 대사가 이를 뒤집는 발언을 함으로써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린 문제를 따≫져서 미대사가 모 신문의 실명을 세 번이나 거론하며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임종석 의원은 ≪우리의 즉각적이고 당당한 반응은 미국 언론과 정치인에게 영향을 주었고 이것이 다시 미국 당국자들의 대북 강경발언이 자신들의 진의가 아니었다고 부인하게 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하고 ≪우리의 정확한 입장을 반복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또한 ≪다가오는 2003년은 핵, 미사일, 대선 결과와 관련돼 중요한 해이므로 올해 안에 햇볕정책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전쟁반대와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으로만 해결 가능하다는 원칙을 미국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자로 나선 손혁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전쟁방지를 위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대책기구 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으며 허인회 민주당 당무위원은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한반도 평화는 필수불가결 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둔 탓인지 발표자와 청중들은 모두 진지하게 토론회에 임했으며 정치권의 책임을 강조하는 청중들의 질문도 잇달았다.



김치관 기자 (tongil@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2-02-18

부시방한 이틀째, 서울시내 곳곳 반미시위로 들끓어

부시 방한 이틀째를 맞는 20일(수) 서울 시내는 ≪부시방한반대≫의 구호로 들끓었다. 고공시위, 서한전달, 부문별 집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된 각계의 반미의지는 오후 3시 ≪부시방한반대 범국민대회≫로 모아졌다. 아침 8시 50분부터 밤 9시경까지 12시간동안 계속되었던 각계의 부시방한반대투쟁을 종합 정리했다.

≪전학협≫ 소속 대학생 F-15 무기도입반대고공시위

오전 8시 50분, ≪전국학생회협의회(전학협)≫ 소속 대학생 5명이 미국의 대표적 군수업체인 ≪보잉≫사의 옥외광고판 위에서 고공시위를 전개했다. 이들은 ≪F-15 무기 도입 반대≫, ≪전쟁광 부시의 방한을 반대한다≫, ≪NO WAR, NO F-15 평화군축 실현≫이라고 적힌 플래카드 3장을 준비해 보잉사 간판에 내걸었다. 경찰은 오전 9시에 이 플랭카드들을 철거하고 9시 15분경 대학생들을 전원 연행했다.

보잉사는 미국이 ≪차세대 무기≫로 이남에 강매하려는 F-15전투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부시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로 알려져 있다.

≪부시방한 반대 제단체 연석회의≫ 청와대 서한전달 투쟁

오전 11시경, ≪부시방한 반대 제단체 연석회의≫(연석회의) 회원 80명은 미국과의 자주적인 협상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이들은 오전 9시경 종로구 옥인동 법혜사 앞길에서 ≪부시방한 반대 집회≫를 가진 후 10시 30분경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했다. 경찰은 이들을 방패로 밀어붙이며 집회물품을 빼앗는 등의 탄압을 자행했다.

연세대생 6명 미대사관 기습 시위

오후 1시 10분경 연세대생 6명이 택시를 타고 미대사관 앞에서 내려 유인물을 뿌리며 대사관 앞으로 행진하다 2분여 만에 연행되었다. 연세대 조국통일위원회(위원장, 김진숙 25세)는 ≪지난 18일부터 진행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02학번 예비대학생과 연세대생 7백명으로부터 ≪부시방한 반대≫ 서명을 받아 이를 전달하기 위해 미대사관을 방문한 것≫ 이라고 밝혔다.

대학생 1,500여명 한양대에서 부시방한반대집회

오후 1시경 ≪한총련≫,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행동연대, 다함께 등 학생운동단체 소속 대학생 1,500여명이 한양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부시방한반대집회를 진행했다. ≪전쟁반대 평화실현, 대북적대정책 철회, 한 · 미투자협정 저지 부시방한 반대 청년학생대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대학생들은 △전쟁 확대 · 한반도 전쟁 정책 중단 △전쟁 무기 강매 중단 △6.15 남 · 북 공동선언 실현에 대한 간섭 저지 △미군기지 전면 반환 등을 촉구했다.

오후 2시 20분경 행사를 마친 집회참가자들은 종묘에서 열리는 범국민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정문으로 나갔으나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저지당했다. 한양대 정문앞에서는 경찰과 학생들간에 20여분간 대치가 지속됐고 이사이 학생들은 다른 문을 통해 학교를 빠져나와 집회장으로 향했다.



대학생들 남영동에서 도로점거하고 성조기 화형식

한양대에서 열린 부시방한반대집회를 마치고 이동하던 대학생들이 오후 3시 15분부터 남영동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성조기화형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한 시간 가량 도로에서 ≪부시방한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다가 경찰의 탄압이 시작되자 지하철역으로 이동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대북 적대정책 철회!
전쟁반대 평화실현!

농민들, 마로니에 공원에서 부시방한반대집회

오후 1시 30분경부터 동숭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 정현찬) 회원 800여명이 부시방한반대집회를 열었다. 전농은 규탄사에서 ≪김대통령은 자신 대통령 당선 공로자인 농민들 편에 서서 개방농정철폐 통일농업에 초석을 놓을 것인지, 아니면 부시에 굴복한채 이 나라 농업을 망친 대통령으로 남을것이냐≫고 물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농민대회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전농 정광훈 전 의장과 배형택 대외협력국장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농민들은 오후 2시 50분경 성조기 화형식을 진행했다.

≪부시방한 반대 제단체 연석회의≫, 종묘공원에서 ≪범국민대회≫ 개최

오후 3시경 종묘공원에서는 ≪부시방한 반대 제단체 연석회의≫(연석회의) 주최로 ≪부시방한반대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집회에는 노동자, 농민, 대학생, 청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군중 5천여명이 모였다. 무대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대북 적대정책 철회≫ ≪전쟁반대 평화실현≫의 구호가 걸려 있었으며, 집회는 최규엽 민주노동당 자통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날 집회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현찬 의장은 ≪부시 대통령이 방문한다기에 많은 선물을 가져올 줄 알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쌀만 잔뜩 짊어지고 왔다. 우리는 7천만 민족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똘똘 뭉쳐 전쟁을 반대하고, 쌀 수입 개방을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최열 사무총장은 ≪평화의 해라고 선포해도 평화가 지켜지기 어려운데 부시가 올해를 ≪전쟁의 해≫라고 선포하니 도대체 인류의 미래를 어디로 갈 것인가≫라며 ≪미국은 히로시마 원폭투하,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지만 또다시 한반도를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위험한 때로 몰아가고 있다≫고 미국을 규탄했다.

민주노총 허영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많은 국가 기간산업이 미국의 손에 넘어가고, 주식시장 또한 해외자본에 잠식되었지만 정부는 F-15기라는 미국에서 폐기처분된 무기를 사들이는데 13조원을 들이고 있다. 이 규모는 노동자 임금인상분의 5%에 해당한다≫ 노동자를 외면하고 무기수입에만 급급한 정부에 분노를 표시했다.

집회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전쟁 확대 중단하고 한반도 전쟁 중지 ▲한미투자협정, 신자유주의 세계화 중단 ▲MD 강요, 전쟁무기 강매를 중단 ▲용산 미군기지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미군기지를 반환 ▲양민학살에서 한강 독극물 사건까지 미군범죄 사과, 소파협정 개정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에 대한 간섭 방해 중지 ▲김대중 정부의 아프카니스탄 파병 철회 굴욕적 한미공조 중지를 요구했다.

집회도중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성조기를 불태우려 하자 전투경찰이 곤봉과 방패 등을 동원하여 집회자들을 폭력적으로 탄압했다. 흥분한 농민, 노동자들은 소주병, 잔디 등을 던지며 경찰의 집회장 진입을 저지했다.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여성 민우회 소속 회원 1명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이김현숙씨가 백병원으로 응급 후송됐다.

문정현 신부는 즉석발언을 통해 ≪성조기를 태운다고 집회를 막는 국가는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꼭두각시인 ≪한국≫의 공권력≫이라며 분노를 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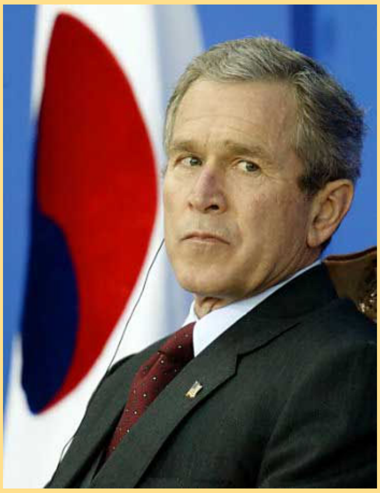
집회를 마친 시위대는 ≪부시 방한반대≫ 항의서한을 들고 미 대사관으로 가기 위해 행진을 시도하였고, 이를 가로막는 경찰과 대치하여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들은 ≪경찰의 거리행진 불허 규탄 집회≫를 진행한 후 일부는 명동성당으로 이동하였고 일부는 산발적인 거리시위를 진행했다.

종묘 집회와 명동성당 ≪정리집회≫를 마친 대학생들은 밤늦도록 시내 곳곳에서 ≪거리점거 기습시위≫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밤 9시 경 서울시내 지하철에서 지역별 학교별 ≪정리집회≫를 갖고 모두 해산했다.



종합 정리 : 윤혜진 기자 2002년 2월 21일
6.15주간 편집부

한미 정상회담 각계 반응
≪햇볕정책 지지는 말뿐≫



20일 김대중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시민 · 사회단체 관계자들은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으로 높아진 한반도의 긴장을 누그러뜨리기에는 부족했다≫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종수 ≪한국≫청년연합회 평화통일센터 사무국장은 ≪급속하게 얼어붙은 한반도의 정세를 풀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정상회담에서 나오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전은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부장은 ≪한-미 투자협정, 무기강매 의혹, 대북 강경발언 등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회담에서는 이를 달래기 위한 일반적인 얘기만 나열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근리 사건 등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학살 문제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사과발언이 한마디도 없는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시민 · 사회단체는 특히 부시 대통령이 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참여연대 박원석 시민권리국장은 ≪부시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을 늘어놓은 것은 대북 강경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불평등한 소파 개정 국민행동≫ 김판태 사무처장은 ≪한반도 문제는 남과 북이 서로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하며, 미국은 이에 개입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한 뒤 ≪우리 정부를 배제한 채 일방적인 대북 강경정책을 유지하려는 부시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 인권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테러와의 전쟁 확산에 따른 비판을 무마하고 인도주의적 색채를 덧씌워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계산인 것 같다≫며 ≪부시 대통령이 진정 북한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지난 50년 동안 지속돼 온 미국의 경제 · 군사제재를 풀고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도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둘러싸고 반대 집회와 환영 집회가 사흘째 이어졌다. 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 전국연합 등 600여개 단체 회원 5천여명은 오후 3시 서울 종묘공원에서 ≪부시 방한 반대 범국민대회≫를 열고 미국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 등을 요구했다. 특히 오후 4시40분께 전국농민회총연맹 일부 회원들이 집회 도중 미리 준비해 온 성조기를 불태우려 하자 경찰 300여명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갑자기 집회장으로 뛰어드는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져 이현숙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대표 등 10여명이 다쳐 인근 백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또 박형규 · 김지길 · 김상호 목사 등이 참여하는 ≪한국≫기독교원로회의(의장 조용술 목사)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회장 김기수 목사)도 성명을 내어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 전환 등을 촉구했다.

이에 반해 재향군인회 회원 400여명은 이날 오후 임진각 망배단 앞에서 대규모 안보궐기대회를 열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규탄했다.



조성곤 정인환 기자csk@hani.co.kr
인터넷 한겨레

떠난 부시, 끝나지 않은 분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부시 미대통령이 한국을 떠나자 시민사회단체의 부시방한반대투쟁도 일단락됐다.

21일 오전 10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부시방한반대투쟁에 참여했던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부시 미국 대통령 이한에 즈음한 사회단체 합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어제의 격렬한 상황과는 다르게 조금은 평온한 분위기에서 시작된 기자회견이었지만, 참가자들은 경찰의 과잉진압에 크게 분노하고 있었다.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제의 현장을 진지한 자세로 취재해준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평화적인 집회에 난입해 많은 부상자를 만든 경찰이 누구를 지켜주는 경찰인지 똑똑히 보았을 것≫이라고 경찰의 강경진압을 규탄했다.

또, 오종렬 상임의장은 ≪부시가 방한을 통해 전쟁을 하지않겠다는 포장지를 우리에게 주고갔지만, 그야말로 알맹이는 그대로인 포장지가 아니겠냐≫며 부시방한의 결과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범국민대회에서 많은 여성들이 부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우리 여성들은 항상 일상생활의 평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어제 경찰의 집회장 난입은 이런 우리의 주장을 무색하게 했다≫며 ≪폭력적인 경찰문화를 바꾸기 위해 끈질기게 투쟁할 것≫이라 밝혔다.

문정현 소파개정국민행동 상임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사회단체 대표들은 먼저 부시미대통령의 방한 반대범국민운동에 지지와 성원을 보낸 국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 뒤 이번 방한에서 부시대통령이 전쟁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사회단체 대표들은 미국정부가 대북 적대정책을 고수하면서도 북미대화를 언급하는 것은 명백한 이율배반이라 비판하고, 정상회담에서 양민학살, 미군범죄, 무기강매 등의 한국민들의 문제제기가 무시된 것은 규탄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시대통령의 방한기간 동안 있었던 경찰의 법질서 파괴와 무자비한 폭력만행에 대해서는 책임자처벌과 재발방지가 보장될때 까지 형사고소고발, 민사소송, 국가인권위 제소 등 법적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대표들은 ≪부시 미대통령의 방한결과를 돌아보며 앞으로 전쟁반대, 평화실현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우리 민족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야하는 깊은 각성을 가지게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사회단체대표들은 지난 18일부터 진행된 부시방한반대 시국농성을 해제했다.

한편, 부시 미대통령은 21일 오전 40시간 30분의 방한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산 미공군기지를 통해 다음 방문국인 중국으로 떠났다.

장동렬 기자 (tongil@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2-02-21

미국의 ≪미 상의 점거 테러규정≫ 규탄

한총련 성명

정당한 투쟁에 ≪테러≫ 낙인찍은 미국의 오만방자함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은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한국 민중의 반미투쟁을 얕잡아 보지 마라

≪깡패국가≫ 미국의 오만함이 ≪전쟁광≫ 부시의 방한을 계기로 극도에 달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8일 부시 방한을 하루 앞두고 전개된 한총련의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점거 농성을 ≪테러사건≫으로 규정, 한국경찰에 사건 가담 학생 32명의 인적사항 통보를 요청해왔다. 미국은 이를 통해 점거농성 관련 학생들의 비자발급 거부와 미국 입국통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한총련 미 상공회의소 점거 농성에 대한 ≪테러규정≫은 한국민중의 반미투쟁 전체를 테러로 간주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 오만방자한 발상이다.

한총련의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점거는 한반도 전쟁위기 조성으로 7천만 겨레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부시에 대한 우리 민중의참을 수 없는 분노를 전 세계에 과시한 의로운 투쟁이었다. 한국 경제침탈의 행동본부인 미 상공회의소에서 울려퍼진 ≪전쟁반대, 부시반대, 미국반대≫의 외침은 4천만 민중의 외침이었으며, 부시 방한을 계기로 한반도 영구분열과 지배를 고착화하려는 미국의 불순한 의도에 대한 경고였다.

미국은 우리 민중의 정당한 투쟁에 소위 ≪테러규정≫으로 화답했다.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테러범을 검거하겠다는 미명하에 아프가니스탄을 무력침공한 미국에게서 9·11 테러사건을 통해 교훈을 찾으려는 모습은 애초에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 ≪힘의 논리≫에 기반한 자국의 군사패권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으며, 미국의 분별없는 전쟁놀음은 전 세계 평화의 최대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주한 미 상공회의소 점거 투쟁에 대한 테러규정 또한 폭발지경에 이른 한국 민중의 반미감정을 힘으로 제압해보겠다는 미국의 깡패식 발상이며, 자주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민중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이다. 미국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한국민중의 반미투쟁을 이런식으로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미국은 똑똑히 보아라. 지금 이 땅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반미의 열풍지대가 되었다. 미국의 군홧발 아래서 자주권을 강탈당한채 살아왔던 반백년 민족의 분노는 반미투쟁으로 폭발하고 있으며, 미국이 이 땅에서 저지른 모든 죄과를 인정하고 사죄하지 않는 이상 투쟁의 불길은 절대 꺼지지 않는다. 미국은 앞으로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게 될 제 2, 제 3의 미 상공회의소 점거농성 같은 우리 민중의 반미투쟁에 모두 ≪테러 낙인≫을 찍을 것인가.

한총련의 반미투쟁은 미국의 테러규정에 절대 주춤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 어이없는 사건을 적극적으로 폭로해 강위력한 반미투쟁의 고삐를 바짝 조이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이 땅에서 한반도 악의 근원 미국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한 시간표는 이미 짜여졌다. 한총련 백만학도는 4천만 민중과 함께 자주통일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반미투쟁에 총력 매진할 것이다. 미국은 들어라. 한총련 주한 미 상공회의소 점거농성에 대한 테러규정 입장을 당장 철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 대한 태산같은 분노가 거대한 반미투쟁의 파도가 되어 미국을 덮칠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2002년 2월 21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건)

미 상의 점거 6명 국보법위반 영장

(서울-연합뉴스) 서울지검 공안2부(황교안 부장검사)는 21일 주한 미상공회의소 점거농성을 주도하고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K대 학생회 전간부 정모(23.4년)씨 등 6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이적단체로 규정된 제9기 한총련 대의원으로서 수배를 받아 왔으며 지난 18일 주한 미상의 점거농성을 주도,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주한 미상의 점거농성과 관련, 이날 현재까지 모두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이중 4명은 구속된 상태다. 정씨 등 6명은 모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22일중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미국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 편지

미합중국 대통령 죠지 더블유. 부쉬 앞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에서 열린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국제민주단체 평양합동회의 참가자들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말미암아 최근 조선반도정세가 다시금 악화되고 북남사이의 화해와 통일과정에 엄중한 장애가 조성된데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다양한 형태의 국제적인 운동들을 벌리기로 결정하였음을 당신에게 알리는바이다.

당신도 아는바와 같이 2년전 조선의 북과 남은 력사적인 최고위급상봉과 6.15북남공동선언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조선민족끼리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공동체는 일치하게 북남공동선언을 공식 지지하였다.

따라서 그 누구도 조선문제에 끼여 들 명분도, 간섭할 권리도 없으며 특히 조선반도의 분렬에 책임 있는 미국은 조선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6.15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하고 그 리행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

미국은 이미 1994년 10월에 체결된 조미기본합의문과 2000년 10월에 체결된 조미공동콤뮤니케를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무력위협을 하지 않을것을 공약한바 있다.

당신은 현 미행정부의 최고당국자로서 이전 행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한 모든 합의들을 존중하고 계속 리행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말로는 조선반도의 화해과정을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실지에 있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힘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정책의 현지 집행자는 남조선강점 미군이다.

최근 당신이 존엄 높은 주권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모해하다 못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 ≪악의 축을 이루는 나라≫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힘으로 고립압살하려는 미국의 호전성과 지배주의를 명백히 보여 준다. 이것은 유엔헌장이 인정하는 국가의 자주권존중원칙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며 조선인민에 대한 로골적인 위협공갈이고 도발이다.

당신은 선전포고와 같은 이번 대조선적대시발언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지 않는 자기의 호전적본색을 국제사회앞에 여지없이 드러내 놓았다.

본 회의 참가자들은 현 미행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대조선적대시정책들을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정책으로 간주하면서 이를 규탄한다.

우리는 당신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과정을 위태롭게 만든 책임을 인정하고 이번 사건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전체 조선인민앞에 공식 사죄할것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미국정부가 그 어떤 전제조건도 없이 조미대화를 재개해야 하며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림시중지를 법제화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의에 응해 나옴으로써 자기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현 미행정부가 조선민족끼리 통일을 이룩하는데 장애로 되는 남조선강점 미군을 즉시 철수시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겨냥한 모든 합동군사연습들과 도발행위들을 그만 둘것을 공약함으로써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해소하고 조선민족의 화해와 자주적평화통일에 조금이라도 기여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국제민주단체 평양합동회의 참가자일동
2002년 2월 17일
평 양

21세기 태양이시며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이신 **김정일**동지께



격동하는 21세기와 더불어 위대한 선군시대가 만민의 경탄 속에 도도히 굽이쳐 흐르는 장엄한 역사적 시기에 우리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다함없는 경모심을 안고 위대한 영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탄신절을 가장 뜻깊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사스러운 민족최대의 2월의 명절을 맞으며 태양같이 환하고 열정에 넘치신 자애로운 영상을 절절한 그리움 속에 우러르는 우리들의 마음은 경애하는 장군님께로 끝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겨레와 인류의 한없는 축복 속에 탄신절을 맞으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일치한 축원과 열화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은 우리 민족을 창창한 미래에로 이끌어 가실 또 한분의 위대한 태양의 출현이였으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위업의 빛나는 계승완성을 확고히 기약한 역사적인 일대 경사였습니다. 백두광명성으로 높이 솟아 오르시어 주체위업을 향도해 오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장장 60성상에 걸치는 성스러운 혁명역사는 특출한 정치실력과 정력적인 활동으로 조국과 민족, 시대와 역사에 불멸할 대업적을 이룩하신 천재적인 사상이론가, 걸출한 정치가, 희세의 영장의 위대한 승리와 영광의 연대기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자주시대의 향도이념으로 발전풍부화하시고 독창적인 사상이론활동으로 탁월한 업적을 쌓으심으로써 백두에서 시작된 태양의 위업은 역사의 풍파 속에서도 사소한 우여곡절과 탈선도 없이 주체의 항로따라 줄기차게 전진해 올수 있었으며 사상으로 역사를 개척하고 사상으로 백전백승하는 **김정일**사상제일의 위대한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수호하시며 당과 국가, 군대를 수령의 당과 국가, 군대로 강화발전시키시어 수령의 역사가 영원히 흐르게 하는 수령영생의 역사적 위업을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하신 것은 고결한 충정의 화신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위대한 업적입니다.

백두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은 주체사상을 구현한 독창적인 총대철학, 선군정치방식을 제시하시고 가장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 위대한 선군영도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단행하시어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우시고 주체적인 무력건설의 일대 앙양기를 펼쳐 놓으신 장군형의 위대한 정치가이십니다.

더욱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역사상 처음으로 선군위력의 분화구를 터쳐 제국주의 연합세력을 사상과 군력의 힘으로 제압하시어 20세기 최대의 정치군사적 기적을 이룩하시고 주체성과 민족성을 빛내이시며 사회주의 수호전의 위대한 승리의 영마루에서 강성대국건설에로 비약하는 기적의 새 시대를 단신으로 창조하신 것은 인류사에 유례없는 정치신화입니다.

필승의 자신감에 넘쳐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0돌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나남의 봉화따라 4대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빛나는 **김정일**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총진군을 가속화하고 있는 이북의 장엄한 현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주체조선에서만이 펼쳐질수 있는 영웅서사시적 화폭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천리혜안의 예지와 애국애족의 대용단으로 21세기의 통일대강인 6.15남북공동선언을 펼쳐주시고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진두에서 향도하심으로써 통일위업실현에서는 분단사에 처음있는 전환적 국면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계적 판도에서 사회주의위업, 자주위업이 정의의 위업으로 공인되고 실현되어 나가는 자주의 새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은 현시대의 가장 걸출한 정치원로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으신 국제적 권위와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에 의해 이루어진 자랑찬 결실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사상과 세련된 영도, 숭고한 덕망과 불멸의 업적으로 만민을 매혹시키고 세계를 진감시키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야말로 역사에 전무후무한 위대한 성인이시며 21세기의 찬란한 태양이십니다.

백두영봉에 광명성 솟아 빛나던 그 연대부터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경모해 오는 우리 민중은 변함없는 숭배심을 안고 장군님을 더욱 열렬히 숭앙하며 성스러운 투쟁의 한길을 힘차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민족의 영수, 민족의 자주사상을 숭배하고 따르는 각성된 각계민중의 애국적 투쟁에 의하여 오늘 남녘에서 숭미와 사대, 남북대결과 분열의 구도가 반미자주와 연북화해, 단합의 구도로 급전환되어 자주, 민주, 통일운동이 막을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되었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과 불굴의 투지를 안고 2월의 대명절을 맞는 이 시각 우리들은 민족의 찬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고 민족민주운동에서 새로운 승리를 안아 올 드높은 결의에 넘쳐 있습니다.

우리들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한민전과 변혁운동대오의 주체사상화를 백방으로 강화하고 각계민중을 **김일성**, **김정일**위인제일, 주체사상제일로 정신무장시키기 위한 대민홍보활동을 활성화하여 위인숭배, 사상숭배를 삶의 좌우명으로, 투쟁의 신념으로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구호를 더 높이 치켜들고 정세가 긴장할수록 민족자주, 통일조국아리랑을 힘차게 부르면서 내외호전세력들의 반북,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민족공조를 실현하며 6.15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함으로써 민족적 경사가 겹치는 올해를 역사에 가장 빛나는 한해로 장식하고야 말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영수로 높이 모시어 민족과 조국통일의 전도는 창창하며 우리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입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일치한 소망을 담아 민족의 태양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주체91(2002)년 2월 16일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

6.15공동선언이행을 차단시킨 부시행정부의 죄악백서

6.15남북공동선언으로 한반도에는 평화와 자주통일의 이정표가 세워지고 우리 민족의 운명에서 대전환이 일어났다.

6.15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대결에서 화해에로, 냉전에서 평화에로, 분단에서 통일에로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이것은 50여년 분단사에 일찍이 없었던 우리 민족사의 쾌거였으며 지구촌의 공동경사였다.

그러나 1년전 1월 20일 부시행정부의 등장으로 6.15공동선언의 이행에는 제동이 걸리고 북미대화와 함께 남북대화는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한반도에는 냉전의 기류가 다시금 밀려들게 되었다.

그 주범인 부시는 워싱턴에서 ≪악의 축≫이라는 독설로 불집을 만들어놓고 전쟁화약내를 풍기며 서울에 기여든다고 한다.

우리 민중은 이에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여 부시를 ≪악의 왕초≫로 규정하고 그의 머리위에 철추를 내릴 반미반부시투쟁에 과감히 일떠서고 있다.

한민전 중앙위원회는 온 민중, 온 겨레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담아 부시의 서울행각을 앞두고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앞길에 차단봉을 가로질러온 그의 집권 1년간의 죄악상을 고발하여 이 백서를 발표한다.

1. 북미관계를 뒤집어놓은 죄악

6.15남북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분단사에 자주통일의 새 지평을 열어놓은 역사적 사변이였다. 그러나 미국은 처음부터 우리 민족의 통일좌표인 6.15공동선언이 이행되는 것을 달가와하지 않았다. 이 땅에 언론들이 쓴 것처럼 ≪미국은 지금까지 6.15공동선언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유보해왔으며≫(조선일보, 2001년 6월 8일), ≪미국은 지금까지 6.15공동선언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유보해왔으며 부시행정부는 6.15공동선언을 무산시키려는 저의를 드러내놓기 시작했다.≫(말, 2001년 7월)

내신들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까밝히고 있다.

≪부시는 한반도에서 6.15공동선언으로 냉전체제가 해체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적을 만들고 위기의식을 높임으로써 방위산업계 친구들에게 약속한 신종무기판매를 합리화하고 부유한 공화당측근들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부산일보, 2001년 5월 3일)

≪부시팀은 6.15공동선언이 통일로 이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것은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중러쪽에 치우치는 통일로 될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한반도가 자기 세력권에서 벗어날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한겨레, 2001년 6월 12일)

≪그러므로 부시행정부는 출범하자부터 북미관계를 차단하는 것으로 6.15공동선언이행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부시행정부는 북의 외무성대변인이 지난해 10월 24일자 성명에서 지적한 것처럼 정권을 인계받기 바쁘게 모든 것을 뒤집어엎었다.≫(민족21, 2002년 1월)

그것이 바로 3대 뒤집기작전인 ≪북미정상회담뒤집기≫, ≪북미기본합의문뒤집기≫, ≪북미협상뒤집기≫작전들이였다. 이 3대 뒤집기작전은 우리 민족의 통일대사를 망치기 위한 것이였다.

첫째, 북미정상회담뒤집기

북미사이에는 2000년 10월 이북특사의 방미와 올브라이트 전 미국무장관의 방북에 뒤이어 클린턴의 평양방문이 예견되고 이를 계기로 평양에서는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어 있었다. 여기에서는 북의 미사일뿐 아니라 한반도평화체제와 북미간의 완전한 관계개선문제를 일괄타결하기로 합의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당시 6.15공동선언이 마련되어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에로 큰 걸음을 내딛게 된 상황에서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관계정상화문제가 해결되면 한반도에서는 55년동안 지속되어오던 냉전체제가 일소에 해체되고 우리 민족앞에는 평화와 통일의 대로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0일 클린턴의 방북은 돌연 취소되었다. 그의 방북행을 가로막아나선 것이 바로 부시와 그의 패거리들이였다.

부시는 지난해 12월 19일 클린턴과 정권인계인수문제를 협의하는 자리에서 퇴임하는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북미사이의 최대현안인 북한미사일문제 해결을 차기 정부에 넘겨야한다고 강요하였으며 이보다 하루앞서 상원 원내총무와 하원의장 등 11명의 공화당의원패거리들은 클린턴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무분별한 북한과의 협상타결은 없는 것만 못하다고 줴치면서 방북취소를 강박해 나섰다.≫(동아일보, 2000년 12월 19일, 12월 29일, 12월 30일)

부시와 그 일당의 북미정상회담뒤집기작전으로 북미관계는 전면해결의 고지에서 적대적인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되었고 6.15공동선언으로 화해국면에로 들어서게 되었던 남북관계도 경색국면에로 환원하게 되었다.

둘째, 북미기본합의문뒤집기

≪북의 핵문제는 1994년에 영변핵위기를 계기로 1년반동안의 공방끝에 체결된 동년 10월 21일 제네바합의로 완결되었다.≫(말, 2001년 7월)

≪그런데 출범하기 전부터 제네바합의는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키지 못했다고 떠들어온 부시는≫(동아일보 2001년 1월 18일)

≪제네바합의는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키지 못했다고 떠들어온 부시는 백악관에 들어앉자 북미기본합의문의 전면적 재검토문제까지 끄집어내어 그것을 백지화하려는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뉴코리아타임스, 2001년 6월 23일)

≪부시행정부는 북에 건설해주기로 한 원자력발전소의

완공단계에 가서 북의 핵사찰을 하기로 된 것을 당장해야 하며 경수로에서도 플루토늄을 추출할수 있기 때문에 화력발전소로 바꿔야한다고 들고나왔다. 이것은 내외여론이 지적한 것처럼 제네바합의를 뒤집기 위한 억지였다.≫(동아일보, 2001년 1월 18일)

셋째, 북미협상뒤집기

≪북은 미국에서 새 정권이 출범하자 북미관계발전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클린턴정부때의 차원에서 미국과의 대화를 계속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부시는 백악관에 입성하자 북한과의 관계를 전면재검토할 것이라는 폭언을 연발하면서≫(경향신문, 2001년 3월 15일)

≪그러나 부시는 백악관에 입성하자 북한과의 관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는 폭언을 연발하면서 기존의 관계개선 지향적인 북미협상틀거리를 전면 뒤집어엎었다. 내외여론은 부시가 한미정상회담에서 자신의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전임 클린턴행정부때와는 다를 것임을 밝힌 사실을 놓고 이것은 선임행정부와는 달리 힘의 과시를 통한 이해관계를 관철하려는 강경정책에로의 선회에 무게를 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한겨레, 2001년 3월 9일)

≪파월국무장관은 백악관에 발을 들여놓기 3일전인 지난해 1월 17일에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를 서두르지 않겠다. 북한과의 어떤 협상도 그 이행여부를 우리가 반드시 검증, 감시할수 있어야 한다. 북한이 미사일개발과 수출을 중단하고 재래식, 비재래식위협을 모두 제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북측에 아무 것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독설을 뱉어놓은바 있다.≫(조선일보, 2001년 1월 19일)

≪그리고 부시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팀들은 앞을 다투어 북과의 대화재개를 위해서는 대북감시 및 검증체제가 필요하다느니(파월국무장관), 북한과의 협상의제에는 핵이나 미사일외에 재래식무기도 포함되어야 한다느니(라이스백악관안보보좌관)하면서 강경론을 폈다.≫(한겨레 2001년 12월 7일)

≪지난해 6월 6일 근 5개월간의 정책검토를 걸쳐 발표된 부시의 대북정책성명은 이미 강경파들에 의해 거론되어온 핵과 미사일, 재래식무기문제를 묶어서 협상대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 검증체제하에서만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것이며 이 세가지 문제가 해결된 조건에서 정치경제관계를 개선해나가겠다는 것이다.≫(한겨레 2001년 6월 8일)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대화거부성명이고 북미관계개선 부정성명이였다. 워싱턴의 한반도전문가들은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성명은 북과의 대화기피로 남북간의 대화를 막고 북미간의 관계개선을 차단하는 것으로 남북간의 관계개선을 막기 위한 하나의 요식성명이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화를 하고 북미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한겨레 2001년 6월 8일)

2. 남북화합을 차단해온 죄악

≪부시행정부의 등장으로 하나로 이어져가던 민족의 혈맥이 다시 단절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남북간의 화해와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교류와 협력이 무산되고 왕래와 상봉이 두절되게 되었다. 부시행정부는 미국과 한국간의 수직관계를 이용하여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데 사사건건 훼방을 놓아왔다.≫(동아일보, 2001년 8월 2일)

첫째 남북대화 가로막기

지난해 4월 7일에 부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당신은 북한을 잘못 보고 있다. 북한은 믿을수 없다.≫(뉴욕타임스, 2001년 3월 8일)

≪북의 핵개발과 미사일문제에서는 불투명한 점이 많다. 클린턴정권은 6년간 속아왔다. 우리 정권은 속지 않을 것이다.≫(신동아, 2001년 4월)

≪우리 정권은 속지 않을 것이다는 위압적인 말로 김대중을 면박하였다. 그리고 미국과 사전협의없이 6.15공동선언에 서명한데 대해 강하게 추궁하면서 고작 54밖에 안되는 부시가 당년 77세라는 김대중을 보고 ≪이 사람≫, ≪이 양반≫하며 하대하고 경멸하였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진전을 미국의 요구에 따라 조절하며 대북정책의 추진과정을 정치군사협상은 물론 정부차원의 대북지원까지 포함하여 관계마다 미국의 승인밑에 할 것을 강박했다.≫(뉴코리아타임스, 2001년 5월 5일)

이것은 남북관계개선에로 나아가는 남북대화에 발목을 잡아 매놓기 위한 것이였다.

남북간의 대화에 제동을 걸고 나선 부시행정부는 9.11사건을 계기로 남한당국을 비상경계태세에 들어가게 하고 남쪽에 미국의 기동무력을 투입함으로써 남북간의 장관급회담을 단절시켜버렸다. 한국의 언론들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부시행정부의 훼방책동을 규탄하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11월에 열린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은 남측이 취한 비상경계태세가 쟁점이 돼 아무런 결실도 없이 결렬되었다. 미국의 대테러전쟁이 남북대화의 발목을 다시 잡은 것이다.≫(민족21, 2002년 1월)

≪이번에 한미연합군에 비상경계령이 발동되고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게 된 것 때문에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장관급회담이 난항을 겪었고 결국 결렬되었다. 이번 비상경계령발동사실에서 드러난 것은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책동의 주범이 부시정권이라는 사실이다.≫(민, 2002년 1월)

둘째, 남북협력 가로막기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은 민족내부문제이지 대양건너 미국이 끼어들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부시행정부는 미국은 상호주의와 검증을 원칙으로 북을 반대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중단시키려하는데 한국이 북한에 퍼주고 앞서나가면 공조가 되느냐.≫(동아일보, 2001년 1월 29일)고 강박해나섰다.

≪부시행정부는 남이 북에 전기를 주면 핵사찰카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안된다. 386컴퓨터도 여러대 연결하면 군사용으로 전용될수 있기 때문에 안된다. 화학비료는 재래식폭약을 생산할수 있기 때문에 안된다. 식량은 군량으로 들어갈수 있기 때문에 검증이 뒤따라야한다고 하면서 모든 협력에 돌아가며 ≪노≫딱지를 붙여 발목을 잡았다.≫(동아일보, 2001년 1월 20일, 민, 2001년 8월)

부시행정부는 지난 1월 2일 이중용도품목의 수출을 통제

하는 관리규정을 수정해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등 나라들에 대한 고성능 컴퓨터수출은 완화하는 반면 북을 비롯한 테러지원국의 딱지를 붙여놓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컴퓨터반출금지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부시행정부는 이회창을 비롯한 한국의 친미보수패거리들을 돌격대로 내세워 대북퍼주기론을 외쳐대게 했다. 이들은 지금 군전력증강5개년계획기간에 무려 30조원의 혈세를 동족대결용 무기구입비로, 미군산복합체에 퍼넣기로 한 진짜 퍼주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남북공조보다 한미공조를 우선시하는 부시의 사냥개노릇을 하고 있다.

셋째, 남북왕래 가로막기

≪부시행정부는 남북간의 왕래와 혈육간의 상봉까지 가로막아 나섰다. 금강산은 우리 민족의 명산이고 경의선은 우리 민족의 대동맥이다. 그런데 부시같은 대양건너 깡패들이 나서서 금강산관광은 관광료가 군사비로 사용된다고 하면서 가로막아 나서고 경의선복원은 지뢰를 해체해야하기때문에 북의 전차(탱크)들이 쳐나올수 있다고 하면서 제동을 걸고 남북간의 접촉과 왕래는 민족주의기류를 확산시킬수 있다고 보면서 달가와하지 않고 있다.≫(산케이신문 2001년 2월 2일, 민 2001년 1월)

부시행정부가 이처럼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필사적으로 가로막아나서며 남북관계를 6.15공동선언이전의 대결원점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한반도를 냉전의 기류속에 몰아넣고 무기시장을 확대하여 심각한 불황에 처한 미국경제를 살려내며 한반도를 군사적 패권주의의 시험장으로 써먹으려는데 있다.

미국을 위해 우리 민족의 화해와 대화를 가로막아 나서고 혈육간의 왕래와 상봉까지 차단하고 있는 부시야말로 민족배타주의가 골수에까지 밴 우리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수이다.

3. 전쟁위기를 몰아온 죄악

6.15공동선언으로 화해와 완화의 난류가 흐르던 한반도에는 부시행정부의 등장으로 냉전의 한류가 밀려들게 되었다.

첫째, 전쟁내각세우기

부시정권은 그 출신 자체가 화약내 풍기는 국방색정권으로 생겨나고 전쟁내각으로 등장했다.

걸프전의 주범인 애비 조지 부시를 빼어 닮은 주전론자인 부시는 백악관의 외교안보팀을 그 차관급에 이르기까지 강경보수파일색으로 앉혔다.

부대통령과 국무장관, 안보보좌관에는 다 전임 부시행정부시절 각각 국방장관, 합참의장, 안보보좌관으로 있으면서 걸프전의 맹수로, 대소봉괴작전의 귀신으로 악명 떨친 철저한 힘의 광신자들인 체니, 파월, 라이스를, 국방장관에는 미사일방어체제개발을 제안한 포드행정부때의 국방장관 럼스펠드를, 국무부장관에는 페리보고서에 대칭되는 보수적인 아미티지보고서를 제출했던 매파출신 아미티지를, 국방부장관에는 미사일방어체제구축과 대북강경정책을 제창해온 월포위츠를 골라앉혔다. 모두가 군부출신이고 주전론자들이며 대북강경파들이다.

≪국방색정권인 부시정권은 미사일방어체제라는 도끼로 자기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내리찍겠다는 백색테러를 추구하면서 북은 빨갱이정권이므로 붕괴시켜야한다고 지껄여대고 있다.≫(말, 2001년 7월)

≪주전론자들로 꾸려진 부시정권의 세계전략은 한마디로 대국주의적인 패권체제를 군사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기독교방송 2002년 1월 4일)

≪부언하면 일단 아프간전으로 시동이 걸린 전쟁정책을 지속시켜 전쟁국가로써의 기능을 극대화하여 패권을 쥐겠다는 것이며≫(기독교방송 2002년 1월 4일) ≪자기 말을 듣지 않는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평정하고 이 세계를 힘센 자들의 정글세계로 만들겠다는 것이다.≫(한겨레 2002년 1월 4일)

둘째 전쟁공조체제쌓기

≪부시정권이 한미관계기조로 삼고 있는 한미공조체제란 한국을 미사일방어체제에 끌어들이고 미일에 편입시키며 반테러전에 결박할 것을 겨냥한 전쟁공조체제이다. 이것을 위해 한국에는 파월국무장관과 아미티지국무부장관 등 미사일방어체제관계자들이 연속 쓸어들어 밀담을 벌여놓고 미사일방어체제에 필요한 무기구매를 강박하여 왔다.≫(한겨레 2001년 6월 29일)

≪이에 뒤이어 지난해 7월 월포위츠미국방부장관이라는 자는 한반도에 공중레이저 무기개발배치가 필요된다고 공언하였으며 전 태평양지역 미해군사령관이라는 자는 우리의 제1주적은 북한이다. 한국정부가 패트리어트미사일을 사다 배치하면 그것이 바로 전역미사일방어체제이라고 지껄여댔다.≫(경향신문 2001년 7월 16일, 민 2001년 4월)

≪현실적으로 한미간에는 미사일방어체제에 필요한 패트리어트와 스탠다드미사일발사대를 비롯한 무기들과 부품거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미사일방어체제준비를 위한 한미군사협력체제가 가동되고 있으며 미국방부는 앞으로 2003년까지 북으로부터 20에서 50킬로미터 떨어진 동해상에 요격미사일 30기를 장착한 이지스함을 배치하고 미사일방어체제 첫 시험무대를 동해로 선정하는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제2라디오 2001년 5월 10일)

≪오늘 미국과 일본, 한국은 다같이 심상치않은 경제적 침체속에 있다. 그 출로를 전쟁에서 찾으려는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대변하여 미국과 일본에서는 주전파 우익보수정권들이 등장하였다. 이들에게 있어서 6.15공동선언에 서명하고 평화선언이나 들고 다니는 한국정권이 고울리 없다.

지금 부시행정부가 한국의 우익보수세력을 밀어주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냉전기득권세력을 복귀시켜 전쟁체제를 만들어내려는데 있다. 부시행정부는 9.11사건이 일어난후 한국에 아프간전 파병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반테러전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강박해나섰다.≫(제1라디오, 2001년 11월 15일)

이것은 한국을 미국의 전쟁수레바퀴에 얽어매고 한미전쟁공조체제를 굳혀 나가기 위한 것이였다.

셋째, 전력증강달리기

≪부시행정부는 북에는 일방적인 무기감축을, 남에는 무기강매를 요구하는 이율배반적인 전력증강달리기에 나서고 있다. 부시의 이 전력증강달리기, 전쟁달리기는 한국의 언론들이 지적한 것처럼 북이 입고 있는 모든 옷을 벗겨 무방비상태로 만들어놓고 힘들이지 않고 먹어보겠다는 북한죽이기론이다.≫(말, 2001년 7월)

≪부시행정부는 바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북에는 미사일개발수출금지를 강박하면서 이남에는 2004년까지 사거리 300킬로미터 다연장전술지대지미사일 111기, 패트리어트지대공미사일들을 강매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북에는 재래식무기감축을 강박하면서 이남에는 공중사령탑으로 불리우는 조기경보기, 공군차기유도무기, 쌈엑스두께 대대, 공군차기전투기(FOX), 육군 차기공격헬기(AHX), 해군 이지스급구축함(KDS3), 지휘헬기(VHX), 무인정찰기(UAV) 등 총10조원에 이르는 무기들을 지난해부터 강매하고 있다.≫(신동아, 2001년 4월)

≪이와 함께 주한미군에는 구형 아파치헬기들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동시에 정찰용 무인항공기, 팝아이미사일, 아프간전에서 사용된 벙커버스토보다 더 강력한 갱도파괴 신형무기들을 도입하기로 하였다.≫(한겨레, 2001년 12월 5일, 조선일보, 2001년 5월 14일)

≪그리고 북침전에 대비한 새로운 기동타격여단을 금년까지 새로 편성하기로 하였다.≫(제1라디오, 2001년 5월 16일)

군사적 위협을 조성하고 있는 깡패국가는 바로 미국이다.

넷째, 전쟁구실만들기

≪지난해 11월 27일 부시는 북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날 부시는 백악관에서 가진 특별기자회견에서 북한은 대량파괴무기개발과 확산을 중단해야한다. 그 여부를 확인할수 있도록 필요한 검증을 허용해야한다. 대량파괴무기를 지원할 경우 테러리스트와 다를바 없으며 미국의 공격대상이 될수 있다라고 경고하였다.≫(제1라디오, 2001년 11월 27일)

≪기자회견이 끝나자 내외신들속에서는 탈레반붕괴이후 전쟁확대가능성이 적극 고조되는 시점에서 나온 그의 망언은 북한에 보내는 압박용 최후통첩이라는 평들이 쏟아져나왔다. 이보다 앞서 11월 19일 존 볼튼 미국무부차관은 제네바에서 열린 생물무기금지협약 국제회의에서 한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수주일안에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생물무기와 세균무기를 생산할수 있는 국가라고 비난하였다.≫(제1라디오, 2001년 11월 20일)

이것은 지금까지 미사일방어체제개발을 위한 명분용으로 써오던 북의 핵문제와 미사일문제에 새로 생물화학무기문제까지 포함시켜 대량파괴무기라는 어마어마한 용어로 포장해 가지고 전쟁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카드로 써먹으려는 사전준비작업이였다.

부시의 대북최후통첩에 뒤이어 미국의 정보계는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수출하고 있다느니 알카에다가 북한과 이라크와 같은 테러지원국들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사들이려할지 모른다느니 탄저균이 북한에서 생산된 것일수 있다느니 하는 여론조작으로 이북을 테러와 연결시키려는 시나리오들을 연출하였다.

때를 같이하여 뉴욕타임스에는 ≪탈레반 다음은 누구 북조선을 잊지말라≫라는 기사가 실리고 부시행정부의 호전광들속에서는 다음에 반테러전의 목표는 북조선이 될수 있다.

광범위한 사찰을 거부할 경우 외교보다는 전쟁이 우선시될수 있다는 전쟁폭언들이 꼬리를 물고 뻗어지고 있다.

대량파괴무기라는 선동적인 용어로 북침전쟁구실을 만들어가지고 북을 압박해오던 부시호전광은 마침내 지난 1월 29일 연두교서에서 북은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이라는 악담을 줴쳤다. 이것은 반테러확대전의 목표를 이북으로 공시한 북에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였다.

원래 부시정권의 새로운 21세기 군사전략의 기본 과녁은 아프간이 아니라 이북이였다. 부시행정부가 출범하자부터 있지도 않는 북의 군사적 위협을 계속 눈덩이처럼 불궈가며 도저히 허용할수 없는 강도적 요구를 내걸고 북을 압박해온 것은 미국의 세계전략중심으로 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관문에 반미전방도로로 서있는 북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것이였다.

9.11사건후 지금까지의 움직임은 북을 반테러전쟁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것이였다. 아프간전쟁을 개시하자 한반도의 남쪽에 새로운 기동무력을 전진배치한 것은 북침작전을 노린 것이였고 아프간전에서 승산이 보이자 대량파괴무기문제를 거들고 나온 것은 전쟁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였으며 ≪악의 축≫폭언은 북침전쟁을 위한 도발적인 포고였다.

2월 19일 부시의 서울행각은 이것을 현지에서 확인하고 실전에로 넘어가기 위한 전쟁행각이다. 이것은 미국이 패권적 세계전략을 위해 남과 북의 우리 민족 모두를 핵전쟁의 참화속에 멸살하려는 대범죄전이다. 부시야말로 테러의 두목이고 악마의 화신이며 전쟁깡패이다.

모든 사실은 부시행정부가 선임정권과는 다르게 한반도문제를 힘으로 낙착짓기로 했다는 것을 실증하여준다. 우리 민중은 부시의 서울행각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강령인 6.15공동선언이 백지화되고 이 땅에서 민족공멸을 가져올 전쟁의 불꽃이 튕기는 것을 방관시할수 없다.

바야흐로 반세기이상 미국때문에 민족분단의 재난속에서 민족자주권과 존엄을 짓밟히고 뼈와 살점을 뜯기우며 수난민으로 살아온 우리 민중이 미국과 총결산을 지을 때가 왔다.

우리 민중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와 함께 부시의 서울행각을 결사반대 배격하는 거족적인 반미반부시투쟁에 분기하여 악의 왕초인 부시에게 준엄한 징벌을 내릴 것이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이 기회에 악의 제국 미국과 총결산을 짓고 6.15공동선언을 이행하여 이 땅에 자주, 평화, 통일을 안아오려는 우리 민중의 정의의 투쟁에 국제사회가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표시해주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91 (2002)년 2월 13일
서울

21세기 태양이시며 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이남청년주체주의자대오는 민족최대의 명절, 인류공동의 경사로 되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60돌을 맞이하며 우리 청년전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다함없는 경모와 열화같은 충효의 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만수축원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탄생하신 역사의 2월 16일은 우리 민족이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대행운의 날이며 온 인류가 무궁토록 찬양할 주체시대의 영원한 명절입니다.

만고절세의 빨찌산장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항일대전, 조국전쟁의 불길속에서 성장하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필생의 사명으로 삼으시고 수십여성상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대수령에 대한 가장 고결한 충정으로 수령님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하시며 주체연호와 태양절, **김일성**헌법을 제정하시어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 것은 태양민족, 주체시대와 더불어 영원할 대위훈입니다.

천재적 사상이론가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사상을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시고 사회주의이론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며 우리 시대의 이론실천적 문제들을 해명하시어 주체위업과 전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완성할 수 있는 향도이념을 뚜렷이 밝혀주시였습니다.

실력가형 영도자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선노동당을 인류최강의 정치조직으로, 조선인민군을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며 온 사회를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꾸리시어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이 최상의 수준에서 이룩된 주체조선의 새로운 전성기를 창조하시였습니다.

백두의 천출위인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역사에 둘도 없는 시련의 시기를 최강의 선군정치로 맞받아나가시며 미제국주의와의 총포성없는 대결전을 승리로 이끄신 위업이야말로 백두산장군다운 무비의 담력과 특출한 실력의 결실이며 온 세상을 탄복시킨 기적적 위훈입니다.

장군님의 걸출한 영도가 있었기에 조선민중은 강성대국의 웅대한 전망을 확신성있게 내다보며 ≪우리 힘 당할 자 세상에 없다≫는 든든한 배심을 가지고 되었으며 온 나라에는 우리 수령, 우리 사상, 우리 군대, 우리 제도가 제일이라는 만세의 환호성이 차넘치게 되었습니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숭고한 이념하에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를 밝혀주시었으며 내외반통일세력의 전쟁책동을 제압하고 모든 통일애국역량이 대단합을 이룩할 수 있는 획기적 국면을 창출하시었습니다.

세계적인 정치원로이신 **김정일**장군님이 계시기에 오늘 주체조선의 국제적 지위와 자주적 존엄은 하늘에 닿고 있으며 인류는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해방운동과 사회주의재건운동을 힘차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실력, 거룩한 풍모를 체현하시고 조국청사와 인류역사에 불멸의 금자탑을 쌓아올리시고 계시는 우리 시대의 걸출한 위인, 위대한 태양이십니다.

김정일장군님의 거대한 업적에 필승의 신심과 무한한 용기를 얻고 있는 우리 민중은 가까운 장래에 반드시 조국통일이 이룩될 것을 심장으로 확신하며 가열차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투사들은 장군님께서 조미공동코뮈니케와 6.15공동선언, 조러모스크바선언으로 열어주신 전례없이 유리한 국면을 십분 활용하며 하나의 혁명영도체계로 주체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전략전술로 주체의 역할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우리들은 청년주체주의자대오와 변혁운동대오의 주체사상화와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을 찬양하는 각계민중의 숭배열기가 활화산처럼 분출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자주통일대행진을 힘차게 벌여 올해를 자주, 민주, 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여는 승리의 해로 빛내일 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 계시기에 21세기는 통일강성대국의 세기로 찬란히 빛날 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건강은 겨레와 인류의 최대의 행복이며 간절한 소망입니다.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청년전사들과 애국민중의 일치한 염원을 담아 21세기의 태양이시며 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영원히 젊어계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향도따라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이남청년주체주의자대오
통일여명 편집국 6.15주간 편집부 인터넷구국의소리 편집인
주체 91(2002)년 2월 16일
서울

주체 91년 청년주체주의자대오의 10대 맹약

청년주체주의자동지들에게 보내는 통보(통일여명 편집국 보도 55호)

1.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대오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통일혁명 사상과 전략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며 이를 변혁운동대오에 널리 전파한다.

2.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대오는 백두산3대장군의 사상과 영도, 풍모의 위대성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여 각계민중의 숭배열기가 온 남녘땅에 대하로 굽이치게 한다.

3.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대오는 우리 대오와 변혁운동대오의 주체사상화와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주체역량강화의 비약적 국면을 창출한다.

4.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대오는 모범적인 활동으로 한총련내 민주주의를 적극 발양시키며 나아가 전체 청년학생운동대오의 통일단결을 실현한다.

5.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대오는 청년학생운동과 노동운동, 농민운동의 연대연합을 강화하는 한편 청년활동가들을 대거 육성하여 기층민중속으로 투신시킨다.

6.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대오는 통일연대와 민중연대를 확대강화하며 올해 반드시 큰 덩어리의 통일전선체를 건설한다.

7.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대오는 민주노동당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 민족민주세력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며 양대선거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한다.

8.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대오는 대선에서 진보세력의 정치적 진출을 이룩하는 한편 개혁세력과 연대하여 6.15공동선언지지후보를 당선시킨다.

9.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대오는 미군철거의 전략적 구호와 전술적 단계의 요구를 묘술있게 배합하여 반미투쟁을 대중운동의 수준으로 상승발전시킨다.

10.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대오는 6.15공동선언의 기치하에 민족자주통일대행진을 전개함으로써 2002년을 6.15공동선언실현의 해로 빛내인다.

위대한 장군님의 향도따라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청년주체주의자대오
통일여명편집국 6.15주간편집부 인터넷구국의소리편집인
주체 91(2002)년 2월 16일
서울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공동기조보고

2002년 범민련 운동방향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남과 북, 해외에서 6.15 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열망이 날로 높아 가고 있는 시기에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회의에 앞서 조국통일과 범민련 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남북해외 각 지역본부 전체 성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새 세기 첫해인 지난해는 조국통일운동이 소수 운동단체의 테두리를 벗어나 전 민족적 범위에서 힘차게 벌어지고 남과 북, 해외의 광범한 단체들의 연대, 단합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 되여 통일운동의 전환적 계기가 마련된 뜻 깊은 해였습니다.

이러한 정세발전 속에 범민련은 지난해 민족자주통일운동이 강화되는 현실적 조건에 맞게 6.15공동선언을 지지 관철하여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어 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였습니다.

범민련은 우선 민족통일의 통일이정표인 6.15 공동선언을 활동강령으로 내세우고 활동을 새롭게 벌여 해내외 온 겨레를 그 이행에로 힘있게 불러 일으켰습니다.

특히 6.15공동선언을 반영하여 범민련 강령과 규약을 새롭게 수정하여 발표하고 활동방식에서도 종래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단체들과 발걸음을 같이하며 함께 손잡고 나아감으로써 남북해외를 포괄하는 통일운동연합조직으로서의 범민련의 모습을 힘있게 과시하였습니다.

남측본부는 개정된 강령규약 해설 선전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여 지난날 범민련과 그 활동에 대하여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던 여러 단체들과 인사들이 범민련 운동에 공감하고 6.15 공동선언 관철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였습니다.

북측본부는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외세의 간섭을 막으며 해내외 광범한 대중이 남북공동선언 지지 관철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는데 기여 하였습니다.

해외본부도 여러 계기들에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일행사를 조직하고 광범한 동포대중들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벌여 나가는 통일대행진에 적극 합류해 나서도록 하였습니다.

범민련은 다음으로 범민련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통일운동을 거족적이고 대중적 운동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지난해 범민련 결성이후 처음으로 남과 북, 해외의 본부대표들이 공식적으로 한자리에 모이고 각계층 단체대표들과 같이 민족통일대토론회와 8.15 통일대축전을 진행한 것은 범민련통일운동의 획기적 발전입니다.

남측본부는 지난날의 운동관념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민화협》, 《7대 종단》과 적극 연대, 단합하여 통일운동을 벌여 나감으로써 남측본부의 합법화를 위한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고 범민련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을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범민련은 또한 해내외 각계층 동포들의 통일염원과 지성이 깃들어 있는 조국통일3대헌장 기념탑을 통일대기념비로 훌륭히 완공하고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하였습니다.

남측본부와 해외본부들에서는 기념탑 건설에 필요한 석재들과 공구들을 비롯한 많은 물자들을 성심 성의껏 지원하였으며 북측본부도 비록 모든 것이 불리한 조건이지만 새 세기 첫 광복절 전으로 완공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지난해 범민련이 이룩한 귀중한 성과 속에는 남과 북, 해외 각 지역본부 성원들과 공동사무국 성원들의 고심 어린 노력도 깃들어 있습니다.

올해는 6.15공동선언 발표 2돌과 조국통일3대원칙 발표 30돌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범민련은 새해 정초에 진행된 이북의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에서 채택된 3대 호소, 3대 제의가 매우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발기로 된다고 보면서 전적으로 지지 환영합니다.

범민련은 새 세기의 두 번째 해인 올해에 민족자주통일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여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기 위한 보람찬 길에서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다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첫째로, 6.15공동선언을 확고히 틀어쥐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전 민족적 범위에서 계속 힘차게 벌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가는 근본열쇠는 민족공동의 통일이정표로 확정된 6.15공동선언을 확고히 고수하고 철저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범민련 조직들은 올해에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추켜 들고 해내외에서 6.15공동선언지지 관철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나가며 남북공동선언을 말살하려는 온갖 시도들을 반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민족자주통일의 밝은 길을 열어 준 6.15공동선언 발표 2돌을 계기로 남북해외의 광범한 각계층 단체들이 함께 하는 민족통일대축전이 성대히 진행되도록 하는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올해 6.15공동선언 발표 2돌을 계기로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를 성대히 진행하는 것은 이날이 가지는 역사적, 민족사적 의미로 보나 시기적으로 보나 여러 모로 의의가 큽니다.

그리고 올해 5~6월에는 평양에서 10만 명의 청소년학생들과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진행되는 시기이므로 통일행사들을 내용이 있으면서도 민족적 정서가 풍부하게 만들어 나가는데서 더 없는 기회로 될 것입니다.

모든 범민련 조직들은 새로운 시대적 조건에 맞게 민족통일대축전을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광범한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가 밑에 6.15를 계기로 성대히 진행되도록 하며 특히 올해 6.15민족통일대축전 때 6.15공동선언 발표이후 지난 2년 간 조국통일운동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보여 주는 사진 전시회를 크게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의 경험을 살려 올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나가는 운동기간》에도 여러 단체들과 연대 연합하여 남과 북의 화해와 단합을 촉진하는데 이바지하는 방향에서 7.4 공동성명 발표 30돌과 8.15 광복절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계층별 통일행사들을 특색 있게 진행하며 여기에서 범민련 조직들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따르는 거세 찬 흐름을 그 누구도 돌려세울 수 없는 민족사의 기본흐름으로 확고히 전환시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민족자주통일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여 보다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6.15공동선언의 기본 핵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으로 조성된 엄혹한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평화를 지켜 통일운동을 더욱 과감히 벌여 나갈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범민련 조직들은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인 올해에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내외 각계각층 단체들과 굳게 손잡고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통일운동에서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배격하고 민족공조를 실현하기 위한 전 민족적 운동을 힘차게 벌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범민련 조직들은 또한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고 통일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통일운동과 밀접히 결부시켜 벌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부시가 반북 압살 책동에 혈안이 되어 한(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 오고 있는 때 외세와 함께 동족을 반대하여 벌이는 모든 합동 군사연습을 저지 파탄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한 전 민족적인 반전반미투쟁을 적극 벌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가로막는 《주적론》을 철회시키고 반통일악법인 《보안법》을 철폐시키기 위한 운동을 계속 강력히 벌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범민련의 각 지역조직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범민련이 자기의 지위와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는데서 각 지역조직들이 차지하는 위치는 자못 큽니다.
범민련 조직들은 지역의 특성과 환경에 맞게 조직을 확대 강화하고 그 대열을 늘여 나가기 위한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남측본부의 합법화를 실현하는 것을 올해 범민련의 중요목표로 삼고 여기에 모든 힘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범민련 조직들은 또한 올해 진행되는 통일행사들에서 범민련의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범민련 조직들은 새롭게 수정된 강령규약에 맞게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다른 운동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연대, 단합하여 사회적 지지와 대중의 신뢰를 받는 통일운동조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올해에 어떻게 하나 남북해외 대표들이 참가하는 《제9차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와 《범민족회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조국통일에 대한 신심과 낙관을 가지고 6.15 공동선언의 기치 따라 올해를 기어이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어 나갑시다.

우리 민족끼리 단합하고 통일을 촉진하는 해 2월 1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 결의문

빛나는 통일의 세기, 위대한 자주의 시대로 기록될 21세기의 두 번째 해를 맞아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임시공동의장단회의를 개최하였다.

임시공동의장단회의에서는 새해 정초에 진행된 이북의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에서 채택된 3대 호소, 3대 제의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면서 2001년 조국통일운동의 성과를 총화하고 2002년 조국통일운동의 과업을 협의 확정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6.15 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가까운 시기에 조국을 통일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신심을 담아 7천만 겨레 앞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6.15 공동선언을 확고히 틀어쥐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전 민족적인 범위에서 진행하자.

6.15 공동선언은 자주.평화.민족대단결 선언이며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다.

6.15 공동선언에는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민족 재생의 활로가 담겨 있고 부강 번영할 통일조국의 시간표가 그려져 있다.

외세의 민족분열 책동이 날을 따라 극심해지고 이에 맞서는 전민족적인 투쟁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엄숙한 이 시각, 6.15 공동선언을 확고히 고수하는 것은 민족의 안녕과 번영,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한 전 민족적인 통일대행진의 강력한 추동력이다.

정세가 복잡하고 상황이 엄중할수록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6.15 공동선언의 기치를 더욱 확고히 들고 조국통일의 길을 더욱 힘있게 열어 나가자.

2.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민족공조로 7천만 겨레의 대단결을 실현하자.

6.15 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은 민족 자주와 민족 공조이다.

민족 공조의 원칙 아래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다방면적인 접촉과 대화를 발전시키자.

외세와의 공조와 6.15 공동선언, 외세 의존과 민족 공조는 양립할 수 없다.

남북 당국을 포함하여 노동자, 농어민, 청년학생, 종교인, 문화예술인 등 각계각층의 동포 대중은 민족 공조의 원칙 아래 다각적인 접촉과 대화를 발전시키고, 공존, 공영, 공리의 원칙에서 연대와 협력을 확대하자.

올해에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고 조국통일을 적극화, 활성화하여 6.15 선언 이행의 길에서 중대한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6.15 공동선언 발표 2주년을 계기로 민족통일대축전을 성대히 진행하고, 이 기회에 내외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 속에서 북녘 동포들이 준비하고 있는 대집단체조와 ≪아리랑≫을 관람하면서 우리 민족의 단일심과 역사와 문화전통의 유구성을 가슴 깊이 간직하는 계기가 되게 하자.

7.4 공동성명 발표 30돌과 8.15 광복절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지역별 실정에 맞는 통일행사들을 광범하게 진행하여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나가는 운동기간≫을 빛내며 6.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민족자주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거세 찬 흐름을 돌려세울 수 없는 확고한 역사적 대세로 만들자.

3. 6.15 공동선언을 저해하는 반통일세력과 과감히 맞서 싸우자.

부시 행정부가 들어 선 이래 미일 외세의 반통일 책동은 위험 계선을 넘어 서고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화 경향도 이미 실천 단계에 들어섰다.

외세의 대북강경 책동과 한(조선)반도 내정에 대한 간섭, 분열 기도를 방치한다면 다시

금 전쟁의 참화를 면할 수 없다.

21세기에 들어서서도 외세의 간섭을 허용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수치이며 이를 막아 내지 못한다면 6.15 공동선언의 운명도, 민족의 운명도 지켜낼 수 없다.

미일 외세의 반통일음모에 맞서 7천만 겨레의 기개와 용기를 남김없이 과시하자.

반미, 반전 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반외세 투쟁을 가속화하자.

부시의 새 전쟁도발 책동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온 민족이 떨쳐나서자.

민족의 대결과 분열을 조장하는 반통일수구세력을 단죄하자.

6.15 선언이 합의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기운이 막을 수 없는 민족적 대세로 되어가는 이 시점에도 민족의 대결과 반목, 사대와 외세 의존에서 개인의 이익을 구하고 생존을 도모하는 자들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

친미반역자들을 청산하고 조국통일의 기운을 확산시키자.

반통일수구세력을 단죄하며 연북, 연남, 애국애족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자.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민족의 단합과 화해를 저해하는 일체의 반통일적 제도와 기구를 역사의 오물장 속에 매장하자.

4. 범민련을 확대 강화하자.

6.15 공동선언 이후 변화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범민련을 7천만 민족의 사랑을 받는 권위 있는 통일운동조직, 조국통일운동을 선도하는 참다운 대중조직으로 발전시키자.

범민련은 올해에 6.15 공동선언을 확고히 관철하는 길에서 7천만 동포 대중과 함께 싸워야 한다.

7천만 동포 대중을 6.15 공동선언 이행의 길로 확고히 선도하는 여기에 거족적인 조국통일운동 조직으로서의 범민련의 사명이 있다.

범민련의 지역 조직들과 기구를 튼튼히 꾸리고 상호간 연계와 단합을 강화하는 것은 범민련 운동의 주요 과제이다.

올해에 범민련 남측본부에 들씌워진 이적규정을 철회하고 범민련 남측본부를 합법화하기 위해 계속 완강히 투쟁하자.

범민련 남측본부는 7천만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는 길에서 모범을 창출하고, 6.15 시대에 걸맞은 창조적이고 대담한 사업을 통해 범민련 남측본부의 대중적 조직지반을 결정적으로 확대하자.

올해 통일행사들에서 범민련의 적극적인 역할을 더욱 높여 범민련운동의 활성화를 다그치자.

범민련은 2001년의 성과를 계승하여 앞으로도 계속 만나야 한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조국통일운동이 활성화되며 각계각층의 교류와 접촉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함께 제9차 공동의장단회의와 범민족회의를 성사시켜 범민련 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이룩하자.

준엄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낸 7천만 겨레의 단결된 힘은 이제 승리의 영마루에 올라섰다.

7천만 민족의 도도한 통일대행진은 민족 자주의 궤도 위에 들어섰으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기운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단합은 공고하고, 통일의지는 충천하며 승리는 확정적이다.

2002년을 조국통일역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전진의 해, 결정적 도약의 해로 장식하자.

6.15 공동선언 만세!!!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 만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만세!!!

우리 민족끼리 단합하고 통일을 촉진하는 해 2월 1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서울, 평양, 도쿄

새해맞이 행사 26-28일로 확정

≪행사 날짜를 2월 26일경으로 연기하자는 귀측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는 17일 저녁 ≪통일을염원하는2002새해맞이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새해맞이 준비위원회)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팩스문서를 보내왔다.

북측이 남측의 행사연기 요청을 공식 수락함으로써, 2월 19일부터 21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었던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2002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행사는 이번 달 26일부터 28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리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팩스문서에서, 북측은 행사연기를 요청한 남측의 2월 9일자 팩스문서가 2월 13일에야 도착하는 등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측은 이번 행사와 관련, 22일에 금강산으로 출발하는 남측 선발대를 위한 초청장도 함께 보내와 ≪22일부터 금강산에서 미리 만나 행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남측 선발대는 조성우 새해맞이 준비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단장으로 해, 22일 금강산으로 갈 예정이다.

한편, 새해맞이 준비위원회는 내일(19일) 오전 10시 부시 미대통령의 방한과 관련, ≪우리 민족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새해맞이 준비위원회는 이번 달 19일부터 21일까지 열기로 했던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행사를 부시 대통령의 방한으로 인해 26일부터 28일까지로 연기한 만큼,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맞는 민간통일단체의 입장이 부시 미행정부에 전달되어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이번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행사가 성사되기까지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월 29일 – 2월 2일 : 남측 준비위원회는 북측과 평양에서 진행된 남북 실무대표회담에서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금강산에서 남과 북의 대표 각 100명과 남측 참관인 250여명의 참가 아래 ≪2002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을 진행하기로 합의함.

▲ 2월 7일 : 종단 수장회의에서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행사기간과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 날짜가 겹침으로서 시기적으로 민감해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서 일주일 정도 연기할 것을 요청함.

▲ 2월 9일 : 남측 준비위원회는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행사를 2월 26일에서 28일까지로 연기하자는 내용의 팩스를 북측에 보냄.

▲ 2월 16일 : 남측 준비위원회는 2월 9일자 팩스 내용을 다시 북측에 보냄. 그 이유는 2월 9일자 팩스문서가 2월 13일에야 도착하는 등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됨.

▲ 2월 17일 : 북측에서 남측의 행사연기 요청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팩스를 보내옴.

이계환 기자 (tongil@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2-02-18

서울지역 (총)학생회장단, 금강산 탐방

유뉴스-현대아산 공동주최, ≪통일체험학습≫ 목적

서울지역 학생회장단이 오는 22일부터 2박 3일동안 남북화해와 통일에 이바지 하는 ≪금강산 평화관광≫ 탐방길에 나선다.

유뉴스와 (주)현대아산의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금강산 관광 활성화≫와 ≪대학생 금강산 모꼬지 가자≫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고려대, 서울시립대,숭실대, ≪한국≫외대,항공대,연세대 등 14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대학사회의 리더그룹이 남북경협사업의 현장을 먼저 체험하고 향후 대학생 금강산 통일체험학습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개된다.

학생들은 22일 서울을 출발해 구룡연 · 삼일포 · 해금강 코스를 관광하고 북측 교예단의 공연을 관람하고 24일 귀경한다.

유뉴스는 지난해 12월 기획, 1월 초부터 시작한 ≪대학생 금강산으로 모꼬지 가자≫ 캠페인을 기획시리즈 기사와 이벤트 사업 등을 통해 계속 진행중이다.

유뉴스 2002년 2월 19일

52년 전, 미제침략군의 거창양민학살만행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2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일입니다.

미제침략군이 거창양민학살만행을 자행한 때로부터 52년이 됩니다.

지금 각계 민중은 ***연합군 살인마집단인 미제침략군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저주를 금치 못하고있습니다.

한반도 지배야망을 실현해보려고 기어이 북침전쟁을 도발한 미제살인귀들은 1951년 2월 11일 국군을 내몰아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에서 무고한 여성들과 어린이들, 노인들과 병약자 등 700여명의 주민들을 집단살육하는 치떨리는 만행을 감행했습니다.

오늘도 거창의 학살전장에서는 미제침략군의 살인만행을 고발하는 유해들과 증거물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고 억울하게 죽은 수많은 영령들의 유족들이 **속에 천백배 복수를 다지고 있습니다.

인간사냥을 본업으로 하고 침략과 전쟁을 **으로 하고 있는 것은 미제침략군의 흡혈귀적 본성이며 음흉한 본성인 것입니다.

미제침략군은 이 땅을 비법강점한 첫날부터 우리 국민을 상대로 살인과 방화, 파괴와 약탈, 폭행치사행위들을 끊임없이 감행해왔습니다.

8.15광복후 제주도 4.3봉기와 대구 10월민중항쟁, 2.7구국투쟁 등 자유와 민주주의, 조국통일을 절규하는 우리 민중의 정의의 투쟁들을 총칼과 탱크로 무자비하게 탄압한 것도 해방자의 탈을 쓴 미제침략군이였고 6.25전쟁시기 거창과 영동군 노근리, 경산과 이리 등 발길 닿는 곳마다에서 짐승도 낯을 붉힐 야수적 방법으로 350만의 우리 민중을 무참히 학살한 것도 평화의 사도를 자처하는 미제침략군이였습니다.

휴전후 4.19봉기로 밝아오는 조국통일의 여명을 칼로 난도질하고 80년 5월 광주시를 피바다로 만든 장본인도 다름아닌 우방으로 둔갑한 미제침략군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야수들은 노근리양민학살사건을 비롯해서 만천하에 드러난 저들의 범죄적 살육만행을 가리우고 그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비열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간과할수 없는 것은 미국 부시행정부가 지금 위험천만한 대북강경망언을 연이어 늘어놓으며 한반도정세를 극도로 격화시켜 6.15공동선언이행을 전면 차단하고 이 땅에서 북침전쟁도발을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엄혹한 현실은 이리가 양으로 변할수 없듯이 미국의 침략적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인간의 탈을 쓴 야수, 미제침략군을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 국민이 어느 하루도 편안히 살수 없고 예속민의 치욕스러운 굴레에서 벗어날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제침략군을 이 땅에서 하루빨리 몰아내고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제입니다.

각계 민중은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유린하고 이 땅에 또다시 핵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고 있는 침략과 전쟁의 원흉, 민족분열의 장본인인 미제침략군을 내쫓기 위한 거족적인 반미자주화투쟁에 분기해나서야 합니다.

당면하여 전국 도처에서 활화산 마냥 분출하고 있는 미군양민학살만행진상규명운동과 주한미군기지철폐투쟁, 부시방한반대투쟁 등 반미투쟁들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더 활성화해 나가야 합니다.

미국은 우리 국민의 반미의지를 똑바로 보고 무모한 대북고립압살기도를 버려야 하며 미제침략군을 즉각 철수시키고 이 땅에서 감행한 모든 양민학살만행에 대해 진솔한 규명과 사죄, 응분의 보상을 해야합니다.

우리 민중은 거창과 노근리 등 경향 각지에서 미제침략군이 감행한 양민학살만행의 진상을 끝까지 파헤치고 그 댓가를 반드시 결산하고야 말 것이며 6.15공동선언의 기치높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끝내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고야 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기자회견 가져

≪사죄와 배상없이 부시는 한 발도 디딜 수 없다≫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둔 18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전국유족회)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인학살 문제를 한미정상회담 의제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이복녕 전국유족회 고문은 ≪100만 민간인학살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배상없이 부시는 이 땅에 한 발도 디딜 수 없다!≫는 제목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최근 미국 상원의원들이 ≪노근리 사건을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고 최근 영국 BBC방송이 ≪학살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체계적인 명령에 의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학살 만행임을 폭로≫했다고 소개했다.

전국유족회는 따라서 ≪미국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모든 민간인 학살 사건을 한미정상회담의 의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방한 중 미 최고위층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을 요구≫했다.

이재기 상임공동대표는 미군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사례 를 소개하면서 인천 상륙작전 뒤 상륙 첫날에만 1,300여명의 민간인이 학살되고 9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55,909명의 주민들을 공산분자로 매도 검거투옥, 학살하는 등 전국적으로 50여 지역에서 피해사례가 증언되고 있다면서 29건의 사례를 명시했다.

김상태 상임공동대표는 ≪민간인학살 문제 한미정상회담 의제채택 요구서≫ 를 통해 ≪우리 유족들은 학살이 일어난 1950년 당시부터 지금까지 52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단 한순간도 분노와 한을 잊어본 적이 없다≫며 ≪진실을 밝히려는 우리 유족들의 처절한 몸부림에는 철저한 탄압이 뒤따랐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요구사항으로 △한미정상회담에서 민간인 학살문제를 정식의제로 채택 할 것 △미국은 한반도에서 일어난 모든 민간인 학살의 자료공개 및 진상을 규명하고 민간인 학살 만행에 대해 그 유족과 ≪한국≫ 국민들에게 사죄배상 할 것을 제시했다.

김치관 기자 (tongil@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2-02-18



무장 미군병사 민간인 폭행 ≪말썽≫

총 개머리판으로 어깨와 얼굴 폭행





무장 미군 흑인병사가 민간인을 무기로 폭행하는가 하면 대형 차량으로 밀어붙여 부상을 입히는 등 폭력을 가해 말썽을 빚고 있다.

민속 최대 명절 설날인 지난 12일 밤 7시께,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에 사는 우경복(47) 씨가 미 2사단 공병여단 82공병중대 소속 무장 흑인 미군병사에게 총 개머리판으로 어깨와 얼굴부위를 폭행 당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우 씨가 미군 트레일러가 마을을 통과하자 ≪마을길을 통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차량을 막는 과정에서 미군 흑인병사가 총과 차량을 이용해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사건은 우 씨가 ≪미군 차량이 마을로 안 다니기로 하고 왜 또 다니느냐≫고 항의하자 미군 병사가 우 씨에게 ≪갓 뎀≫이라고 욕을 하면서 불거졌다.



우 씨는 미군 흑인병사의 욕설에 항의하며 차량을 막는 등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총 개머리판으로 어깨 부위와 얼굴 부분을 가격 당해 4곳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흑인 미군병사는 차량을 막고 항의하는 우 씨를 트레일러 차량으로 밀어붙이는 하면 우 씨가 넘어져 견인용 고리를 잡고 있는데도 ≪렛츠 고≫라며 차량을 전진시켰다고 분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 씨가 허리와 머리를 도로에 부딪히며 충격을 받아 파주시 금촌동의 명지병원에서 X-레이 촬영을 하는 등 치료를 받았다.

우 씨는 오늘(14일)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으며 허리가 아프고 구토를 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내일(15일) 뇌 CT 촬영 등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파평면 장파리는 그 동안 미군 탱크가 농민들이 널어놓은 벼를 짓밟고 가는 등 스토리 사격장과 다그마 훈련장으로 인해 주민 피해가 계속돼 대책을 호소했었다.

이에 따라 미8군에서는 지난 해 8월 ≪마을길을 통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최근 들어 차량통행이 재개되고 있다.

한편 미군 측에서는 ≪말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회 기자 junhoi@kg21.net

민족의 역적을 기어이 매장하자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2월

이회창의 반북반통일광증이 날이 갈수록 극도에 달하고 있다.

얼마전 이회창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라는데서 또다시 이북을 걸고들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문제의 해결없이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느니 과거 핵활동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아들여야한다느니 미국과의 신뢰를 강화해서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평화를 위한 공동전략을 마련해야한다느니 하고 떠벌였습니다.

이회창의 이 망발을 두고 지금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은 치솟는 분격을 금치 못해하고 있습니다. 그러지않아도 이회창의 미국행각을 두고 분노의 치를 떨고 있던 우리 국민이였습니다.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이회창의 미국행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민족의 영구분열을 노린 반역자의 추악한 매족행각이였고 나라와 민족의 이익을 팔아 대권을 이뤄보려는 정치사기군의 비열한 구걸행각이였습니다.

바다건너 상전을 찾아가 반북반통일을 구걸하고도 모자라 돌아와서도 그것을 제창하는 이회창을 보니 역시 천하에 둘도 없는 친미사대매국노라는걸 더욱 똑똑히 알수 있습니다.

참으로 대북강경정책으로 6.15공동선언이행을 가로막고 한반도를 새전쟁의 소용돌이속에 몰아넣으려는 부시행정부의 악에 추종해 나서는 것보다 더한 민족반역인 것입니다.

이회창은 미국행각에 이어 이번에도 민족의 염원에 도전하여 북을 심히 자극하고 한반도정세를 예측할수 없는 전쟁접경에로 몰아가는 씻을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더욱이 문제시하지 않을수 없는 것은 이회창의 망발이 부시의 방한을 앞두고 튀어나왔다는 점입니다. 이건 부시방한을 계기로 제놈의 미국행각때처럼 또다시 미국의 비위를 맞추고 그의 충실한 주구라는 걸 보여주며 그 댓가로 상전의 신임으로 대통령감투를 기어코 뒤집어 써보려는데 있습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분노가 더욱 치밀어 오릅니다. 이제 더이상 이런 친미역적을 그대로 놔둘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회창과 같은 민족반역아가 권좌에 앉으면 남과 북은 화해와 협력이 아니라 대결과 전쟁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이건 지난 시기 민족반역자들의 행각이 보여준 심각한 교훈입니다. 이회창과 같은 추악한 매국노, 반통일역적, 너절한 인간쓰레기가 야당총재의 감투를 쓰고 버젓이 활개치고 있는 자체가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의 수치입니다. 청년학생들은 민족반역아 이회창을 매장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지펴올려야 할 것입니다.

학생운동조직들과 운동핵심들은 지금 벌이고 있는 ≪이회창정치활동대학생감시단≫을 비롯한 반이회창투쟁을 이회창을 정계에서 축출하기 위한 보다 강도 높은 투쟁에로 지향시켜 나가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들과 학생들 그리고 이 학교출신의 모든 사람들은 신성한 교내에 민족반역자 이회창의 행적이 찍혀 있는 것을 대외적 수치로 낙인하고 그를 제명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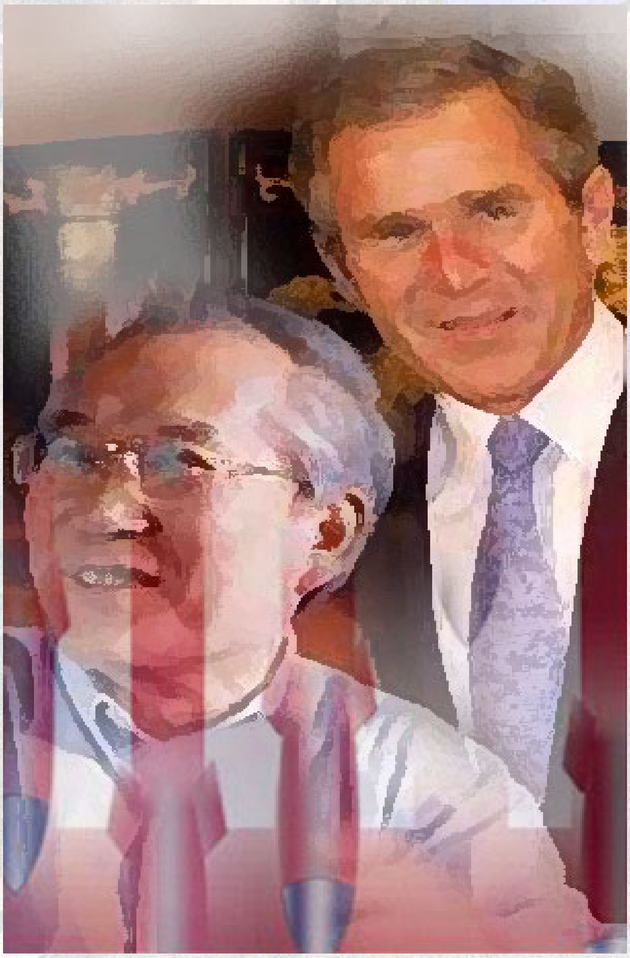
반이회창투쟁을 벌이는데서 중요한 것은 이 투쟁을 반부시반미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청년학생들은 부시의 방한과 관련해 불타고 있는 반부시반미기운을 더욱 고조시켜 나감과 동시에 당면한 반이회창투쟁도 다같이 벌여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조선일보반대투쟁의 불길을 거세게 지펴올려 이회창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미국의 졸개들이 마음대로 활개치지 못하도록 기를 꺾어놔야 합니다.

반이회창투쟁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연대공동투쟁을 잘 벌이는 것입니다. 당면하여 청년학생들은 지난 2일 민중연대와 민주노총를 비롯한 재야운동단체들이 부시방한반대투쟁을 벌여나선 여건에서 이들의 투쟁에서 총합세해서 범국민적인 반미공동전선을 형성해야합니다. 그리고 높아진 전국민적인 반부시반미공동투쟁의 불길이 반이회창, 조선일보반대투쟁의 불길과 합세해 거세게 타번지도록 해야합니다. 그리하여 부시의 전쟁행각을 저지시키고 상전의 환심을 사서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으려는 이회창의 흉계를 파탄시켜야합니다.

오늘 반이회창투쟁을 벌이는데서 우리 청년학생들이 지닌 의무는 막중합니다. 백만 청년학생들은 시대와 역사앞에 지닌 숭고한 의무를 자각하고 이회창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민족의 역적들을 매장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봉장으로써의 의무를 다해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겨레는 민족자주통일로 향한 발걸음을 힘있게 내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회창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반통일역적들은 민족자주통일에로 향한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온갖 반역행위를 자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일세력이 제아무리 별의별 짓을 다해도 자주통일의 거세찬 흐름은 결코 막을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학생들은 각계 민중과 힘을 합쳐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일역적들을 기어이 매장하고야 말겁니다.



반이회창투쟁과 국민의 자세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2월

최근 통일애국단체들을 비롯해서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 민중은 6.15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동족을 모해압살하며 사대와 외세의존을 추구하면서 민족반역의 길, 반통일의 길로 줄달음치고 있는 이회창의 범죄행위를 단죄규탄하는 투쟁을 줄기차게 벌이고 있습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서총련 등의 참석하에 진행된 6.15남북공동선언실천총결산대회에서는 미국에 붙에 공동선언이행을 앞뒤에서 방해하는 이회창과 같은 반통일역적을 규탄한다는 반이회창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들은 결의문에서 ≪우리는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조국의 통일과 번영의 유일한 길임을 다시한번 확인하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남북해외 7천만 겨레와 굳게 단결하여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민족을 배반하고 외세에 추종하는 민족의 역적 이회창을 정계에서 영원히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할 것이다.≫라고 자기들의 투쟁결의를 표명했습니다.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청년학생연대준비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반통일세력의 우두머리인 이회창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공동선언이행을 한사코 막아나서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환심을 사서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실현하자는 것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폭로했습니다.

청년학생들은 성명에서 ≪외세의 간섭없는 통일만이 7천만 민족의 살길이며 반통일세력들의 존재가 오래지않아 끝난다는 것은 50여년 분열민족사의 교훈이며 국민다수의 상식이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6.15공동선언에 역행하여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회창과 한나라당의 어떠한 행위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도 범청학련 남측본부, 전국연합을 비롯해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 민중은 외세공조가 아닌 민족공조로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마련하고 미국의 대북긴장고조정책철회, 반전평화미군철수운동을 더욱 강력히 벌이며 이회창을 비롯한 극우세력반대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을 결의하고 그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계 민중이 반이회창투쟁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것은 반통일세력을 척결하고 조국의 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민족의 확고한 의지와 온 국민의 일치한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회창은 6.15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위배되게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고 민족자주가 아니라 사대와 외세의존을 추구하고 조국통일이 아니라 민족의 영구분열을 획책하고 있는 민족반역자이고 반통일분자입니다.

지난 1월말 미국행각을 통해서도 그는 다시한번 자기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놓았습니다.

이회창이 미국행각시에 군부호전계층을 비롯한 미국상전들을 찾아다니면서 남북관계진전을 가로막아보려고 상호주의니 투명성이니 검증성이니하며 6.15공동선언이행에 제동을 걸고 한미공조를 운운하면서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은 그것을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앞에 씻을수 없는 만고대죄를 저지른 이회창의 죄악은 결코 용납될수 없으며 그 자신은 민족의 역적으로써 온 겨레의 분노와 투쟁의 표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오늘 반이회창투쟁을 벌이는 것은 공동선언의 성과적 이행은 물론 민족자주통일의 획기적 국면을 마련하기 위한 절박하고도 필수불가결의 과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이회창투쟁에 대한 태도는 민족자주와 사대, 통일과 분열의 척도를 재는 기준으로 됩니다.

각계 민중은 반이회창투쟁이 갖는 의미를 똑바로 인식하고 그의 사대주의적이고 외세의존적인 발상과 반통일적인 작태를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사소한 타협도 없이 완강한 투쟁을 끊임없이 벌여나가야 합니다.

통일애국단체들과 각계 민중은 이회창의 범죄적 죄악을 폭로규탄하며 통일을 지향하는 온 국민이 반이회창투쟁에 적극 나서도록 홍보활동을 벌여나가야 합니다.

투쟁의 위력은 단결에 있습니다. 민족자주,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온 국민이 굳게 단합하고 통일애국단체들을 비롯해서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 민중이 연대연합해서 반이회창투쟁을 벌이는 것은 반통일세력을 무력화시키고 통일애국세력의 승리를 위한 필수적 요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세의 비호밑에 이회창을 비롯한 냉전수구세력과 호전분자들이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거세말살하고 사대와 외세의존으로 민족자주통일의 앞길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더욱 절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실은 이회창과 같은 민족반역자들의 반통일책동을 분쇄하지 않고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할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자주와 통일을 지향하는 단체들과 각계 민중은 외세에 아부추종하는 이회창반통일집단을 반대하는 연대투쟁에 주저없이 나서야 할겁니다. 바로 여기에 국민이 살 자리가 있으며 반이회창투쟁을 강력하게 벌여나갈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온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수고 자주통일의 길로 나가려는 우리 민중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각계층 민중은 사대와 외세의존을 추구하며 반통일책동에 집착하고 있는 이회창을 수괴로 하는 민족반역집단, 반통일집단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감으로써 민족자주통일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적극 이바지해야 할줄로 믿습니다.



이 총재 방미 관련 여야 ≪논평 전쟁≫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방미 기간 동안 부시 행정부의 ≪악의 축≫ 발언을 사전 조율했거나 양해했다는 승인했다는 내용의 외신(파이낸셜 타임스·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며칠째 ≪논평 전쟁≫을 벌이고 있다. 양 당은 급기야 15일에는 ≪8개항 공개 질의≫와 ≪10개항 공개 질의≫ 등 상대 당을 겨냥한 의혹 리스트를 발표하는 등 확전을 불사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남경필 한나라당 대변인은 ≪≫퍼주기식 대북 정책≫, ≪우왕좌왕식 대미 정책≫에 대한 국민 비난이 고조되자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 야당 총재를 음해하며 물타기에 열중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하며, ≪현 정권의 우왕좌왕식 외교정책에 대한 8개항 공개질의≫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남 대변인은 이날 ≪8개항 공개 질의≫ 논평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무산 책임을 야당 총재에게 떠넘기려고 한다≫며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북한 달래기에만 급급한 현 정권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권이냐≫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남 대변인은 ≪민주당이 주미 한국대사관이 외교부에 보고한 이 총재 방미 활동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결국 양성철 대사는 하라는 대미 외교는 접어둔 채 야당총재 방미 일정을 감시 미행하는 데 열중했다는 얘기 아니냐≫며 ≪야당 총재 감시공작을 누가 지시했는지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의 논평이 발표되자, 민주당에서도 ≪한나라당에 대한 10개항 공개질의≫라는 반박 논평을 발표하는 ≪맞불 작전≫을 폈다. 평소 간략한 논평을 써왔던 이낙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만큼은 이례적으로 A4용지 4쪽 분량의 ≪장문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10개항 공개 질의≫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이 총재가 동의하는지 여부만 밝히면 될 것을 그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해명하지 않은 채 다른 얘기만 한다≫며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을 다시 꺼내드는 정치적 자산의 빈곤, 정치적 상상력의 결핍, 천박함을 드러냈다≫고 맞받아쳤다.

또한 이 대변인은 ≪이 총재의 ≪악의 축≫ 지지 의혹은 외국 신문들에 의해 먼저 제기됐다≫며 ≪이에 대해 명명백백히 해명할 용의가 없느냐≫고 밝혔다. 그는 또한 ≪여러 의혹을 확실히 불식하는 방법은 이 총재의 방미 중 대화 내용을 한나라당이 스스로 공개하는 것≫이라며 ≪만약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면 부시 행정부 인사들의 잇따른 대북 강경 발언 중 어디까지 의견을 같이 하는지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 대량살상무기 문제로 야기된 작금의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토록 북한과 미국에 요청하려는 국회 결의안의 조기 채택을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것은 혹시 이 총재의 방미 중 언동과 유관한 것은 아닌지 밝혀 달라≫며 ≪한나라당이 미국에 있는 이회창 총재 후원회 회원들을 동원해 미국 공화당 매파 의원들에게 대북 강경책을 주문하고 있다는 제보가 사실이냐≫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이한기 기자 hanki@ohmynews.com

≪월간조선≫의 색깔공세에 내려진 철퇴

재판부, ≪애기섬≫ 보도에 반론보도 게재 결정

여순사건을 다룬 영화 ≪애기섬≫을 이적 영화로 몰며 국방부를 ≪공격≫하고, 영화 사전검열까지 시도했던 월간조선이 재판부로부터 판매금지 가처분을 받은 데 이어 반론보도 결정까지 받아들이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월간조선사(사장 조갑제)≫ 10월호에서 여순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극영화 ≪애기섬≫을 ≪국군 지휘부의 자해행위(우종창 기자)≫라는 제목으로 ≪여순사건을 왜곡 · 조작한 영화≫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장현필(37 · 영화 ≪애기섬≫ 감독) 씨가 월간조선을 상대로 낸 반론보도를 지난달 23일 받아들였다.

재판부가 화해조서로 ≪이 판결이 확정된 후에 최초로 발행되는 ≪월간조선≫의 특집면의 좌측 상단 부분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월간조선은 3월호에 두 쪽 분량의 반론보도를 게재하게 됐다.

법원의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은 지난해 10월 김동신 국방부 장관이 월간조선사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이어진 것이며,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이 잡지 발행인과 취재기자를 상대로 민 · 형사상의 명예훼손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간조선은 지난 98년 11월에도 최장집 당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의 현대사 논문에 대해 색깔 공세를 퍼부어 최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월간조선의 사전검열에 의해 큰 곤경에 처했다



장현필 감독은 월간조선 3월호에 실리게 될 반론보도에서 ≪우종창 기자는 극영화(애기섬)를 단 1초도 본 적이 없음에도 단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비판한 것은 창작자의 고유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며,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인해 신청인을 큰 곤경에 처하게 만들었다≫며 사전검열과 이념공세로 큰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장 감독은 또 ≪지역의 가슴아픈 역사를 화해와 이해를 만들고 미래에 밝은 역사를 주고자 영화를 만들었다≫고 제작동기를 밝히면서 ≪월간조선은 자기 위주의 해석으로 여순반란사건으로 인식하며 지역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항의했다.

특히 월간조선이 영화 제작에 도움을 준 국방부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국방부의 자해행위≫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영화를 ▲여순 14연대 반란 진압을 양민학살로 몰고 간 영화(204쪽) ▲함포사격으로 양민 천명을 죽였다고 조작한 영화(205쪽) ▲여순 반란 사건을 통일운동의 성격을 띤 것처럼 그리고 국군의 진압작전을 양민학살로 부각시킨 영화(204쪽) 등의 왜곡된 표현으로 이적 영화로 몰아갔다고 반론을 폈다.

한편 장현필 감독은 순천시민과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소송비용을 마련해 지난 1월 말 월간조선을 상대로 손해배상(5억원) 청구 및 정정보도 소송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낸 상태다.

조호진 기자 tajin@ohmynews.com
2002/02/14 ⓒ 2002 OhmyNews

안티조선, 이문열씨 명예훼손 고소

충청지역 ≪안티조선일보≫ 운동가 3명은 18일 소설가 이문열씨가 ≪안티조선 세력은 친북세력≫이라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전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여인철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장 등은 고소장에서 ≪이씨가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안티조선 세력은 친북세력이며 안티조선의 원조는 북한으로 본다≫고 말해 안티조선 운동의 순수성과 운동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씨에게 지난 11일까지 사죄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해 고소장을 냈다≫고 말했다.

대전/송인걸 기자igsong@hani.co.kr

≪김현희 공범 김승일 죽음 의혹있다≫

KAL기 사건 대책위(준), 워크샵 열어



87년 김현희 KAL 858기 사건의 공범인 김승일(당시 70세)의 사체를 부검한 황적준 박사(고 박종철 열사 부검 집도의)는 기도와 식도에서 독약 앰플 조각이 발견되었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오후 4시 반부터 천주교 인권회관 3층에서 열린 김현희 KAL기사건진상규명시민대책위(준)가 주관한 워크샵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당시 당국이 발표한 KAL 858기 사건전모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으며 특히 김승일의 죽음에 대해 짙은 의구심을 표했다.

KAL 858기 사건을 개인적으로 15년간 추적해오고 있는 현준희씨는 이날 워크샵에서 당시 정부발표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승일은 5개국어에 능통한 고도의 첩보원으로 묘사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70 노객으로 위도 잘라내고 신장도 하나밖에 없으며 다리를 절며 폐병까지 있는 중환자이며 일본어 외에는 어떤 외국어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설명했다.

워크샵 참석자들 역시 독약 앰플 조각이 기도와 식도에서 동시에 발견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고, 김승일이 사용했다는 액체 청산가리는 독성이 강해 앰플을 깨트리는 순간 기화해서 사람을 즉사시키므로 김승일이 앰플 조각을 삼켰다든지 김현희가 조금만 깨물어 살아났다든지 하는 것은 모두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 대체로 수긍했다. 또한 현준희씨는 MBC의 밀착취재 과정에서 김승일 부검과 관련된 파일을 촬영한 내용 중에 김승일의 50세때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그가 북한공작원이라면 50세때 사진이 어떻게 정보기관의 문건에 첨부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따라 대책위는 김승일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당시 부검의였던 황적준 박사에게 질의서를 보내는 등 진상규명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준희씨는 최근 자신의 주장에 대한 ≪월간조선≫의 반박에 대해 ≪월간 인물과 사상≫에 기고한 글들을 소개하며 김현희의 귀 모양에 대한 문제제기를 비롯해서 김현희가 중국 조선족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현준희씨는 그 증거로 음성의 특성을 연구하는 성문분석 전문가인 일본인 스즈끼 마쓰미씨가 김현희의 음성을 분석한 결과 조선족에 가깝다는 결과를 얻었다는 점과 조선일보 87년 12월 2일자에 실린 KAL 858기에 탑승했던 박길영 승무원의 목격담에 따르면 김현희가 기내에서 식후에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점을 들었다. 현준희씨에 따르면 87년 당시 북한의 젊은 여성이 담배를 피우는 행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반면 중국에서는 식후 연초의 풍습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워크샵에서 ≪KAL기 사건 진상규명활동의 현재적 의의≫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은 심재환 민변소속 변호사는 사건해결을 위해 △진상규명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배상 △가해자 처벌 △재발 방지조치 등을 제시했으며 최근 ≪수지 킴 사건≫ 등을 통해 볼 때 반인권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와 재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회장은 ≪반북반공이라면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일도 서슴치 않는 범죄집단≫인 국가 정보기관에 대해 사회 여론화를 통해 재수사와 재심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국민여론을 통한 역사적 심판을 내릴 수 있는 ≪민간법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대책위 조직을 더욱 확대하고 진상규명 활동과 법적대응, 대국민 홍보 등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다음 대책위 모임을 3월 7일 오후 2시에 천주교 인권회관에서 갖기로 약속하고 늦게까지 진행된 워크샵을 마무리했다.

이날 워크샵에는 사회를 맡은 최규엽 대책위 집행위원장을 비롯해서 피해가족 차옥정, 김호순, 임옥순씨, 남상덕 천주교 인권위 사무국장, 김이경 통일연대 사무처장, 곽태영 박정희기념관 건립반대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근 수지 킴 사건과 최종길 교수 사건의 가리워진 진실이 드러나면서 KAL 858기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도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대책위의 새로운 의혹제기와 활발한 활동 계획은 앞으로 큰 폭발을 불러일으킬 기폭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치관 기자 (tongil@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2-02-19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한다≫

국제인권법과 헌법이 보장한 인권 침해 가능성 높다



인권시민단체들이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긴급 행동에 나선다.

여야 총무가 테러방지법안의 2월 회기내 처리를 합의하고, 20일부터 국회정보위원회 심의를 받는 등 입법 움직임이 농후하기 때문. 지난 해 9.11테러 이후 불거져 나온 이 법의 부당성을 주장해온 인권단체들은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강력한 대응을 할 방침이다. 우선 인권시민단체들은 오는 21일 오전 11시에 국회정문 앞에서 '테러방지법 정보위 상정에 즈음한 인권, 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강력한 반대의사를 천명할 예정이다.

인권시민단체들은 또 기자회견이 진행된 뒤에는 바로 국회 정보위 소속의원실을 방문해 의견서를 전달하고, 오후 2시엔 공동집회도 갖는다는 계획이다.

지난 해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이 시작된 이후 인권시민단체들은 수차례 성명을 발표하고 집회를 열었으며, 정보위원회 위원들에게 항의 팩스를 보내는 등 실천을 계획해 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일 테러방지법의 제정 반대를 천명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의견서에서 테러방지법안의 각 조항들이 국제인권법과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테러행위 예방 및 진압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국가인권위는 이 의견서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국정원, 정당을 비롯 법조계와 시민단체, 국제인권법학회 등의 다양한 의견청취하고, 연구검토절차를 밟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인권에 대한 법령 등에 대한 의견표명)에 따라 제출된 것이다.

이민우 기자 saram@suwon.com
2002/02/20 ⓒ 2002 OhmyNews

최종길교수 의문사 폭로 유인물

(서울-연합뉴스) 유신정권 치하 최초였던 고 최종길 서울법대 교수 의문사 사건과 관련, 지난 73년 10월 최 교수가 숨진 이틀 후 중앙정보부가 그의 죽음을 추락사로 위장.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의 ≪지하유인물≫이 재야를 중심으로 배포됐던 것으로 최근 밝혀져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유인물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최 교수 사건에 대한 공식발표를 하기전에 배포된데다 지금까지 밝혀진 최 교수 의문사 사건의 ≪진실≫과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도 이 유인물을 입수, 사건조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의문사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최 교수가 숨진 1973년 10월19일로부터 불과 이틀이 지난 ≪1973년 10월21일자≫로 발행일이 인쇄된 이 A4 용지 크기의 유인물의 제호는 ≪타도≫. 유인물은 ≪한국중앙정보부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를 무참히 죽였다≫라는 제목의필사본으로 ≪중정은 최 교수를 빨갱이로 몰아 5국 지하실 유치장옆 살인고문실에서 무참히 죽여놓고 시체를 승강기에 싣고 5국 5층 화장실에 끌고 가서 창문 밖으로 던져 자살로 가장한 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또 ≪살인고문시간 19일 오후 1시~2시≫ ≪시체던진시간 19일 밤 10시40분≫, 그리고 ≪시체던진 장소 5국 지하유치장입구 계단 옆≫ 등 세부적인 내용도 담겨 있다.

최 교수가 간첩임을 자백한 적이 없고 사체에 고문의 흔적이 있다는 점 그리고 최 교수가 남산 중장분실 7층에서 밀려 떨어졌다는 당시 중정 간부의 진술 등 지금까지 진상규명위가 밝혀낸 사실들을 감안할 때 유인물은 비록 날짜 및 장소에 약간의 혼선은 있지만 사건의 ≪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타도≫는 70년대 유신치하에서 재야운동가들을 중심으로 비정기유인물로 1천여장 가량 뿌려진 것으로 알려져, 당시 중정이 사건을 은폐하는 내용의 공식기자회견을 가진 73년 10월25일 수일전부터 이미 사건의 ≪진실≫은 소리소문 없이 세인들에게로 퍼져나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조사 초기 유인물 제작자를 만나 중정 내 ≪내부고발자≫와의 접촉을 주선해 주도록 설득했으나 실패했다≫며 ≪그러나 진상규명위는 이 유인물을 사건해결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현재 50대로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유인물 제작자는 당시 어떤 단체에도 속하지 않고 홀로 반정부 활동을 전개했으며 ≪불온 유인물≫을 제작, 배포했다는 이유로 중정에 끌려가 조사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국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무처장은 ≪≫타도≫지는 격렬한 용어와 폭로적 내용으로 70년대 당시 재야운동가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이었다≫며 ≪특히 70년대 유신반대 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될 때도 반정부 활동에 앞장섰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권은 전국연합 정광훈 공동의장을 즉각 석방하라



김대중정권은 전국연합 정광훈공동의장(전 전농의장)과 전농 배형택대협국장을 당장 석방하라!

1. 김대중정권은 전국연합 정광훈 공동의장(전전농 의장)과 배형택 대협국장을 구속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지난해 11월 13일 전국농민대회를 문제삼은 것이다. 지난해 김대중정권은 쌀시장의 전면개방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실상의 쌀농사 포기정책을 선언하며 쌀값을 인위적으로 폭락시킴으로써 농민들을 삶의 마지막 벼랑끝으로 몰아 부쳤다. 이미 김대중 정권의 이른 바 개방농정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된 농업말살정책으로 농민들은 40조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자살하는 농민들이 속출하고 농촌공동체가 뿌리째 파괴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마당에 쌀시장의 전면개방과 쌀농사 포기정책은 농민들의 마지막 생명줄을 끊어 놓는 일이었으며 민족경제의 근간인 농업에 종지부를 찍는 폭거였다.

주곡인 쌀농사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한 농민들이 이에 항의하여 투쟁하는 것은 너무나도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농민들이 앉아서 죽으라는 말인가?

2. 생존권과 민족농업을 사수하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농민들을 향해 곤봉세례만 퍼부었던 김대중정권이 이제 급기야 그 투쟁의 지도부를 구속시키는 만행에 이르렀으니, 이 어찌 이 땅의 모든 농민들에 대한 전면적인 선전포고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김대중정권의 이러한 폭거는 WTO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쌀시장의 전면개방,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체결 등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살농정책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 농민들의 저항을 무력화하겠다는 저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더욱이 정광훈 의장이 전국연합공동의장으로 취임하자 말자, 기다렸다는 듯이 구속을 감행한 것은 민족민주운동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적대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3. 예로부터 농심을 유린하고 짓밟은 자들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였다. 김대중정권이 즉각적인 석방조치를 단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전국연합은 전농과 함께 준엄한 투쟁으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아울러 전국연합은 이 땅 농민들의 생존권, 민족의 생존권이 달린 민족농업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전농과 함께 과감히 나서 김대중정권의 살농정책을 준엄히 심판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김대중정권은 전국연합 정광훈공동의장(전 전농의장)과 전농 배형택대협국장을 당장 석방하라!

2002년 2월 19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대변인실

(대변인 정대연 018-683-7278 / 부대변인 장대현 011-9707-5435 김광균 017-658-9769)

부시 방한 하루 전, 전농 간부 연행

전농대표자대회 이틀 앞둔 18일, 정책위원장 공항서 긴급체포





경찰이 기소중지 상태에서 두 차례나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난 농민단체 간부를 긴급 체포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리고 있던 간부에 대해서도 연행을 시도하자, 농민단체가 20일 예정된 전국농민대표자대회와 부시 미 대통령 반대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의장 정현찬)은 오는 20일 오후 1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WTO쌀 수입반대, 부시 방한 반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저지를 위한 전국농민대표자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어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부시 방한 반대 범국민대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미 두 차례 조사 받은 전농 강병기 위원장 긴급체포

전농 강병기 정책위원장은 18일 오전 사천공항에서 사천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긴급 체포되었다. 강 정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발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사천공항에 있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뒤, 오후4시 비행기로 과천경찰서에 인계되었다.

강 정책위원장은 지난해 3월 5일 과천에서 열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저지를 위한 전국농민대표자대회≫와 관련하여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아 왔고, 1월14일 기소중지가 내려졌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14일 전국농민대회와 관련하여 1월 23일과 2월 7일 두 차례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진주와 사천농민회 간부들은 강 정책위원장의 체포 소식을 듣고 사천경찰서에 항의했다. 진주농민회는 경찰의 긴급 체포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진주농민회 한정현 사무국장은 ≪과천 집회와 관련해 기소 중지 상태였다면, 그 후 두 차례 영등포경찰서 조사 때 왜 문제를 삼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이는 분명 부시 미 대통령 방한 반대 집회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강 정책위원장은 설날에도 아무런 제지없이 비행기를 타고 서울과 진주를 오고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정현 사무국장은 ≪지난해 3월 5일 과천 대회와 관련하여 간부들이 이미 재판까지 마친 상태에서 지금 느닷없이 수배를 내렸다≫며 ≪그렇다면 영등포와 종로경찰서에서는 수배 내린 사실도 모른 채 수배자들을 조사했다는 말이냐≫고 말했다.

사천경찰서 관계자는 ≪탑승자 명단 가운데 신원조회를 하던 중 강 정책위원장에게 수배령이 내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체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불구속 영장실질심사 기다리던 간부 연행 시도

전농은 집시법 위반과 관련하여 18일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정광훈 전 의장과 배형택 대외협력국장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배형택 국장을 집에서 연행했으며, 전남 해남 집에서 정광훈 전 의장을 연행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정광훈 전 의장은 당시 집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배 국장과 정 전 의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부시 반대 집회 · 현수막에 경찰 과잉반응

전농 김규영 투쟁부장은 ≪경찰의 전농 간부 긴급 체포와 연행 기도는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찰에서는 20일 집회를 앞두고 인원을 축소해 줄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압력≫을 넣고 있다≫고 말했다.

윤성효 기자 ysh@ohmynews.com

대중참여 후보 단일화 사례

울산에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최근 조합원총회 및 당원총회를 통해 지방선거에 단일후보를 내기로 합의했다. 이는 노동계와 진보정당을 대표하는 두 조직이 정치적 합의가 아닌 대중적 결의 방식으로 후보단일화를 이루려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들 조직은 다음달 중순께 민주노총 지역조합원 6만5천여명과 민주노동당 지역당원 3천여명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 예비선거를 통해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를 뽑을 계획이다. 예비선거에서 선출된 후보는 민주노총이 추천해 민주노동당이 공천하는 형식을 취해 선거에 출마한다.

애초 범민주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를 위한 협의는 지난해 10월부터 이 두 조직에 시민단체까지 포함해 세축을 중심으로 진행돼왔으나 시장 후보 문제를 둘러싼 견해 차가 커 실패했다. 그 뒤 지역 진보진영에서 가장 큰 대중조직을 갖추고 있는 민주노총쪽이 조합원총회 등 다수 대중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후보선출방식을 민주노동당쪽에 제의해 민주노동당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응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정책국장은 ≪후보선출 과정에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노동자의 정치적 관심이나 정치세력화의 기반을 넓히고 침체된 각 노조 현장도 추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총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쪽은 최근 1~2년 동안 정부의 노동정책 불신임투표 및 지역본부장 선거를 위한 조합원총회 때 나타난 투표율이 70~80%에 이른 점에 비춰 이번에도 3만~4만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에서도 시민단체 활동가 중심의 자치연대와 노동 농민운동 및 진보정당을 포괄한 민중연대회의가 함께 시민대중이 참여하는 ≪만인위원회≫를 구성해 시장 및 5개 구청장 후보를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단체는 다음달 중순까지 ≪백인소위원회≫를 구성해 개별 단체에서 추천하는 예비후보들의 자격을 검증한 뒤 다음달 말부터 4월 중순 사이 만인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선출을 끝낸다는 일정을 세워놓고 있다.









울산 광주/신동명 정대하 기자tms13@hani.co.kr

6.15공동선언은 이행돼야한다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2월

이 시간엔 먼저 ≪6.15공동선언은 이행돼야한다≫ 이런 제목으로 김현규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이북의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는 온 겨레의 일치한 지향과 염원을 반영하여 남북공동선언의 기치높이 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3대 호소, 3대 제의를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정당한 조치, 획기적인 대책이라 하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민족자주통일위업은 6.15공동선언이 펼쳐든 길을 따라 우리 민족끼리 지침으로 실현해나가는 거족적인 위업입니다. 올해 민족자주통일운동의 목표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투쟁의 봄, 자주통일의 높은 영마루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열쇠는 바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이행하는데 있습니다.

이북의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는 이로부터 출발하여 자주통일의 기치인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이행해 나갈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6.15공동선언은 민족자주통일선언, 조국통일의 이정표입니다.

우리 민족은 공동선언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바라고 우리 민족을 위한 통일은 자주통일입니다. 자주는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입니다. 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가면 자주통일이 이룩됩니다. 자주통일의 추동력도 공동선언에 있고 자주통일의 밝은 앞날도 공동선언이행에 있습니다.

정의와 진리를 귀중히 여기고 통일애국에 불타는 우리 청년학생들은 마땅히 선봉에 서서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야합니다. 그러자면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과 그 정당성을 각계 민중속에 널리 알려주기 위한 홍보활동을 심화시켜 꾸준히 벌여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이북의 합동회의가 제시한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3대 호소, 3대 제의에 각계 민중이 적극 지지동참해 나서도록 하기 위한 선도자적 역할을 다해야합니다.

미국의 대북강경정책과 무력증강, 북침전쟁책동을 짓부수기 위한 반전반미투쟁을 힘있게 벌이는 것은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이행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6.15공동선언발표이후 화해와 단합으로 향하던 겨레의 통일열망에 대북강경정책과 북침전쟁연습으로 찬물을 끼얹고 우리 민족을 핵전쟁의 희생물로 만들려고 책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양민학살진상규명, 주한미군기지되찾기운동, 무기강매반대, 북침전쟁연습반대 등 반미투쟁들을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투쟁의 궤도선상에서 더욱 심화시켜 거족적인 반미자주화의 열풍을 몰아와야 할 것입니다.

이회창을 비롯한 극우반통일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는 것 역시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이행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6.15공동선언이행으로 민족자주통일성업이 이룩되면 외세에 빌붙어 분단에 기생하는 반통일보수세력은 자기의 생존기반을 잃게 됩니다.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반통일보수세력은 어떻게해서나 6.15공동선언이행을 가로막아보려고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우반통일세력의 책동은 올 정초에 들어와 극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극우보수세력인 한나라당 이회창은 지난 1월 17일 연두기자회견이라는데서 남북관계의 상호주의, 투명성, 검증을 떠벌이다 못해 대양 건너 미국에까지 찾아가 상전들에게 연일 상호주의, 투명성, 검증을 애걸하며 6.15공동선언을 백지화해보려고 날뛰었습니다. 그런가하면 조선일보를 비롯한 반통일매문지들은 이북의 새해공동사설을 걸고들면서 악랄하게 비방해나섰습니다. 현실은 이회창을 비롯한 극우반통일세력을 척결하지 않는 한 6.15공동선언을 성과적으로 이행할수 없다는 것을 더욱 똑똑히 보여줍니다.

청년학생들은 지난해 투쟁경험을 적극 되살려 친미사대매국노, 반통일역적 이회창과 반통일매문지인 조선일보를 매장하기 위한 반이회창, 조선일보반대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 지펴올려야 합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비롯한 합법적 투쟁공간을 역적 이회창을 매장하고 조선일보매문지를 쓰레기통에 처박는 준엄한 심판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6.15공동선언이행을 가로막는 주적론철회와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을 좀더 당당하게 벌이고 더욱 완강히 꾸준하게 벌여나가야 합니다.

청년학생들은 6.15공동선언이행의 선봉장이 되어 과감한 투쟁으로써 시대와 역사앞에 지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6.15공동선언은 이행돼야한다≫ 이런 제목으로 김현규씨 말씀드렸는데요.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는데서 중요한 건 공동선언이행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하는데요. 특히 미국의 대북강경정책과 고립압살전쟁책동을 짓부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미국대통령 부시가 지난 1월 30일 연두교서라는데서 이북을 악의 축을 이루고 있는 나라라느니 뭐니하면서 비난했는데요. 이건 결국 이북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죠. 북미관계역사를 봐도 미국대통령이 직접 정책연설을 통해 이처럼 노골적인 침략위협을 가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의 이같은 책동으로 인해 남북간의 모든 대화와 이산가족상봉이 차단되고 한반도에는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짙게 드리우고 있어요.

미국의 이같은 책동은 결국 6.15공동선언을 빈 종이장으로 만들고 이 땅을 영원히 저들의 식민지로 가로타고 앉으려는 침략적, 강도적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반 사실들은 6.15공동선언을 고수이행하기 위해서는 반미반부시투쟁에 총력을 기울여야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당면해서 청년학생들은 부시의 방한을 앞두고 각계 민중과 힘을 합쳐 거족적인 반미자주화의 열풍을 몰아와야 할겁니다.

장군님의 전투복

김 숙

서리꽃 곱게 핀 2월의 아침
장군님 우러러 온 나라 인민들
만수축원의 인사 삼가 올리는데
아, 장군님께서는 전투복을 입으셨구나

오늘만이라도 우리 장군님
야전복 대신
금별 빛나는 옷을 입으셨으면 좋으련만
장군님께서는
수수한 잠바옷, 전투복을 입으셨구나

사람들 한 없는 즐거움에 휩싸여
너도나도 고운 옷 제일 좋은 옷
저마다 떨쳐 입고 흥성이는데
어찌 하여 우리 장군님만은
오늘도 겸허하신 그 차림
전투복차림을 하셨는가

생각하면 가슴 뜨거워라
충성의 한마음 안으신
우리 장군님
수령님께는 제낀옷 해드리시며
자신께선 인민위해
오늘까지 전투복을 벗지 않으시거니
그처럼 고결한 뜻 심중에 지니신
위대한분이시기에
온 나라 인민들의 축원을 받으셔야 할
2월의 오늘도
전선길 떠나시던 그때처럼
전투복을 그대로 입고 계시는것 아니더냐

혁명 위한 그 전투복 입으시고
우리 장군님
설명절 만경대원아들 찾으시여
친아버지되여 안아 주시고

생신날 명절날 어느 하루도 쉬임없이
전선에서 전선으로 종횡무진 하시며
천하를 틀어 잡는 그 담력으로
원쑤에겐 무서운 철추를
우리에겐 철의 신념 배짱을 주시였어라

아, 천하를 경탄시키시는
김일성민족의 수호자
김정일장군님 전투복은
조국과 인민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 정의를 지키시고
사회주의명예를 어깨에 메신
천출명장의 갑옷이여라

주체 91 2월 11일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2월 10일 이북 주재 중국 신임특명전권대사 무동화를 접견하셨습니다.

호전광부시의 한국행각을 반대하는 각계의 투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총련소속 대학생들이 9일 미국대사관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였습니다.

한총련은 9일 경찰이 미국대사관앞에서 기습시위를 단행한 학생들을 전원연행한데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모든 소속단체들이 이들의 뒤를 따라 나설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성명을 내고 각계에서 부시가 서울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겠다는 여론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부시를 조롱하는 노래가 대인기를 끌고 있는 속에서 국회의원들까지 부시행각을 반대하는 기세에 동조하고 있는데 대해 지적했습니다.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도 대학생들의 시위는 절대다수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의로운 행동이라면서 연행된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회원 100여명이 7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포기와 6.15공동선언실현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2002년 전남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가 6일 부시의 한국행각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6.25전쟁전후 민간인학살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가 4일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강화희생자유족회 등 3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 단체 공동대표 임헌영씨는 미군의 민간인학살문제는 과거의 역사청산문제가 아니라 오늘과 내일의 문제라면서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중소영세기업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희생없는 주5일근무제를 위해 우선 도입당사자인 공공, 병원, 대기업노조를 중심으로 동시도입선언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서울 지방법원이 평양에서 진행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남측본부 성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을 규탄해 7일 성명을 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신절에 즈음해 우즈베끼스딴고통련산하 청년예술단들의 제3차 예술축전이 지난 2일 따슈껜뜨주 뉴크리 치르치크구역 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신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10일 러시아연방 원동연방구주재 꼰스딴찐 대통령전권대표가 주석님께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이북 정부에서는 이북을 방문한 러시아연방 원동연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를 위해 10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연회를 마련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신절에 즈음해 이북 주재 중국 대사가 지난 9일 저녁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9일 성명을 발표해 이회창이 미국을 행각해 늘어놓은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망언을 규탄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혁명적 동지애를 높이 발휘한 조선인민군 조동현소속 부대 대원이였던 이철민씨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가 수여됐습니다.

프랑스 수상이 8일 유럽연합의 한 회의에서 미국의 일방주의를 배격했습니다.

그는 특히 미국의 군비증강책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군사적 방법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체91 2월 12일

통일연대소속 김영철씨가 2월 5일 시내 모처에서 열린 정세포럼에서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그는 ≪한반도정세와 미국≫이라는 제하의 연설에서 북을 악의 서열에 세워 비판한 부시대통령의 ≪연두교서≫발언을 전쟁광신자의 궤변으로 강도높게 단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한반도정세는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으로 인해 나날이 긴장격화의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제아무리 이북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패권주의의 더러운 야심을 실현하고자 하지만 그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 이북은 인민군이 그 어떤 대적도 쳐물리칠수 있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위용을 떨치고 있고 군민이 하나로 똘똘뭉쳐 온 나라를 철벽의 요새로 다져놓았다.≫

김씨는 계속해 ≪이북이 그 어떤 침략세력의 위협이나 도전에도 끄떡하지 않는 강위력한 나라로 우뚝 솟아오르게 된 것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국사중의 제1국사로 거머쥐시고 현명하게 영도하고 계시는데 있다. 비범한 군사적 예지와 담력, 천변만화하는 지략을 지니시고 그 어떤 대적도 눈아래로 굽어보시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펴시는 한 이북은 미국의 그 어떤 도발도 제압하고 나라의 존엄을 굳건히 고수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미국대통령부시가 ≪연두교서≫라는데서 대북전쟁포고나 다름없는 망발을 늘어놓은 것과 관련해 지난 1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반미여성회가 1월 30일 성명을 내고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는 부시를 규탄했습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대기련)은 7일 부시의 방한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캐나다지역본부가 2일 이북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 호소문을 지지환영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신절에 즈음해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에서는 지난 수십년동안 문학예술부문 사업을 영도하시면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집대성한 총서 ≪20세기 문예부흥과 **김정일**≫(전13권)을 편찬발행했습니다.

주체91 2월 13일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11일 이북을 방문한 러시아연방 원동연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꼰스딴찐 보리쏘비치 뿔리꼽스끼를 접견하셨습니다.

최근 부산의 D신문 인터넷 독자투고란에 ≪축 216≫이라는 제목으로 **김정일**장군님의 초상이 모셔졌습니다.

서총련 임시의장이 6일 ≪부시방한저지투쟁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동상에 음력설을 맞으며 각계 민중들과 인민군 장병들이 12일 꽃바구니를 진정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

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그분의 탄생일에 즈음해 팔레스타인 국가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왔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시리아 국방상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그분의 탄생일에 즈음해 이북 주재 외교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렸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러시아연방 원동연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꼰스딴찐 보리쏘비치 뿔리꼽스끼가 12일 이북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2월의 명절에 즈음해 쿠바 **김일성**경제전문학교에 새로 꾸려진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혁명활동사진전시관이 7일 개관됐습니다.

주체91 2월 14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신일을 맞으며 부산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태양회≫에서 여러가지 행사와 홍보활동을 벌였습니다.

부산경남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이 10일 부시의 한국행각을 반대하는 투쟁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김형주씨가 9일 ≪백만학우들에게 보내는 글≫을 냈습니다.

8일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서울 용산기지내에 5층짜리아파트 2개동 60세대를 건설하겠다고 최종발표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 이회창총재의 방미직후 부시를 비롯한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대북강경발언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회창이 부시행정부의 고위당국자들과 만나서 무슨 말을 했는지 분명히 밝히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대변인은 이회창이 미국 고위당직자들과의 연대에서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기조를 주문했거나 동의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면 외교와 한반도평화에 대한 무감각과 무능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이회창은 미국방문시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전략적 상호주의를 운운하면서 6.15남북공동선언이행에 제동을 걸어줄 것과 북의 대량살상무기개발 등을 거론하며 대북강경정책을 계속 견지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회창은 또 자신이 집권하면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보장하는 등 미국의 어떤 요구도 다 받아들이겠다면서 자신을 적극 지지해달라고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이회창은 또한 부시의 ≪악의 축≫발언을 지지하며 북에 대한 군사적 공격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미국 고위당국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회창의 이같은 망언은 미국의 전쟁도발책동을 부추겨 이 땅에 기어이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려는 용납못할 반민족적인 대죄가 아닐수 없습니다.
친미사대매국노인 이회창을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우리 겨레는 돌이킬수 없는 커다란 재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남북 새해맞이행사가 남북관계를 둘러싼 남남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느니 뭐니하며 행사참여를 중단하라고 정부측에 요구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처사는 남북간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고 대결만을 고취시키려는 용납못할 반민족적 행위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회창일당의 이같은 행위는 국민의 규탄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재러조선공민중앙협회 채종만회장이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의 사대매국행위를 규탄해 7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생일에 즈음해 이북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가 13일 저녁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21세기의 태양맞이 모임≫이 13일 혁명의 성지 백두산 밀영지구에서 성대히 개막됐습니다.

주체91 2월 15일

≪한민전≫ 평양대표부 박광기대표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해 14일 평양에서 국내외기자들과 회견했습니다.
박광기대표는 백두산장군이신 위대한 **김정일**님께서 탄생하신 2월 16일은 우리 민족과 인류가 또 한분의 걸출한 수령을 맞이한 대경사의 날이며 **김일성**조선의 부강번영과 주체시대의 창창한 미래가 확고히 기약된 영원한 명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사스러운 2월의 대명절에 즈음해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인류의 다함없는 축원속에 탄생일을 맞으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고 있으며 장군님 따라 조국통일을 기어이 실현할 의지와 맹약을 더욱 굳게 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이남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흠모와 칭송이 전사회적인 감정으로 승화되어 대세의 흐름으로 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민심을 반영해 언론매체들이 장군님의 위대성을 대대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대해서 상세히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 학교에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업적을 깊이 연구보급하고 있다면서 **김일성김정일**연구, 주체사상연구 등 지금까지 취급하지 않던 부분까지 연구교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남 민중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특출한 정치실력을 지니신 위대한 정치가로 높이 칭송하면서 장군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우러러 따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남 민중은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의 채택은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이룰수 있는 공적중의 공적으로 칭송하고 있다면서 조국통일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해 가까운 시일안에 이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민전은 각계 민중과 더불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끝까지 따를 것이며 다함없는 충성의 한길에서 통일조국의 새날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총련 부시방한저지선봉대가 9일 성명을 내고 한총련 백만학우는 6.15공동선언이행의 암초인 부시의 한국행각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족화해조국통일협의회가 9일 한총련선봉대의 애국적인 미국대사관진격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와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의 주최로 8일 조선일보사앞에서 조선일보의 반민족반통일행위에 대한 규탄대회가 진행됐습니다.
대회는 1월 30일에 있었던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에서 내린 판결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판결문을 조선일보측에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민간법정에서는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기소된 보도기사에 대한 사죄, 관련책임자 처벌 등의 내용이 담긴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회에서 전국연합 오종렬상임의장은 일제시기 조선일보가 일왕의 친자로 자처하며 독립군을 탄압하는데 앞장서는 등 동서고금에 유례없는 친일행위를 감행한데 대해 규탄했습니다.

그는 독재정권에 아부굴종해왔으며 지금도 겨레의 통일행군을 방해하고 있는 조선일보를 역사앞에 단죄하는데 서울시민이 함께 나서자고 호소했습니다.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김동민상임대표는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등이 바로 이 땅에서 악의 축을 이루고 있다면서 그것을 반드시 무너뜨려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연대의 강형구조직국장, 불교통일연대의 진관스님은 북을 헐뜯는데 여념이 없는 조선일보를 비난하면서 조선일보를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경찰의 저지를 뚫고 판결문을 조선일보사 출입문안에 던져넣었습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이회창이 미국행각때 ≪부시의 ≪악의 축≫발언을 지지한다≫고 말했다는 외신보도와 관련해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였다며 해명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한광옥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회창이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세계평화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에 대단히 경솔하게 대응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이과대학에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보내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와 탄신일을 맞으시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드리는 명예칭호증서와 훈장, 꽃바구니, 축시, 선물전달식이 14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됐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그분의 탄신절에 즈음해 모아메르 엘 가다피 리비아 최고지도자가 꽃바구니를 보내왔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조선노동당출판사에서는 조선민중과 **혁명적 민중들의 지향과 염원을 반영해 **김정일**영도자님의 혁명활동과 불멸의 업적을 집대성한 전서 ≪**김정일**동지전기≫(제1권)을 출판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주체91 2월 16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생일에 즈음해 경애하는 장군님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축하문을 드렸습니다.

한민전 중앙위원회는 민족최대의 경사절인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 축하문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경향각지 주민들이 그분에 대한 경모의 마음을 금치 못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삼가 축원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노동자 김모씨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신절을 열렬히 축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일**장군님은 우리 민족의 태양이시고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시다. 그분께서는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하셨으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하고 계신다. 우리 노동자들은 북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안겨야할 품은 노동자, 농민을 위한 훌륭한 정치를 펴시는 **김정일**장군님의 품밖에 없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다. 우리들의 꿈이 실현될 그날을 고대하면서 탄신절을 맞으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부디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한다.≫

서울 세종로에 사는 통일운동단체의 한 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탄신절은 말그대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일뿐 아니라 인류공동의 명절이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 **김정일**장군님의 탄신절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들을 결성하고 다채로운 경축행사들을 광범위하게 벌이고 있는 사실은 그분이시야말로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시라는 것을 감명깊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커다란 영광이고 행복이다. **김정일**장군님 계시기에 새로운 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이 채택될수 있었고 통일운동이 높은 차원에서 활발히 전개될수 있었으며 통일의 전망 또한 밝은 것이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하시기에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반통일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고 머지않아 통일은 반드시 이룩될 것이다.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해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축원한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활약하는 ≪2.16동지회≫ 회원들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김정일**장군님의 위인상을 보여주는 특보 1, 2를 발간했습니다.

특보1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사진을 모시고 헌시 ≪2월의 명절을 노래합니다≫를 비롯하여 장군님을 칭송하는 글 ≪만대에 빛날 영원불멸할 업적≫, ≪만민이 우러르는 21세기의 태양≫, ≪우리는 **김정일**장군님만을 믿고 삽니다≫ 등이 실렸습니다.

특보2에는 ≪위인의 거룩한 발자취≫라는 제목아래 2월 16일을 맞으며 평양방송이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민위천의 좌우명을 지니시고 광복후부터 지난해까지 1만1326개 단위에 105만8260여리의 노정을 거쳐 현지시찰하셨다고 전한 소식을 실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이북 민중의 한결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금강산 천연바위에 ≪천출명장 **김정일**장군≫이라는 대형글발을 새겨넣은 소식도 구체적으로 실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생일에 즈음해 이북 정부는 14일 저녁 인민문화궁전에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 2.16경축 중앙보고대회가 15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그분의 탄신절에 즈음해 푸틴러시아연방대통령이 축하친서를 드렸습니다.

평양방송에 따≪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의 국제연단이 15일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그분의 탄신절에 즈음해 몽골대통령이 축하편지와 선물을 보내왔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그분의 탄신절에 즈음해 중국 공산당에서 축전을 드렸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그분의 탄신절에 즈음해 이북 주재 경제 및 무역참사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렸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그분의 탄신절에 즈음해 15일 주체사상국제연구소에서 대형 축시를 드렸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도 꽃바구니를 드렸습니다.